



연구보고서 2014-22-6-1

저출산 정책 확대에 따른 자녀 양육 행태 변화 분석

신윤정 · 기재량 · 우석진 · 윤자영

【책임연구자】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동아시아 국가 가족 정책 비교 연구-한국·중국·일본·싱가포르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공동연구진】

기재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우석진 명지대학교 교수

윤지영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연구보고서 2014-22-6-1

저출산 정책 확대에 따른 자녀 양육 행태 변화 분석

발행일 2014년 12월 31일

저자 신윤정

발행인 최병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122-705)

전화 대표전화: 02)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정가 6,000원

발간사 <<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한 이래 정부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무상 보육, 가정 내 양육 수당, 육아 휴직 급여의 증가 등을 중심으로 급속한 확대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많은 가정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여전히 호소하고 있다. 국내 저출산 문제는 이러한 자녀에 대한 과도한 양육 부담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본다.

과거 놀랄만한 한국의 경제 성장은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에 따른 우수한 인적 자본의 축적에 기인한 바가 크다. 한국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투자는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투자와 더불어 돌봄 노동 등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투자도 함께 이루어 졌다. 그러나 과거 한국 경제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던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는 이제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어 오히려 우리 사회의 미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공적인 부분에서 아동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 갖는 높은 투자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역부족하다.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 갖고 있는 양육 부담이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2013년도 연구에서는 정부의 양육 지원 정책의 확대에 따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모들의 부담 수준이 얼마나 감면 되었는가 분석하였다. 올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연속선상에서 시간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저출산 정책 확대 시기 동안 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얼마나 감소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남성들의 가사 및 자녀 양육

에 대한 참여가 강조되고 있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가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 양육 관련 시간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 감면되었는가 파악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매우 시사점 있는 연구이다.

본 연구는 시간 사용의 시계열 변화에 내재되어 있는 메카니즘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계량 경제학적 분석 방법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련 연구 분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2016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 사회에 도래하고 있는 신사회적 위험 대응하여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남녀 간의 역할을 모색하는데도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신윤정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이재량 연구원, 명지대학교 우석진 교수, 한국노동연구원 윤자영 박사의 공동 연구로 수행하였다. 연구 추진 과정에서 유용한 조언을 제공해 주시고 진심어린 검독을 맡아 주신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김혜영 교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은희 박사께 감사드린다.

201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저출산 시대에서의 자녀 양육	13
제1절 유럽 국가의 출산율 동향	15
제2절 프랑스와 북구 유럽 국가 사례	30
제3절 독일과 이탈리아 사례	50
제3장 자녀 양육 시간에 대한 선행 연구	57
제1절 이론적인 배경	59
제2절 외국의 선행 연구 결과	63
제3절 국내 선행 연구 결과	88
제4장 국내 가사 노동 및 자녀 돌봄 시간 변화 분석	97
제1절 분석 개요	99
제2절 기술 분석	102
제3절 연도별 변화 요인 분해 분석	123
제4절 시간 사용 분포별 요인 분해 분석	133

제5장 결론	153
제1절 연구 결과의 종합	155
제2절 향후 정책 방향	158
참고문헌	163

표 목차

〈표 3- 1〉 OECD 국가의 하루당 평균 자녀 돌봄 시간 현황(1998~2009) 71

〈표 3- 2〉 OECD 국가의 주당 평균 자녀 돌봄 시간과 출산율 72

〈표 3- 3〉 프랑스 가사 활동 시간과 자녀 돌봄 시간 요인별 분해 결과 76

〈표 4- 1〉 분석 대상 표본의 특성 101

〈표 4- 2〉 한국 성인의 생활 시간 분석 결과(1999~2009년) 104

〈표 4- 3〉 한국 성인의 가정 관리 및 자녀 보살피기 양성 격차 분석(1999~2009년) .. 107

〈표 4- 4〉 한국 성인의 가정 관리 및 자녀 보살피기 연령별 비교 분석(1999~2009년) .. 108

〈표 4- 5〉 한국 성인의 가정 관리 및 자녀 보살피기 세부 활동별 비교 분석(1999~2009년) .. 110

〈표 4- 6〉 한국 성인의 가정 관리 및 자녀 보살피기 시간 분위별 비교 분석(1999~2009) .. 113

〈표 4- 7〉 비교 대상 국가의 주요 특징 117

〈표 4- 8〉 성인의 가정 관리 시간 변화 추이 국제 비교 119

〈표 4- 9〉 성인의 자녀 돌봄 시간 변화 추이 국제 비교 122

〈표 4-10〉 Oaxaca-Blinder 분해 분석: 표본 및 분석 대상 127

〈표 4-11〉 Oaxaca-Blinder 분해 분석: 독립 변수 127

〈표 4-12〉 Oaxaca-Blinder 분해 분석 결과: 가정 관리 시간(2004~2009) 130

〈표 4-13〉 Oaxaca-Blinder 분해 분석 결과: 자녀 돌봄 시간(2004~2009) 132

〈표 4-14〉 남성의 가정관리시간과 자녀돌봄시간 Juhn-Murphy-Pierce 분해 결과
(2004-2009) 138

〈표 4-15〉 여성의 가정관리시간과 자녀돌봄시간 Juhn-Murphy-Pierce 분해 결과
(2004-2009) 139

그림 목차

[그림 3- 1] 유럽 16 개 국가의 자녀 돌봄 시간의 변화(1960~2000): 전일제 근로 남성과 여성	64
[그림 3- 2] 유럽 16개 국가의 자녀 돌봄 시간의 변화(1960~2000): 비취업여성과 전체 여성	65
[그림 3- 3] 유럽 16개 각 국가의 자녀 돌봄 시간의 변화(1960~2000)	66
[그림 3- 4] OECD 국가의 주요 행동별 시간 활용 현황(1998~2009)	68
[그림 3- 5] OECD 국가의 임금 노동 시간과 비임금 노동 시간(1998~2009)	69
[그림 3- 6] OECD 국가의 비임금 노동 시간의 양성 격차(1998~2009)	69
[그림 3- 7] OECD 국가의 여성 취업률과 남녀별 비임금 노동시간의 상관관계 (1998~2009)	70
[그림 3- 8] OECD 국가의 남성 자녀 돌봄 시간과 출산율	73
[그림 3- 9] OECD 국가의 여성 자녀 돌봄 시간과 출산율	74
[그림 3-10] 프랑스 가사 활동 시간의 요인별 분해 분위별 분포도 분석(1985~2010) ..	86
[그림 3-11] 프랑스 자녀 돌봄 시간의 요인별 분해 분위별 분포도 분석(1985~2010) ..	87
[그림 4- 1] 한국 성인의 생활시간 분석 결과(1999~2009년)	105
[그림 4- 2] 한국 성인의 가정 관리 및 자녀 보살피기 시간 분석 결과(1999~2009년) ..	105
[그림 4- 3] 한국 성인의 가정 관리 시간 세부 활동별 비교 분석(1999~2009년)	110
[그림 4- 4] 한국 성인의 자녀 돌봄 시간 세부 활동별 비교 분석(1999~2009년)	111
[그림 4- 5] 한국 성인의 가정 관리 및 자녀 보살피기 시간 분위별 비교 분석 (1999~2009년)	114
[그림 4- 6] 비교 대상 국가의 합계 출산율 추이(1985~2011)	115
[그림 4- 7] 성인의 가정 관리 시간 변화 추이 국제 비교	120
[그림 4- 8] 성인의 자녀 돌봄 시간 변화 추이 국제 비교	123
[그림 4- 9] 가사 활동 시간 변화의 시간 사용 분포별 요인 분해 분석 결과(2004~2009) ..	145
[그림 4-10] 자녀 돌봄 시간 변화의 시간 사용 분포별 요인 분해 분석 결과(2004~2009) ..	148

Abstract <<

Analysis on childcare behaviors after the expansion of family policies

This study analyzed changes in time spent on childcare and household work from 1999 to 2009 by using data from Korea Time Use Survey. In order to examine changes in time, the differences are broken down into explanatory factors and un-explanatory factors. This study estimates three models: Oaxaca-Blinder model, Juhn-Murphy-Pierce model, and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Model.

The amount of time spent on childcare and household work increased for men. For women, time spent on childcare increased similar with men but time spent on household work decreased. Though these changes, men still spend very limited times on childcare and household work compared with female. This finding suggests that strong gender norms on childcare and household work still remain in Korean society. The influence of the socio-demographic factors such as perceptions and attitudes are very limited. For women, not only the un-explanatory factors but also explanatory factors affect the increase in the time spend on household work. However, un-explanatory factors are a strong driving force for increases in

2 저출산 정책 확대에 따른 자녀 양육 행태 변화 분석

time spent on childcare for women. Increases in time spent on childcare for men were found mostly from those who had spent some time on childcare. Most women decreased time on household work. But for the childcare women who spend more time on childcare are more likely to increase the time than women who spend less tim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amounts on time spend on childcare and household work have changed since the government expanded family policies. The changes in time for household of men and women work reflect the gender inequality in household work decreased. Increases on time spend on childcare for men are positive sings because it reflects more husbands share childcare with wives. However, increase in the time on childcare for female indicates the traditional role of women in childacare are still emphasized in Korean society and the burdens are remains. In order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men in household work and childcare the better and safe employment should be provided for men. The burden of childcare on parents need to be relived by providing the relevant supports from public sides.

요약 <<

국내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 노력으로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보편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국내 출산율은 초저출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을 통해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키우는데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및 돌봄 부담을 감면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정책 확대시기를 이후로 나타난 자녀 양육과 관련한 가사 활동 시간과 자녀 돌봄 시간의 시계열적 변화와 그 변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메커니즘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국내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1999, 2004, 2009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가사 노동 시간과 자녀 돌봄 시간의 변화 및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요인을 구조적인 요인과 비구조적인 요인으로 분해하였다. 기술 분석을 통하여 전반적인 시간 활용 변화, 가정 관리 시간과 자녀 돌봄에서의 성별, 연령별, 세부 활동 영역별, 시간량 분위별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Oaxaca-Blinder 분해 방법론을 적용하여 남성과 여성의 시간 변화에 내재되어 있는 요인을 구조적인 요인과 비구조적인 요인으로 분해하고 시간 변화를 설명하는 크기와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시간 사용이 많은 집단과 적은 집단 간의 구조적 요인과 비구조적 요인의 상대적인 크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Juhn-Murphy-Pierce 분해와 무조건 분위회귀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술 분석 결과, 남성의 가정 관리 시간과 자녀 보살피기 시간은 모두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자녀 돌봄 시간은 증가하였으나 가정 관리 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성들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

4 저출산 정책 확대에 따른 자녀 양육 행태 변화 분석

성의 참여율과 시간 사용량이 현저하게 낮고, 여성의 참여율과 시간 사용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가정 관리 시간과 자녀 보살피기에서 강한 성 역할 관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남성들의 시간 증가의 대부분은 인구학적 특성 등 구조적인 요인의 차이보다는 관습과 인식과 같은 비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유도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들의 경우 가정 관리 시간의 감소는 비구조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 돌봄 시간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비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증가된 바가 컸다. 남성들의 평균적인 시간 증가는 시간 사용량이 높은 3사분위(Q3) 이상을 차지하는 집단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서 나타났다. 여성들의 경우 가정관리시간의 감소는 전체 분위에서 어느 정도 고르게 나타난 반면에, 자녀 돌봄 시간은 시간량 분포의 5분위(D5) 이상을 차지하는 집단에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시간 사용량이 높은 집단일수록 구조적인 요인보다는 구조적인 요인과 비구조적인 요인의 상호 작용에 따라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남성의 돌봄 노동 시간의 증가가 비구조적 요인에 의해 전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은 남성의 의식 변화가 저출산을 타개하는 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변해 주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적인 요인 효과는 노동 시장 구조 및 관행에서 크게 달라진 바가 없음을 시사한다. 여성의 돌봄 노동 시간에서 구조적인 요인의 부정적인 영향을 비구조적인 요인의 긍정적인 영향이 상쇄하고 있다는 점은 자녀 돌봄 시간에 대한 심리적 동기가 자녀 양육 행태를 떠받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향후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언할 수 있다. 첫째, 남성들의 자녀 양육 및 가사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 사업과 더불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등 거시적인 경제 지표를 증진시

키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가족을 위하여 생계 활동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밖에 없는 중산층 이하의 남성들의 가사 및 양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노동 시장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한 자녀 돌봄 시간이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정서적인 가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비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돌봄 부담의 증가로 귀결되고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성들의 돌봄 시간 증가는 최근 국가적인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셋째, 자녀 돌봄 시간 증가는 자녀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자녀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차원에서의 투자도 함께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자녀에 대한 투자는 아동이 공공재라는 개념 하에 공적인 영역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사교육 등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비효율적인 투자에 대해서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주요용어: 저출산, 돌봄 시간, 가사노동시간, 자녀양육, 양성평등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내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 노력으로 2005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한 이래 정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은 보편적으로 확대되었다. 2013년부터 0~2세 영아에게 시설 보육료, 3~5세 유아에게 누리과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보편적인 영유아 보육교육 체계가 확립되었으며,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2011년 육아휴직급여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고, 휴직 사용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할 계획에 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2년 국내 출산율은 1.3명인 초저출산 수준으로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현황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에 출산율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정부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대해 갖는 실효성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원론적으로 볼 때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출산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이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데 직면하고 있는 부담을 감면시킬 수 있어야 한다. 자녀 양육 부담은 경제적인 부담과 더불어 “돌봄 노동” 부담 모두를 포함한다. 정부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부모들이 자녀 양육을 위해 비용을 덜 지출하고 자녀 돌봄을 덜 부담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해야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2013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고령사회 일반사업 연구에서는 저출산 정책 확대에 따라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부담이 어느 정도 감면되었는가 분석하였다¹⁾.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올해 연구에서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저출산 정책 확대 시기 동안에 부모들의 자녀 돌봄 부담이 얼마나 감소하였는가 분석하고자 한다. 양성 평등 의식이 발달한 서구 유럽 국가와 달리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자녀 돌봄과 가사 노동에 있어 강한 성역할 고정 관념이 존재하고 있으며, 취업 부모들이 일과 가정 생활의 양립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 현실에서 돌봄 노동이 남녀 간에 얼마나 공유되고 있으며 부모들에게 얼마나 부담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국내 저출산 현상에 어떠한 함의점을 가지고 있는가 모색해 보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국내 선행 연구들은 통계청 생활시간 활용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자녀 돌봄과 가사 활동 시간에 대한 많은 분석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단년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정태적인 측면에서 가사 및 돌봄 노동 시간의 현황과 양성 격차, 여성의 비임금 근로 가치 등을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여 정부가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시기 동안에 자녀 돌봄 시간과 가정 관리 시간이 어떻게 변화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주도되었는가를 분석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추진 이후 꾸준히 지속된 자녀 양육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체되어 있는 국내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여 자녀 양육과 관련된 돌봄 시간과 가사 노동 시간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가 분석함으로써 국내 저출산 문제 해결

1) 신윤정, 고제이, 이지혜, 윤자영 (2013)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을 위한 유용한 함의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자녀 돌봄 시간과 가사 활동 시간의 시계열적 변화, 그리고 그 변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메커니즘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기술한다.

제2장 “저출산 시대에서의 자녀 양육”에서는 유럽 국가의 가족 구조와 출산율 추이, 서구 사회에서 자녀가 갖는 의미, 유럽 가족 정책과 출산율 관계를 살펴본다. 보다 구체적인 국가 사례로서 적정한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와 북구 유럽 국가 그리고 출산율이 낮은 독일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자녀 양육 환경을 기술한다.

제3장 “자녀 양육 시간에 대한 선행 연구”는 제2차 인구학적 변화 시기 이후에 나타난 자녀 양육 행태에 대하여 이론적인 연구 결과를 검토한다.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자녀 양육 행태에 나타난 변화를 고찰하고 이러한 변화에 내재되어 있는 성 역할 규범과 출산율과의 관계를 검토한다. 다음으로는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자녀 양육 및 가사 노동 시간과 관련하여 분석한 국내 연구 현황과 주요 연구 결과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국립 인구 연구소(INED)가 프랑스 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980~2010 기간 동안에 일어난 가사 노동과 자녀 돌봄 시간에서의 시계열적 변화와 그 변화에 내재되어 있는 메커니즘을 심층 분석한 연구 결과의 주요 시사점을 정리한다.

제4장은 국내 가사노동 및 자녀 돌봄시간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분석 자료로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1999, 2004, 2009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미취학 혹은 초·중·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20~59세의 기혼 성인 남녀로 하였다. 종속 변수는 통계청의 정의에 따른 “가정 관리 시간”과 “자녀 돌봄 시간”으로 하였다. 기술 분석에서는 분석 대상자들의 전반적인 시간 활용의 변화를 고찰하고, 보다 세부적으로 가정 관리 시간과 자녀 돌봄 시간의 시계열적 변화를 성별, 연령별, 세부 활동 영역별, 시간량 분위별로 분석하였다. 유럽 국가에서 나타난 변화와 비교하기 위하여 기술 분석 결과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미국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시간 활용의 연도별 변화에 내재되어 있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해 Oaxaca-Blinder 모형, Juhn-Murphy-Pierce(JMP) 모형, 무조건분위회귀 모형을 활용하여 심층 분석을 하였다. Oaxaca-Blinder 모형을 이용하여 2004~2009 기간 동안 나타난 가정 관리 시간과 자녀 돌봄 시간의 변화를 구조적인 요인과 비구조적인 요인으로 분해하여 통계적인 유의성과 상대적인 크기를 남녀 간에 비교하였다. JMP와 무조건분위회귀 모형을 통해서는 가정 관리 시간과 자녀 돌봄 시간의 연도별 변화를 시간 사용량 분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시간량 분포에서 어떤 집단이 주도적으로 평균적인 시간 변화를 이끌었는가 파악하고, 시간 사용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별로 구분하여 시간 사용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을 구조적인 요인과 비구조적인 요인으로 분해하였다. 특히 무조건분위회귀 모형의 추정 결과를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한 프랑스의 연구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사회 발달 단계 및 문화와 규범이 서로 다른 두 국가 간의 시간 사용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요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연구 분석 결과가 가지고 있는 시사점과 향후 정책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제2장

저출산 시대에서의 자녀 양육

제1절 유럽 국가의 출산율 동향

제2절 프랑스와 북구 유럽 국가 사례

제3절 독일과 이탈리아 사례



2

저출산 시대에서의 자녀 양육 <<

출산율의 하락은 한 국가가 경제사회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나타나게 된 사회적인 현상으로서 산업화 이후 유럽 국가에서 부터 일어난 현상이다. 1990년대 출산율의 하락을 경험하였던 유럽 국가들은 몇몇 국가에서 최근 출산율의 반등을 보이고 있다 (Myrskylä et al. 2009). 출산율의 반등을 보이는 프랑스 및 북구 유럽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높은 복지 수준을 기반으로 하여 체계적인 가족 정책 및 일과 가정 생활 양립 지원 정책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유럽 국가의 가족 정책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국내 연구들에서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 외에 자녀 양육을 둘러싼 규범과 문화에 대해서 언급한 문헌을 아직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최근에 발간된 “The Social Meaning of Children and Fertility Change in Europe (Ellingsaeter.et.al. 2013)”에서는 유럽 국가의 출산율 변동에 주목하여 적절한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북구유럽 국가인 노르웨이와 스웨덴 및 프랑스, 그리고 출산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독일과 이탈리아 중심으로 각 복지 국가 레짐별 자녀 양육을 둘러싼 사회 문화적 환경과 규범, 자녀에 대한 인식을 기술하였다. 동 저서는 그 간의 유럽 국가의 가족 정책에 대한 문헌들이 정책 사항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과 차별적으로 유럽 국가의 복지 레짐별로 자녀 출산, 양육, 성 역할에 대한 규범과 문화 그리고 태도에 중점을 분석을 하였다는 차별성이 있다.

실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 및 정책적인 환경 마련도

중요하지만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자녀 출산과 양육 그리고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규범이 출산 친화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자녀 출산과 성 역할에 대한 규범은 또한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과 제도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Ellingsaeter.et.al.(2013)가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유럽 국가의 가족 구조와 출산율 추이 그리고 서구 사회에서 자녀가 갖는 의미, 그리고 유럽 가족 정책과 출산율의 관계를 살펴본다. 이러한 개괄적인 사항을 기술한 후 보다 구체적인 국가 사례로서 적절한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와 북구 유럽 국가, 그리고 출산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독일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자녀 양육 환경에 대해 정리한다. 외국의 자녀 양육 환경에 대한 분석은 출산율이 초저출산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가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 자녀 양육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제1절 유럽 국가의 출산율 동향

1. 유럽 국가의 가족 구조와 출산율 추이²⁾

출산율은 한 국가의 경제 및 사회적 체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 출산율 하락이 우리나라 보다 먼저 진행된 유럽 국가에서 저출산 문제는 30년 이상 동안 학계와 정치계에서 논쟁의 대상이었다. 1990년대 이후부터 더욱 가속화된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2) 본 절의 내용은 “The social meaning of children and fertility change (Ellingsaeter.et.al. 2013)”에서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유럽 국가 중 어느 한 나라도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인 2.0 이상을 넘는 국가는 없었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인구 고령화에 따라 복지 국가가 짊어져야 하는 부담의 증가는 “출산율의 위기”라는 개념을 등장시켰다. 출산율 하락 문제에 직면하여 출산율 하락 원인을 설명하려는 수많은 연구가 지금까지 수행되었으며 최근의 연구 동향은 다음의 두가지 과제로 요약된다. 첫째, 국가 간의 출산율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초산 연령, 혼외 출산율, 무자녀 비율 등 각 국가마다 가족 형성 및 가족 유형 변화는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에서의 국가 간 차이는 점점 커지고 있다. 둘째, 비록 미약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과거에 예상치 못했던 출산율의 반등이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출산율 반등에 내재되어 있는 가정은 “인간 개발 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수준이 경제적 및 사회적 분야에서 모두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 출산율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유럽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출산율 연구들은 몇몇 국가가 보이고 있는 출산율 반등 현상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한 사회의 출산율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개인과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출산에 대한 결정이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건은 개인의 재생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사회 구조와 문화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개인이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와 개인들을 둘러싼 경제적 및 사회적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자녀 출산 및 양육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최근의 연구 동향은 “왜 사람들이 자녀를 갖는가” 보다는 “자녀가 부모들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로 연구 주제가 변화하고 있다. 개인들이 “합리적인” 출산 결정을 함에 있

어 사회적인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에 합계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준인 1.5명 이하 혹은 초저출산 수준인 1.3명 이하를 경험하였다. 200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39개의 유럽 국가 중에서 16개 국가가 출산율이 1.3명 이하였으며, 25개 국가가 출산율이 1.5명 이하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유럽 국가가 “저출산의 덫”에 걸렸다고 지적한 학자도 있었다. 유럽 국가의 출산율 동향을 둘러싸고 최근 들어 일어나고 있는 논쟁은 유럽 선진 국가 중에서 “왜 어떤 국가는 인구 대체 수준에 미치는 수준까지 출산율이 올라갔느냐”에 대한 것이다. 출산율이 높은 대표적인 국가는 프랑스 등 일부 서부 유럽 국가와 북구 유럽 국가로서 출산 수준은 1.7~2.0명에 이르고 있다. 낮은 출산 수준을 보이는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과 이탈리아로 출산 수준은 1.2~1.5명으로 낮지만 이들 국가에서도 출산율 반등의 기미는 감지되고 있다.

가족 유형의 변화만을 가지고 보았을 때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은 유사한 경향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가족 유형의 변화에서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경향은 초산 연령의 증가이다, 초혼 연령의 증가, 결혼율 감소, 동거율 증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동거 관계, 혼외 출산의 증가 역시 유럽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다양한 가족 및 혼인 행태의 변화는 교육 수준 및 노동 시장 참여 증가에 따라 사회에서 여성들이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된 것에 기인한 바가 크다. 여성의 교육 수준과 노동 시장 참여 증가는 직장 생활과 자녀 양육 간의 갈등을 초래하여 출산율 감소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여성 교육 수준과 노동 시장 참여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28~30세 여성의 자녀 출산 증가 현상은 국가마다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 국가에서 여성의 초

산 연령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와 스웨덴인데 반해 이들 국가에서 여성의 완결 출산율 수준은 거의 인구 대체율에 가까운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북구 유럽 국가에서 낮은 출산율은 적은 수의 자녀를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다. 낮은 연령에 첫 자녀를 출산한 여성들도 원하는 수의 자녀를 낳고 있다.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었지만, 북구 유럽 국가의 경우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낮은 나이에 자녀를 출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구 유럽 국가가 전체적으로 출산율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새로운 유형의 가족의 등장과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는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합컨대, 과거에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간주되었던 요인들은 최근 들어 오히려 출산율을 인구 대체 수준에 가깝게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유럽 국가들에게서 보이는 유사한 가족 유형 변화는 각 국가가 처해있는 서로 다른 맥락에 따라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유럽 국가들 간의 출산율 격차로 귀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북구 유럽 국가와 이탈리아에서 모두 전체 출생아 중 30세 이상 여성이 출산한 출생아의 비중이 40%를 넘고 있으나 완결 출산율은 두 국가에서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 간의 출산율 격차는 두 국가가 서로 다른 출산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의 유형이 유럽 국가 간에 수렴되는 형태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여전히 국가 간에 차이는 보이고 있다. 이는 국가 간의 서로 다른 전통과 종교적인 영향이 동거, 이혼, 비혼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 등에 대한 관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에 가까운 북구 유럽 국가와 프랑스는 남부 유럽 국가에 비해 혼인 관계에 있어 보다 자유롭고 세속적인 태도가 널리 퍼져 있다.

인간의 재생산과 관련된 출산은 개인적인 영역과 공공의 영역이 상당히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는 부문이다. 출산은 상당히 사적인 영역이면서도 공공의 관심도 큰 영역이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재생산은 “극도로 친밀한 인간 행위”의 결과이다. 하지만 동시에 자녀를 낳는 결정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이는 국가, 사회적 집단, 시대별로 다양한 수준의 출산율로 귀결되고 있다. 몇 명의 자녀를 낳을 것인가의 문제는 이제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국가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다. 실로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많은 사적인 부문이 공적인 부문과 서로 얽히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인간의 재생산과 관련된 영역으로서 자녀 출산이라는 가장 사적인 결정이 공적인 체계와 관련되어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의 관건은 자녀 출산에 대한 사적인 이해관계가 공적인 이해관계와 반드시 일치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자녀에 대한 사회적 의미”는 “자녀의 가치”의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녀의 가치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인구 학자들은 왜 가난한 국가에서 많은 수의 자녀가 탄생하고 선진 국가에서 적은 수의 자녀가 탄생하는지에 주목하였다. 가난하고 출산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많은 수의 자녀를 낳고 있었다. 반면에 자녀수가 적은 선진 국가에서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 감성적인 혜택과 감성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존재로서 인식하고 있었다. 최근의 연구들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어떠한 유형의 혜택을 기대하는 경우 더 많은 자녀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2. 서구 사회에서 자녀가 갖는 의미³⁾

Fawcett (1988, Ellingsaeter.et.al. 2013에서 재인용)은 현대 서구 사회에서 부모가 되는 것은 금전적인 비용, 여가 시간의 감소, 유연성과 이동성의 감소, 책임과 근심의 증가를 야기하며 특히 여성의 경우 직장 생활을 위한 시간의 감소, 임신, 출산 그리고 모유 수유를 위한 육체적인 비용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부모가 되는 것에 따르는 혜택은 부모가 됨으로써 성인 혹은 “정상적”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고, 자녀 양육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얻게 되며, 사랑할 수 있는 영원한 대상을 얻게 되고, 세대와 가족 구성원들 간을 연결할 수 있는 매개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ck과 Beck-Gernsheim (2002, Ellingsaeter.et.al.2013에서 재인용)은 부모가 되는 것은 개인에게 상당한 “사회적인 가치”를 가져다주는데 그 이유는 삶의 유연성과 직업과 자기 충족적 활동들로 부터의 피난처, 즉 개인 중심적인 삶으로부터 피난처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자녀가 주는 사회적 가치로 인하여 서구 사회에서는 부모가 되는 것이 인생의 과정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단계라고 여겨지고 있다.

자녀를 갖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개인마다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의미와 경험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적 맥락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이 본인 자신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강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 개인은 교육, 직업 활동, 여가 시간을 통하여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자아를 실현하고 있다. 개인이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서구식 사고방식에서 볼 때 자녀를 갖는 결정은 상당한 긴장과 불안을 동반할 수 있다. 자녀를 갖게 됨

3) Bergnéhr와 Bernhardt (2013) "The non-modern child? Ambivalence about parenthood among young adults," (Ellingsaeter.et.al. 2013)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신의 선호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Bäck-Wiklund (1997, Ellingsaeter.et.al. 2013에서 재인용)은 개인적인 자아 추구하고 독립성이 매우 가치 있게 여겨지는 현대 사회에서 자녀는 의존과 보호의 표시로서 “현대적이지 못한” 주체라고 하였다. 그러나 자녀는 의존성을 요구하고 부모들의 자유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잠재적인 특성이 자녀에 대한 양대 감정을 만들어 내고 있다. 자녀에 대한 양대 감정은 개인에게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 단위에서도 존재하고 있다. 자녀들은 미래 사회에 있어서 절대 불가결한 존재이기도 하면서 매우 "제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Bergnehr와 Bernhardt(2013)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이러한 양대 감정은 스웨덴의 성인에게서도 역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스웨덴의 무자녀 성인들은 부모가 됨으로써 개인적인 자유를 덜 누리게 되기는 하지만 더 의미 있는 삶을 가지게 된다고 응답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에서도 자녀를 가짐으로써 갖게 되는 제약은 자신들의 취미와 욕구를 위해서 쓸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고 교육적인 열망을 충족하기가 어렵고 덜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자녀를 갖게 됨에 따르는 혜택은 자녀를 키움으로써 새로운 경험을 갖게 되고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가지게 되고 자녀가 세대와 개인을 연결시켜주는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스웨덴은 개인화가 이루어진 서구 사회 중에서도 가장 개인주의가 발달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 개인화가 이루어진 스웨덴은 이미 20세기에 발달한 개별 조세체계, 질병 보험, 부모 보험, 실업 보험 등 개인의 소득 수준과 연계된 복지 정책을 통하여 개인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스웨덴에서 개인주의는 정치적 및 경제적 체제의 결과로

서 제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들은 여전히 친밀함과 가족, 그룹, 지역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중요시 하고 있다.

아마도 스웨덴 인들은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자녀를 상대적으로 매우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부모가 됨으로써 서구 사회 속에서의 개인적인 삶을 소속적이고 의존적이며 가족과 함께 하는 것으로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Bergnehr와 Bernhardt(2013)가 수행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스웨덴 인들은 부모가 되는 시점을 늦추고는 있지만, 부모가 되는 것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단계이며 자녀가 가족을 연계시키고 함께 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다. 가족 유형과 주관적인 만족도 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도 자녀를 갖는 것이 스웨덴 사람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시키는데 유효한 효과를 갖는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유럽의 가족 정책과 출산율⁴⁾

Folbre(1994, Ellingsaeter.et.al. 2013에서 재인용)는 자녀를 출산하는 개인적인 동기에 대한 이론에서 벗어나 자녀를 “공공재”라고 개념화하였다. 그는 자녀 출산을 전적으로 개인적인 문제라고 간주하는 사회에서 자녀 양육을 위한 공적인 지원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훨씬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으며, 자녀에 대한 공공의 투자와 자녀 양육에 대한 사적인 비용 간의 간극이 각 국가마다 출산율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았다. Esping-Andersen(2009,

4) 본 절의 내용은 Ellingsaeter.et.al.(2013) “The social meaning of children embedded in institutions and personal relations” 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Ellingsaeter.et.al. 2013에서 재인용)는 “아동에 대한 투자는 개인의 삶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매우 큰 보상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주장 하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공적인 지원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아동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근거에는 비용효과성의 개념이 내재되어 있어 아동에 대한 투자가 미래에 보상으로 다가온다고 보고 있다.

출산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은 자녀 출산에 대한 의사 결정을 둘러싼 환경을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제도적인 사회적 환경 내에서 개인적인 합리성에 근거하여 출산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서로 다른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출산 결정의 복잡한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출산을 둘러싼 사회적인 환경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으로 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체계(institutions)로서 주로 가족 정책, 노동 시장 조건, 문화적 규범을 거론하고 있다. 출산과 관련한 체계 중에서도 특히 많은 논쟁이 이루어져 왔던 부분이 가족 정책이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였다. 가족 정책을 국가 간에 비교한 선행 연구들은 서로 다른 복지 국가 체계를 가지고 있는 유럽 국가 내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가족 정책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가족, 국가, 시장이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근로와 돌봄 사이의 분담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서로 다른 가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사항은 자녀를 가진 여성들이 꾸준히 임금 근로에 참여해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는 출산율과 출산율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와 출산율 수준 간의 관계가 음의 상관관계에서 양의 상관관계로 변화 하였다는 것이 대표적인 지적이다. 혁신적인 가족 정책의 개혁 특히 일과 가

정생활 양립 정책을 통하여 가족의 변화에 대응해 온 국가와 가족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왔던 국가 간의 출산율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양상은 사회적인 변화에 맞추어 가족 정책 및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한 국가들은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에 정책 및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여전히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안정적인 여성 고용률이 자녀 출산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되었다는 사실도 국가 비교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유럽 국가가 보여 주는 다양한 출산율 수준은 일과 자녀 출산 간의 갈등 양상이 국가마다 다양하며 이러한 차이는 각 국가의 역사적, 제도적, 정치적인 환경과 맥락에 기인하고 있다.

가족 정책과 자녀 양육 환경의 국가 간 차이는 출산율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 사이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출산 친화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 문제에 대해 국가가 가장 효율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프랑스는 20세기 초반부터 출산을 장려하는 국가였으며 최근 몇 십년 전부터 여성 노동 시장 참여 증가를 위하여 가족 정책을 통해 일과 가족생활 간의 갈등을 감소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프랑스 가족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유아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치원(école maternelle) 시스템이다. 프랑스에서 유치원은 백년보다 훨씬 이전에 설립되었으며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가 증가한 1970년대 이후에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프랑스에서 유치원은 아동이 국가로부터 보호, 지지 및 규제를 받아야 하는 “공공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 주는 시스템이다. 프랑스의 가족 정책은 모성과 자녀 양육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규범을 만드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프랑스는 북구 유럽 국가와 달리 아버지들은 육아와 가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희박하다. 양성 평등 원칙에 따라 가사와 육아 활동에 참여하는 남성은 극히 소수이다. 여성들은 남성 배우자 대신 모성 역할을 지원해 주는 보육 서비스와 복지 정책에 자녀 돌봄을 의존하고 있다.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이 모두 활발한 아버지 역할을 지지해 주는 북구 유럽 국가와 달리 프랑스에서는 여성이 자녀 양육에 대한 주요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복지 국가가 여성의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원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북구 유럽 국가의 가족 정책은 프랑스와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지만 차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북구 유럽 국가의 가족 정책은 1970년대 후반부터 일하는 여성과 부모를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해 왔다. 프랑스와 차별적인 특성은 기간이 긴 육아 휴직을 제공하고 영아를 위한 공공 보육 시설 서비스가 발달했다는 점이다. 점차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북구 유럽의 가족 정책은 양성 규범의 변화 특히 혼외 출생 자녀 및 동거의 증가 등 변화하는 가족 형성 양상을 반영하기에 이르렀다. 프랑스의 가족 정책과 중요한 또 다른 차이점은 특히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 가족 정책의 중점이 자녀를 가진 여성들의 고용을 강조하는 것에서 아버지들의 육아 참여를 강조하는 것으로 옮겨졌다는 점이다. 아버지 육아 참여를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메카니즘으로 육아 휴직 기간의 일정 부분을 아버지들에게 할당하는 제도를 들 수 있다.

프랑스와 북구 유럽 국가 가족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아동이 공공재로 간주되고 있으며 아동에게 높은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톨릭의 전통적인 사상에 기반하여 모성 및 가족 가치를 중시하고 있는 프랑스 가족 정책은 정책의 대상을 여성에게 두면서 출산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가족 내에서의 양성 평등을 제고

하려는 것은 덜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사회민주주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북구 유럽 국가들은 가족 내에서의 양성 평등을 포함한 성 평등이 국가의 주요한 목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프랑스는 아직도 가정 내에서 성 역할 분리 관행이 잔존하고 있는데 반해 북구 유럽 국가는 아버지들이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프랑스 여성들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아버지보다는 유치원 등 국가 정책에 의존하고 있으며, 북구 여성들은 직장과 자녀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 정책에 의존하고 있다. 정책이 추구하는 바는 다르지만 실제로 양성 평등을 지향하고 있는 정책은 출산 장려 정책이 가지고 있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와 북구 유럽 국가는 모두 적절한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양성 평등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 여성들의 높은 경제 활동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및 북구 유럽 국가와 대조적으로 유럽 국가에서 일과 가정 생활 양립 지원 정책이 미약하고 출산율이 낮은 국가로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국가는 독일과 이탈리아이다. 최근 독일은 북구 유럽 국가의 정책을 따라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지원하고 2개월의 아버지 휴가 제도를 도입하여 양성 평등을 지지하는 가족 정책의 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현재 독일에서도 출산율을 제고하는 것이 가족 정책이 지향하는 분명한 목적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가족 정책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보육 서비스는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와 다른 양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특히 미취학 아동의 보육은 많은 부분 국가가 아닌 가족의 책임으로 간주되고 있다. 과거 통일 이전의 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 간의 영아 보육 시설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는 여전히 남아 있다. 동독 지역은 일하는 여성과 공공 보육 시설에 대한 전통적인 사회주의적 관념이 남아 있는 반면에, 서독 지역은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증시되고 있다. 통일된 독일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여성의 시간제 근로로서 간극을 메우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하

지만 독일에서의 시간제 근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를 포함하여 낮은 수준의 임금 수준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를 낳을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 출산율이 낮은 독일은 현재 “유연하지 못한” 보육 서비스 제도와 “매우 유연한” 노동 시장 사이에서 고민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연한 노동 시장은 비정규적인 노동 시간, 일시 고용, 직업 불안정성 등 불안정한 근로 활동으로 이어져 부모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 불안정성과 해고에 대한 위협은 출산 결정을 내리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연한 근로 형태와 함께 충분하지 못한 보육 서비스는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두 가지 자원인 돌봄 노동 시간과 돈을 모두 제약할 수 있다.

독일에서 자녀를 경제적인 위협으로 간주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중산층 여성들이다. 독일 여성들은 일년 동안의 육아 휴직을 갖지만 이러한 긴 휴직을 고용 안정과 경력을 쌓는데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독일 여성들은 부모가 되는 시점을 “안정적인 직장” 뿐만 아니라 육아 휴직 후에 돌아올 수 있는 “안정적인 직위”를 가질 때 까지 늦추고 있다.

반면에 노르웨이 여성들은 노동자이면서 낮은 소득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정책이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경제적인 안정성을 보장하고 육아 휴직의 일년 기간 동안 집안에서 머물면서 자녀를 적절하게 보살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는 맞벌이 중심의 경제 체제가 자녀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적 환경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부부의 유연한 노동 시간은 여성들로 일과 가정 생활 양립을 가능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발견되는 양상은 여성들이 남성 배우자의 유연한 노동 시간을 금전적으로 보상할 만큼 일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독일에서 남성의 육아 참여는 남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략으로 사용되

고 있기는 하지만 남성의 생계 부양자로서의 역할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경직적인 근로 환경 속에서 독일 남성들의 육아 참여는 남성들의 고용 유지에도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탈리아는 급속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의 부족이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녀 양육을 가정에 의존하는 이탈리아의 전통은 가족 공동체에 대한 자녀 양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조부모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조부모 이외의 다른 자녀 보육 대안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탈리아에서는 여성 노동 시장 참여 증가 등 공공 영역에서 양성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여성의 자녀 양육 등 민간 영역에서는 양성 불평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불일치의 결과로서 자녀 출산을 미루거나 거부함으로써 출산율이 낮은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다. 이탈리아에서 많은 부부들은 적어도 부부 중의 한 명이 안정적인 수입을 갖거나 적당한 주거지를 가질 때 까지 자녀 출산을 미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인 독립성을 갖는데 따르는 어려움과 성인 자녀들이 부모의 집에서 오랜 기간 머무르는 관행은 자녀를 낳는 시기를 미루게 하고 있다.

출산율이 낮은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보여주는 공통적인 특징은 노동 시장과 공공 정책의 구조적인 특성이 모두 자녀를 낳는 가능성에 제약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과 이탈리아와 다르게 북구 유럽 국가에서 취업과 이를 지원하는 일과 가족 생활 양립 정책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노동 시장과 가족 정책에 대한 높은 신뢰가 국민들 사이에서 이루어져 있다. 노르웨이에서 부모됨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높은 안정 인식이었다. 경제적인 안정성은 부모로서 높은 책임 의식을 갖게 하여 자녀

에 대한 필요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었다.

독일과 이탈리아가 보여주는 또 다른 공통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여전히 전통적인 가족 구조와 전통적인 성 역할 고정 관념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탈리아에서는 결혼의 목적 중의 하나가 자녀를 낳는 것이라는 관념이 강하게 있다. 결혼은 가족과 연계되어 있으며 또한 가족은 자녀와 연계되어 있다. 혼외 출산이 구 동독 지역에서는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에 구 서독 지역에서는 결혼과 핵가족 개념이 아직도 남아 있다.

다음 절에서는 유럽 국가 중에서 적정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와 북구 유럽 국가 그리고 낮은 출산율 수준을 보이고 있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가족 정책 및 자녀 양육을 둘러싼 환경적인 요인을 보다 자세하게 고찰하고 각 국가의 출산율 수준에 갖는 함의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2절 프랑스와 북구 유럽 국가 사례

1. 프랑스⁵⁾

가. 전통적인 가족주의 규범

프랑스는 한 명의 여성이 평균적으로 두 명의 자녀를 낳는 인구 대체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는 대표적인 유럽 국가 중의 하나이다. 프랑스가 적정한 출산율을 보이는 것은 프랑스 국민 개인들 뿐 만아니라 사회 전체가 자녀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출산율 감소에 대한 우려는 정치인들과 인구학자들 사이에서 백년 이상 전부터 공

5) Letablier (2013) "The politics of parenting: the meaning of children, the meaning of work," (Ellingsaeter.et.al. 2013)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유해 오고 있는 사회적 문제였다. 196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여성들의 노동 시장 참여는 그 시기부터 이미 감소하고 있던 출산율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여성들의 노동 시장 참여 증가는 20세기 후반부터 유럽 국가에서 나타난 변화 중의 하나로서 여성들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식에서 “조용히 일어난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 취업은 모성의 역할과 대립하면서 여성들이 자기 정체감을 갖는데 있어 자녀의 역할을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는 높은 출산율 수준을 보일 뿐만 아니라 약 80%에 달하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을 보이고 있어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하여 모성과 여성 취업의 갈등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렇게 프랑스가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모두 높은 이유는 부모 역할을 지원하는 정책이 일과 자녀 양육 사이의 갈등을 완화해 주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정치인들과 가족 주의자들에 의해서 강조되고 있는 출산에 대한 규범이 프랑스 국민들로 하여금 자녀를 낳도록 압박을 가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프랑스의 가족 정책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성과 자녀 출산에 대한 규범을 형성하고 있다. 과거 다분히 출산 지향적인 성격을 보였던 가족 정책은 현대 사회로 오면서 명시적으로 출산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도 개인에게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의 프랑스의 적절한 출산율 수준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을 제공하는 정책이 아닌 부모 역할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에 기인된 것으로 여겨진다. 프랑스의 가족 정책은 여성들이 임금 노동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데 강조하고 있으며, 남성의 육아 참여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구 유럽과 같이 남성들이 자녀 양육 역할에 참여 하도록 하는 정책에는 미약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적정한 출산율 수준을 보이는 프랑스에서도 자녀가 갖는 의미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이미 변화하였다. 프랑스에서 아동은 부모와 국가 모두에 있어서 점점 더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부모에게 자녀가 갖는 경제적인 의미도 변화되어 자녀는 더 이상 가족의 소득에 기여하지 않으며 부모가 나이 들었을 때 생활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지도 않다. 하지만 사회 전체로 보았을 때 자녀는 지식 기반 사회의 기초이자 미래 국가 사회보장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존재로서의 가치가 부여되고 있다. 유럽 의회가 강조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투자의 중요성은 이러한 자녀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가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모두 높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면에는 프랑스만이 가지고 있는 세가지 “역설”이 내재하고 있다. 첫째, 여성들이 직업 활동에 대해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업 활동에 대한 헌신이 자녀를 낳은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둘째,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역할을 부모 간에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지 않고 주로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남성들이 가사 및 육아에 대한 참여도가 낮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맞벌이 부부는 이제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지만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부 간의 공평한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 내의 양성 불평등한 상황이 출산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키는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프랑스는 적정한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으나 여성들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크게 헌신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프랑스 여성들의 모유 수유 비율은 북구 유럽 국가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다.

프랑스가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이러한 역설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오랜 역사 동안 수행해 온 가족 정책이 인구학적 이슈에 적절하게 대응해 왔으며, 공화국의 이념이 국가와 가족 간의 관계를 형성해 주고 가족 형성과 자녀 양육에 대한 개념화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실로 프랑스의 가족 정책과 공화국의 이념은 오랜 기간에 걸쳐 여성들이 자녀를 낳도록 긍정적인 “사회적인 압박”을 가하는데 기여해 왔던 것이다.

프랑스는 20세기 초반부터 모성 특히 많은 수의 자녀를 낳은 여성들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지원과 혜택을 “받을만하다”는 개념을 형성해 왔으며, 전체 사회가 모성에 대해 상당한 칭송을 해 왔다. 백년 전부터 이러한 모성에 대한 높은 지지는 인구학적 이슈 특히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에 대해 대응적인 기능을 하게 되었다. 인구학적 위기에 맞서서 프랑스 정부는 출산 친화적 그리고 가족 지지적인 로비 활동을 통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노력들이 프랑스 내의 양성의 분업적인 기능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여성들이 출산을 제고하기 위한 유인 정책의 대상이 되었으며 여성들이 갖는 재생산 역할이 주요한 정책적인 관심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프랑스가 기념하는 “어머니의 날”은 여성들이 재생산 기능을 통하여 인구학적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것에 대해 사회전체가 감사의 뜻을 전하는 날이기도 한 반면에 양성 분업적인 기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기도 하다. 가족이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데올로기인 프랑스 “가족 주의”의 근원을 설명함에 있어 Lenoir(2003, Ellingsaeter.et.al. 2013에서 재인용)은 프랑스가 역사적으로 강조해오고 있는 가족주의가 모성에 대한 칭송뿐만 아니라 가족의 구성과 수에 대한 규범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프랑스에서 다자녀 가족은 존경과 동정을 동시에 받을 만한 존재이며 반면에서 소자녀 가족은 개인주의 심지어 이기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과 가족이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 단위로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이 이러한 개념 위에 세워져 있다. 현대에 와서 모성과 가족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정신이 희석된 것은 사실이지만 가족주의적인 사상은 가족을 지원함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사회에 대한 의무이며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서는 일종의 “제재”를 가하는데 기여해 왔다. 프랑스의 가톨릭 사상에 기반한 친가족주의적인 운동은 프랑스의 가족 정책이 발달하고 모성에 대해 전체 사회가 중요성을 부여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족주의 전통은 프랑스 가족 정책이 인구학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국가적인 정체성으로 자리 잡는데 기여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프랑스 내의 친가족적인 분위기는 출산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가치를 갖도록 사회적인 압박을 가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모성을 강조하는 이념은 점차 평등을 강조하는 이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나. 현대 사회의 양성 평등 규범

1960년대와 1970년대 일어난 여성들의 독립과 역량 강화에 대한 요구는 가족주의 전통에 기반한 프랑스의 가족 정책을 갈등적이고도 압박적인 상황에 놓이게 하였다. 수십년 동안에 걸쳐 세워진 가족 정책의 기초가 여성 운동과 개인적인 삶의 변화에 의해 약화될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새로운 법제도는 여성들 자신이 출산을 조절할 수 있게 하였고, 남성 생계부양자의 지배적인 위치에서 여성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들의 삶에 있어 문화적인 혁명을 일으켰으며 인구학적인 경향에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결혼율과 출산율이 낮아지고 동거와 혼외 출산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 제도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보다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여성들의 가족과 사회내에서의 위치가 변화하게 되었다. 다양한 삶의 양상이 등장함에 따라 현존하는 규범이 깨트려지게 되었다. 현대적인 피임 도구의 등장과 1970년대 중반에 이루어진 낙태의 합법화는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에 대한 통제권을 갖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모성에 대한 역할도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었다. 여성들은 이제 몇 명의 자녀를 어느 시점에 낳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자녀에 대한 사회적 의미도 변화하게 되어 “상당히 희망하는” 자녀에서 “원하지 않는” 자녀의 개념도 등장하게 되었다. 피임 도구의 발달은 여성의 남성과의 관계와 성 관계에서도 변화를 가져와 남성과의 관계에서 여성들은 보다 자유롭게 되었다.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는 “가족의 위기” 혹은 “가족에 대한 의심”을 상태로 이어지게 되었다. 전통적인 가족은 결혼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죽음을 통해서만 부부가 헤어질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전통적인 가족 관계가 여성들이 생계 부양자인 남성에게 덜 의존하게 되면서 부터 흔들리게 되었다. 현대 사회에 와서 결혼을 통해 함께 사는 커플이 감소하게 되었으며 이혼과 별거가 과거 보다 훨씬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한부모, 재결합 가족, 동성 가족 등 새로운 유형의 가족이 등장하게 되었다. 가족의 유형과 가족 생활의 변화는 2차 인구학적 변화 혹은 후기 산업 사회 가치의 등장으로 대변되고 있으며 개인주의, 여성의 평등, 자유, 자주권에 대한 열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가치의 등장과 변화된 가족 삶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출산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하락을 보이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다. 여성들에게 근로와 자녀 출산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두가지 대립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의 대립은 가족 내에서의 노동의 양성 분업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프랑스에서 보다 많은 여성들이 경

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가사와 육아에 대한 참여 정도는 매우 낮다. 프랑스 가족 정책의 특징은 남성들이 가사와 육아에 참여하는 정도가 낮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이러한 양성 분업적인 특징을 국가가 대신 보상함으로써 부모 역할을 지지하고 출산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제 프랑스에서도 맞벌이 부부가 하나의 가족 규범으로 자리 잡았으며 많은 수의 여성들이 자녀 출산 후에 직장에 복귀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 25~49세 부부의 절반 이상이 모두 종일제에 근로하고 있으며 25%가 남성 종일제 홀벌이, 약 16%가 남성 종일제 근로와 여성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다. 경제적인 독립성은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 조건임과 동시에 혼인 관계가 종결되었을 때 경제적인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출산전후 휴가 이후 즉 자녀가 출생한지 4개월이 되는 시점에 직장으로 복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매우 소수의 부모들이 육아 휴직을 이용하는데 이는 육아 휴직 기간이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로 매우 길고 정액제의 매우 낮은 액수의 휴직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유급 노동은 교육 수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육 수준이 낮은 여성들은 모성을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능으로서 인식하고 직업에 덜 헌신적이며 유급 노동을 생활비를 버는 수단으로만 간주한다. 반면에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은 직업 활동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며 이러한 직업에 대한 열망이 자녀 출산에 제약을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교육 수준이 낮은 여성들은 엄마의 역할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반면 중산층 이상의 여성들은 단지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 본인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자녀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은 최근 수십년 동안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경제 활동 참

여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자녀가 한 명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76%로서 이는 남성의 90%보다 낮은 수준이다. 자녀가 두 명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79%이며 셋 이상의 자녀를 가진 여성은 약 70%에 해당한다. 여성들이 자녀 양육을 위해 노동 시간을 줄이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프랑스 가족 정책에 있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프랑스는 여성들을 자녀 출산 이후에 유급 노동 활동으로부터 부분적 혹은 일시적으로 탈퇴시켜 엄격한 양성 분업적인 노동 규범에 따라 여성을 가정 내에서 머무르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당시의 정책은 남성이 생계 부양자이며 여성이 가정을 관리하고 자녀를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을 강조하였다. 1938년도에 마련된 “집에 있는 여성을 위한 수당”은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정책으로서 급여 액수는 자녀 1~2명을 가진 가족에 대한 가족 수당 액수보다 높고 자녀가 세 명 있는 가족에 대한 가족 수당 액수에 가까운 급여를 지급하였다. 동 수당은 1970년대 후반에 “홀벌이 수당”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홀벌이 수당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프랑스 가족 정책의 대변혁을 보여 주고 있다. 동 수당이 도입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족 수당은 재분배 기능을 크게 강조하지 않았다. 홀벌이 수당은 프랑스 가족 정책의 재분배 기능을 자녀가 많은 가정과 자녀가 적은 가정 사이의 수평적인 재분배에서 소득이 높은 가정과 소득이 낮은 가정 간의 수직적인 재분배로 변화시켰다. 가족주의자들이 가족 정책이 복지 정책화 되는 것을 반대하는 가운데 가족 정책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 홀벌이 수당 도입과 함께 가족 정책은 이제 여성의 역할을 가족 내 돌봄 노동자에서 노동 시장에서의 근로자로서 간주하게 되었다. 여성을 근로자로 보는 시각은

이후에 보육 시설과 유아 조기 학교 등 일하는 여성과 맞벌이 부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더욱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유아 조기 교육 체계가 발달되는 시점과 동시에 보육 서비스와 보육 시설도 가족 정책에 의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가정 보호 수당(육아 휴직 급여)”이 자녀 양육을 위해 직장에서 가정으로 돌아 온 여성들의 임금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와 동시에 “선택의 자유”라는 이름 하에 자녀 양육을 위해 개인 보육사를 고용하는 부모들의 보육 비용을 보전해 주는 수당이 도입되었다. “가정 보호 수당”은 여성 운동가들과 우파 및 가족 주의자들 간의 상당한 논쟁을 가져왔다. 여성주의자들과 노동 운동가들은 가정 보호 수당이 여성으로 하여금 가정으로 회귀하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상당한 비판을 가한 반면에, 가족주의자들과 우파들은 동 수당이 출산율과 가족의 전통적인 개념을 보존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가정 보호 수당”에 대한 개념은 아직도 프랑스에서 모호한 상황이다. 정부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동 수당은 여성들의 자녀 양육 의무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하는 여성들의 임금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고 간주되기도 하고 있다.

다양한 논쟁을 통해 조정 과정을 거친 프랑스 가족 정책은 아직도 정책 토론의 장에서 “선택의 자유”라는 수사어로서 그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들에게 일과 자녀 양육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남성들이 보다 많이 육아와 가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막는 역기능을 하고 있다. 아버지의 육아 및 가사 참여 독려가 정책 토론의 장에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한 바는 없다. 2002년부터 11일 간의 아버지 휴가 정책이 도입되기는 하였지만 과거 수십년 동안 일어난 정책적 기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부모 역할은 여전히 모성의 역할로 간주되고 있다. 실로 프랑스에서 양성 평등 의식은 가족 정

책의 발달을 가져 온 추진책으로서의 기능은 미약하였으며 특히 우파 정치가들은 부부간의 평등한 생활 보다는 자유로운 선택을 더 강조하고 있다. 독일을 포함한 북구 유럽 국가에서 도입한 육아 휴직 할당제가 프랑스에서는 아직 도입된 바 없다. 프랑스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분담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가 아닌, 국가와 여성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프랑스의 젠더 레짐이 “수정된” 남성 생계 부양자 모형에 여전히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다.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기능

① 가족 정책의 역사

프랑스의 가족 정책은 국가 사회 보장 체계의 독립적인 체계로서 가족 정책 기구, 정책 수행자 및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체계 내에서 아동은 실업, 장애, 빈곤, 노령과 함께 사회적인 위험 중의 하나로서 사회보장법에 명시하고 있다. 전체 사회와 국가는 아동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사회의 통합이라는 이름하에 지원하고 있으며, 가족에 대한 지원을 공공의 역할로서 간주하고 있다.

교회와 국가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20세기에 들어와서 두 주체가 분리됨에 따라 국가가 아동을 포함한 가족을 사회 체계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로서 보호하는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 국가의 보호적인 기능은 20세기 후반에 오면서 가족의 유형과 가족 생활이 변화함에 따라 약화되기는 하였지만 가족 정책은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 양육과 관련한 위험을 보상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랑스 가족 정책은 가족을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체계로서 개인 보다 우선시되는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

로 간주하고 있다. 가족을 지원함에 있어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는 가족과 전체 사회의 이해 관계를 규제할 뿐만 아니라, 아동 교육과 웰빙에 대한 책임 또한 가지고 있다. 프랑스에서 아동은 국가의 관심과 지지를 받아야 하는 “공공의 이슈”로서 간주되고 있다. 자녀 출산과 출산율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자녀 양육과 조기 교육에 대한 오랜 전통이 전체 사회에 대해 자녀가 가지고 있는 의미로서 내재되어 있다. 국가는 이러한 자녀 출산과 자녀 양육에 있어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출산 장려적인 전통은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을 경감시킴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전통에서는 자녀의 조기교육과 양육을 국가와 부모 간에 분담하려는 목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전통적인 국가 기능을 통하여 프랑스의 가족 정책은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부모들의 열망을 막는 장애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② 아동 보육 및 조기 교육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논의함에 있어 프랑스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는 “아동이 누구에게 속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동 질문에 응답하기 위하여 Segalen(2010, Ellingsaeter.et.al. 2013에서 재인용)은 프랑스에서 국가와 가족이 갖는 특별한 관계를 분석하였다.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동은 농촌 사회에서 여러 가족들 간에 공유되는 개념이었다. 아동은 서로 다른 가족 사이에서 양육되기도 하고, 열 살 정도 나이에 도달하게 되면 가족 내의 농사일을 위해 서로 빌려 주기도 하고, 자녀가 없는 가족에게 양도되기도 하였다. 산업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가족은 부모와 자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혈연으로 맺어진 단일한 가족은 규모가 커지게 되었고 노동자 계층의 아동은

공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였다. 동 시기에 아동은 특히 가난한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으며, 가족을 위한 생계 부양 및 조부모를 돌보는데 유용한 자원이었다. 아동이 서로 다른 가족들 간에 더 이상 공유되지 않게 되자 자녀 양육이 부담스러운 가족들은 아동을 유기하기도 하였으며 영아 살인을 막기 위한 단체가 19세기에 설립되기도 하였다. 이후 피임 도구의 발달에 따라 아동이 점차 프랑스 사회에서 희귀한 존재가 됨에 따라 아동은 이제 국가와 가족 모두에게서 투자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가 되기에 이르렀다. 출산율 저하에 따라 아동의 수가 감소하게 되자 아동은 가치를 헤아릴 수 없이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아동은 이제 국가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자원으로 간주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가 감소하는 인구 수를 회복하려는 시점부터 의학의 발전은 영아 사망을 줄이고 모성을 보호하며, 여성들이 재생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건 정책에 깊이 관여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개인 보육사에 대한 규제, 아동 보육 시설, 아동 조기 발달 지원 체계 등 아동을 보호하고 규제하는 시스템이 일찍부터 국가에 의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이후의 아동 심리학의 발달은 아동 웰빙에 대한 규범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아동은 이제 프랑스에서 “공공재”로서 국가로부터 지지와 규제 그리고 보호를 받는 존재로서 개념화 되었다. 19세기에 엄마가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 빈곤한 2~7세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빈민 아동 보호시설은 유치원(ecole maternelles)이라는 조기 교육 시스템을 1811년에 설립함에 따라 그 기능이 대체되었고 조기 아동 교육에 대한 규범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에서 유치원은 의무 교육은 아니지만 부모에게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있고 1970년대 이후 보다 큰 발전이 이루어져서 점점 더 많은 취업 여성들이 자녀들을 맡기게 되었다. 아동 보호에 대해 과거 교회가 가지고 있던 역할을 국가가 위임하게 됨에 따라 아동을 지원함

에 있어 국가의 역할은 점점 더 강화되기에 이르렀다. 3세부터 의무 교육 체계에 들어가지 전까지 아동에 대한 조기 교육에 초점을 둬으로써 동일한 기회의 보장, 집합적인 교육, 시민 가치의 증진이라는 프랑스 공화국의 이념을 실현하고 있다.

③ 부모와 국가 간의 역할 분담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녀 양육은 프랑스에서도 전적으로 여성의 역할이었다. 이는 19세기 중반에 팽배해 있던 부르조와적인 사상에 따른 “좋은 엄마”의 사회적인 개념과 연계되어 있다. 자녀를 가진 많은 여성들이 임금 노동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인 규범은 이에 따라 변화하게 되었다. 자녀 양육 규범에 대한 변화는 자녀 양육에 대한 공화국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국가가 가족의 역할에 개입함에 따라 더욱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가족 정책이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일과 가정 생활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두 개의 서로 다른 패러다임에 의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주의자들은 가족 내에서의 전통적인 성 역할 분업을 강조하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여성 주의자들은 여성들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면서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두 진영의 논리는 가족 정책이 여성들에게 일과 자녀 양육을 위한 유인책을 지원함에 있어 다소 모순된 모습을 포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이념은 여전히 프랑스 가족 정책의 전반적인 체계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2004년 보육 지원 정책의 변화를 통해 “직업 활동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직업 활동을 잠시 그만 두고 자녀를 양육하는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이념을 중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자녀 양육에 대해 부모가 어떠한 자유로운 선택을 하든지 간에 프랑스에서는 자녀 양육을 타인 특히 집단적인 보육 시설에 맡겨도 된다는 강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실제로 가족수당금고에 의해 수행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들이 집단적인 보육 시설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용하고자 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에서 3~6세 아동의 대부분은 유치원의 조기 교육 시스템 하에서 양육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 연령대의 아동을 유치원에 보내어 양육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0~2세 아동의 양육에 대해서는 덜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과 자녀 양육 사이의 자유로운 선택, 혹은 보육 시설과 개인 보육사 사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원칙에 따른다는 합의는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실제로 3세 미만 아동의 경우 맞벌이 부부 자녀의 18%만이 보육 시설에서 돌봐지고 있으며 37%가 보육사에 의해, 9%가 기타 친인척에 의해 돌봐지고 있다. 시설에서 돌보는 아동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부모들이 시설을 덜 선호해서라기보다는 시설 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3세 미만 아동의 63%는 부모 중 한명에 의해서 양육되고 있는데 부모 모두 일하는 맞벌이 중에서도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비중이 27%나 된다. 프랑스의 영아 보육 시설 이용률은 전체 37%로서 유럽 의회가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30%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보육 시설 서비스 공급이 부모들의 욕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 프랑스 정부는 최근 보육 시설 수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의 가족 지원 시스템은 19세기 후반부터 국가 주도적인 자녀 양육 지원과 규제 그리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추진해 왔다. 프랑스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변화하고 있는 가족 유형과 가족

생활을 점차적으로 반영해 왔지만 아직도 이러한 변화를 완전히 가족 정책이 수용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남아 있다. 프랑스 가족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은 더 이상 명시적으로 출산율을 올리거나 유지하는데 있지 않으며, 여성이 자녀를 낳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막는데 있다. 최근 들어 빈곤과 사회적인 배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가족 정책의 목적은 수직적 형평성 제고 등 점차 사회 정책적인 목적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가족 정책은 여전히 친가족 및 출산 친화적인 목적 하에 자녀가 많은 가족과 자녀가 없는 가족 간의 수평적인 형평성을 보장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출산율이 하락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 이상으로 가족을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 단위로 간주함으로써 계급과 양성 간의 평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또한 가족 정책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 북구 유럽 국가

가. 노르웨이⁶⁾

현대 노르웨이 사회에서 양성 평등이 이상적이라는 것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이다. 양성 평등에 대한 강조와 동시에 양성간의 유사성과 차별성에 대한 논란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노르웨이에서 여성이 강력한 지위를 갖게 됨에 따라 양성 평등 정책은 남성 특히 가정 생활과 관련한 남성의 역할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 할당제를

6) Ellingsaeter and Pedersen (2013) "Economic risk, fertility and the welfare state: understanding individual rationales," Ravn and Lie (2013) "The cultural ideal of the joint decision: illuminating values of individuality and relationality of the child choice" (Ellingsaeter.et.al. 2013)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부과하는 육아 휴직 정책의 개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남성 할당제를 도입한 육아 휴직 정책은 부성에 대한 규범을 둘러싼 사회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 아버지에 대한 개념은 더 이상 홀벌이 생계 부양자로 이해되고 있지 않으며 세심한 돌봄의 제공자로서 여겨지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아버지와 자녀 간의 생물학적 유대 관계와 자녀에 대해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규범이 육아 휴직 정책, 이혼, 인공 수정 기술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이 가족 생활에 있어서 차별적인 역할이 있다는 전통적인 규범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나 동시에 남성과 여성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동등하게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노르웨이는 “고용 사회”로서 고용의 불안정성이 대부분의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이다. 노르웨이의 노동 시장은 2008년도 유럽 경제 위기의 여파로 어느 정도 타격은 받았으나 여전히 강한 노동 수요가 존재하고 있다. 2010년 현재 25~66세 성인 중 남성의 고용률은 82.2%이며, 여성 고용률은 76.5%이다. 25~54세 성인의 실업률은 남성 3.5%, 여성 2.6%로 매우 낮다. 근로자 중 30%가 공공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데 여성의 경우 더 비중이 높아서 여성 근로자 중 약 50%가 공공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자녀를 가진 여성들의 대다수가 취업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자녀 연령이 3세 미만인 여성의 81%, 3~6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88%가 취업 여성이다.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일할 수 있는 조건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취업 여성 중 시간제로 근로하고 있는 여성의 비중은 상당히 높아 여성 취업자 중 약 40%가 시간제 근로 여성이다. 하지만 시간제 근로 여성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

는 추세이다. 근로 시간은 상당히 규제되고 있어 통상적인 근로 시간은 주당 37.5 시간이며 초과 근로는 거의 하고 있지 않다. 고용과 해고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일시적인 고용 계약에도 이러한 규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일시적인 고용자 비중은 8%로 낮은 수준이다.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하여 임금 수준은 높은 편이며 계층 간 임금 격차도 낮은 편이다. 노르웨이에서도 주거비 지출은 높다. 대부분의 가족이 자가를 소유하고 있으나 특히 도시 지역에서 주거 비용이 높아서 젊은 부부들 지출의 대부분이 주거 비용으로 나가고 있다.

부부 모두가 근로를 하고 함께 자녀를 돌보는 모델을 지향하는 노르웨이 가족 정책 모형에서는 자녀 보육 정책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노르웨이의 자녀 보육 정책은 육아 휴직, 양육수당, 공공 보육 서비스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그 밖에도 자녀 혹은 자녀를 돌보는 도우미가 아플 경우 연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6~10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방과후 보육 서비스가 제공된다. 2010년도 현재 노르웨이에서 육아 휴직 기간은 46주로서 동 기간 동안에는 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육아 휴직 기간을 56주 사용하는 경우 임금의 80%가 지급된다. 육아 휴직 급여의 총 최대 액수는 57,550 유로이며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급여의 최대 액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녀 출생 전 10개월 동안 6개월 이상을 근로한 사람들이다. 자녀 연령이 3세가 될 때 까지 육아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급여가 지급되는 육아 휴직 외에도 부모 각각은 1년간의 무급 육아 휴직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녀 출산 전 3주와 출산 후 6 주는 여성이 육아 휴직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남성들은 “아버지 할당제”로서 10주의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육아 휴직 기간은 부모의 선호에 따라 공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 육아 휴직을 사용한 사람들은 휴직이 끝난 후에 직장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지고 있다.

보육 서비스 이용이 제도화 되어 있으며 자녀 연령이 1세가 될 때부터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가 있다. 2010년 현재 1~5세 아동의 89%가 공공 보육 시설에서 양육되고 있으며,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3~5세 유아는 97%, 1~2세 아동은 79%가 보육 시설을 이용한다. 보육 서비스 비용에 대한 지원은 종일제의 경우 한달에 최대 90 유로까지 지원된다. 1~2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자녀를 공공 보육 시설에 맡기지 않을 경우 양육 수당으로서 한달에 약 400 유로를 받는다. 양육 수당을 받는 부모의 비중은 최근 영아를 위한 보육 시설을 확장함에 따라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여성과 남성 모두 안정적인 노동 시장에서 근로하고 있고 맞벌이 부부들의 근로와 자녀 양육을 지원해 주는 가족 정책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양성 평등 의식이 노르웨이가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 중의 하나이다. 안정적인 노동 시장, 가족 지원 정책, 양성 평등 의식은 노르웨이 국민들이 경제에 대해 강한 신뢰감을 갖게 하여 이를 토대로 노르웨이의 출산율은 유지되고 있다. 최근 몇몇 유럽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출산율 반등 현상은 노르웨이와 같이 시민들의 경제적인 안정성이 보장되고, 적절한 국가 사회보장 서비스가 제공되며, 남성 생계 부양자가 아닌 여성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모델을 가진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노르웨이는 맞벌이 가족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경제적인 안정성이 가장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대표적인 자녀 출산 즉 부모가 되는 것과 관련된 사회적 위험을 제거하는 일은 노동 정책과 복지 정책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서, 노동 시장은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복지 정책은 일과 자녀 양육의 책임을 조화

롭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종합컨대, 노르웨이에서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경제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전략은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한축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강한 노동 시장 정책이며, 다른 한 축은 부부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맞벌이를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자녀를 양육함에 따라 포기해야 하는 소득을 보상해 주며 부부가 모두 직장에서 일할 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노르웨이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안정성은 실로 이러한 안정적인 노동 시장 환경과 맞벌이 부부를 지원해 주는 사회 복지 정책에 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르웨이의 정책은 국민들이 부모됨과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 갖는 의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녀를 갖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자녀 출산에 따라 금전적인 손실을 받게 된다는 대한 개념은 약한 편이며, 그 대신 자녀를 낳음에 따라 얻게 되는 감성적인 혜택이 매우 강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한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가족 정책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비용도 절감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스웨덴⁷⁾

스웨덴은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돌보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공 정책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스웨덴은 이러한 공공

7) Bergnéhr와 Bernhardt (2013) "The non-modern child? Ambivalence about parenthood among young adults," (Ellingsaeter.et.al. 2013)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정책을 통하여 부모됨의 역할과 유급 노동 간 사이에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한 국가이다. 스웨덴에서는 이미 1930년대에 가족 지원을 위한 중요한 몇 가지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이후 수십년 동안 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부모 역할과 아동의 웰빙을 지원하는 공공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2012년 현재 부모들은 13개월의 유급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여성들은 유급 노동 시장에 거의 남성과 같은 노동 강도를 가지고 참여하고 있으며 2~5세의 아동들이 공공 혹은 민간 보육 시설에 다니고 있다. 스웨덴의 출산율은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으며 최근 들어 여성 1명당 약 2명의 출산 수준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서구 사회와 마찬가지로 스웨덴에서도 과거 30년 전부터 여성들의 자녀 출산 연령이 늦추어지기 시작하였다. 최근 스웨덴의 초산 연령은 30세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는 1970년대에 초산 연령이 24세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증가한 양상이다. 스웨덴에서도 점점 더 많은 무자녀 성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1940년대에 출생한 여성 중 무자녀 비중이 11%였던 것과 비교하여 1960년대 출생한 여성의 무자녀 비중은 14%로 상승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무자녀 경향은 오스트리아, 영국,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등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스웨덴에서는 아직도 대부분의 성인이 생애 주기의 일정 시점에서 부모가 되고 있다.

다수의 연구 결과들은 스웨덴의 가족 정책이 여성으로 하여금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 활동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에서도 여전히 자녀를 갖는 것은 남성 보다는 여성의 직장 생활과 일상생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아버지들이 전

체 육아 휴직 기간의 21%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치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스웨덴 국내에서는 낮은 것으로 비판되고 있다. 미취학 자녀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것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아버지들은 여전히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근로 시간 단축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다. 그 밖에도 이혼하는 경우 여성이 남성과 비교하여 자녀 양육과 관련한 더 많은 부담을 갖게 된다.

다른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스웨덴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과거와 비교하여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 국가에서는 최근 들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보육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남성과 여성 모두 유급 노동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필요성과 함께 대두되고 있다. 스웨덴 부모들은 자녀의 필요에 부응하고, 자녀의 학습과 일상 활동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들을 자신감 있고 건강하게 키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자녀 양육과 더불어 불안정한 노동 시장과 유연화되고 있는 근로 형태에 직면하여 자녀와 가족을 양육하기 위하여 많은 근로 노력을 투여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제3절 독일과 이탈리아 사례

1. 독일⁸⁾

1960년대 만 하더라도 2.5명에 달하던 독일의 합계 출산율은 2010년

8) Jarczyk (2013) "Flexible work: implications for the social meaning of children," (Ellingsaeter.et.al. 2013)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현재 1.34명의 초저출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유연한 임금 노동, 가족 형태의 변화, 여성의 역할, 학교·유치원·기타 공공 서비스를 포함한 제도적인 특징이 독일 사회의 변화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1989년부터 시작된 통일 과정에서 구 서독 지역의 체계와 법적 시스템이 구 동독 지역에 대부분에 적용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과 가정 생활과 관련하여 두 지역이 가져온 전통은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통합되기에 이르렀다. 동독 지역은 사회주의적인 시각 하에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자녀를 가진 여성이 종일제로 일하는 규범을 가지고 있었다. 서독 지역은 이와 반대로 자녀를 가진 여성이 집에 남아서 자녀를 돌보는 가족 중심적인 “좋은 엄마”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동독과 서독이 가지고 있는 가족과 일, 성 역할에 대한 규범의 차이는 여전히 현대 사회에서 부모들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의 가정 내 돌봄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서독 지역에서도 점차 여성의 취업은 여성들의 정체감이나 공공 정책에서도 일상적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가족 정책의 부분적인 변화, 유급 육아 휴직 제도, 공공 보육 시설 설치, 이혼한 경우 자녀 연령이 3세 이상 되는 시점부터 여성들이 근로를 통해 돈을 벌도록 압력을 가하는 법적인 체제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독일 사회에서 성 역할 규범과 관련한 변화들은 여성들로 하여금 대부분 20시간 미만의 시간제로 일하는 자녀를 가진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이미지와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 사회에서 여성 취업의 증가는 여성들이 자녀와 가정을 돌보는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규범을 바꾸지 못했다. 특히 서독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로서의 자기 이미지에 높은 가

치를 부여하고 있다. 모성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자아 정체감은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 사이에서 갈등이 있는 경우 자신들의 근로 시간을 줄이게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성역할 고정 관념의 잔존으로 인해 여성 본인들이 생계 부양자이기 때문에 종일제로 일해야만 하는 여성들 뿐만 아니라 시간제 근로 등 유연한 형태로 일하는 여성들 모두 강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이상적인 엄마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는 동독과 서독 간의 보육 시설 인프라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2004년 이후 공공 보육 시설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독 지역의 보육 시설은 0~3세 아동의 17.5%를 돌볼 수 있는 정원을 제공하고 있다. 동독 지역에서는 48%로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동독 지역에 상대적으로 영아를 위한 보육 서비스 제공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다만 동독 지역에서 일과 자녀 양육 간의 갈등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서독에서는 유연한 근로 형태로서 시간제로 일하고 있고, 동독 지역에서는 이러한 유연한 근로가 야간 시간, 주말에도 일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보육 시설 이용에 대한 수요가 높다. 하지만 동독 지역의 보육 시설은 여전히 길고 “매우 유연한” 근로 시간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서독과 동독 사이에 서로 다른 젠더 개념이 문화적인 차이로서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일하는 여성과 남성에게 대한 개념이 비슷하게 발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서독과 동독 모두 여성과 남성들이 자녀와 일에 대해서 강한 의미를 부여해 왔으며 서로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부모들이 자녀 양육과 임금 노동 간에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전통적인 일과 가정 생활 방식을 약간 변형시키는 유연 근로의 확대였다. 자녀를 양육하는 독일 아버지들 역시 자녀를 돌볼 때 일

과 가정 생활 양립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하지만 이러한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독일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주 생계 부양자라는 고정 관념을 바꾸어 놓지는 못하고 있다. 남성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역할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아버지 역할을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육아와 가사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다. 이러한 남성들의 전략은 남성들의 주된 역할이 종일제 생계 부양자라는 사실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결과 독일 아버지들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추가적이고도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하여 본인과 자녀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인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종합컨대 독일에서의 유연한 근로제도는 전통적인 성 역할과 가족 규범을 재편성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해 주었으나 이러한 유연한 근로제도가 여성과 남성이 자녀에 대해 갖는 의미를 크게 바꾸지는 못했다. 실제로 아직도 독일 사회에서는 남성이 주된 생계 부양자로서 임금 근로와 가정 내 돌봄에서 성 분업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2. 이탈리아⁹⁾

이탈리아의 낮은 출산율은 1990년대 초반부터 고착화되기 시작하여 1.3명 보다 더 낮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1960년대 중반 혹은 1970년대 초반에 출생한 여성들의 코호트 출산율은 그 이전 세대에 출생한 여성들의 출산율 보다 현저하게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탈리아가 이렇게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이유는 가톨릭교회의 지배적인 기능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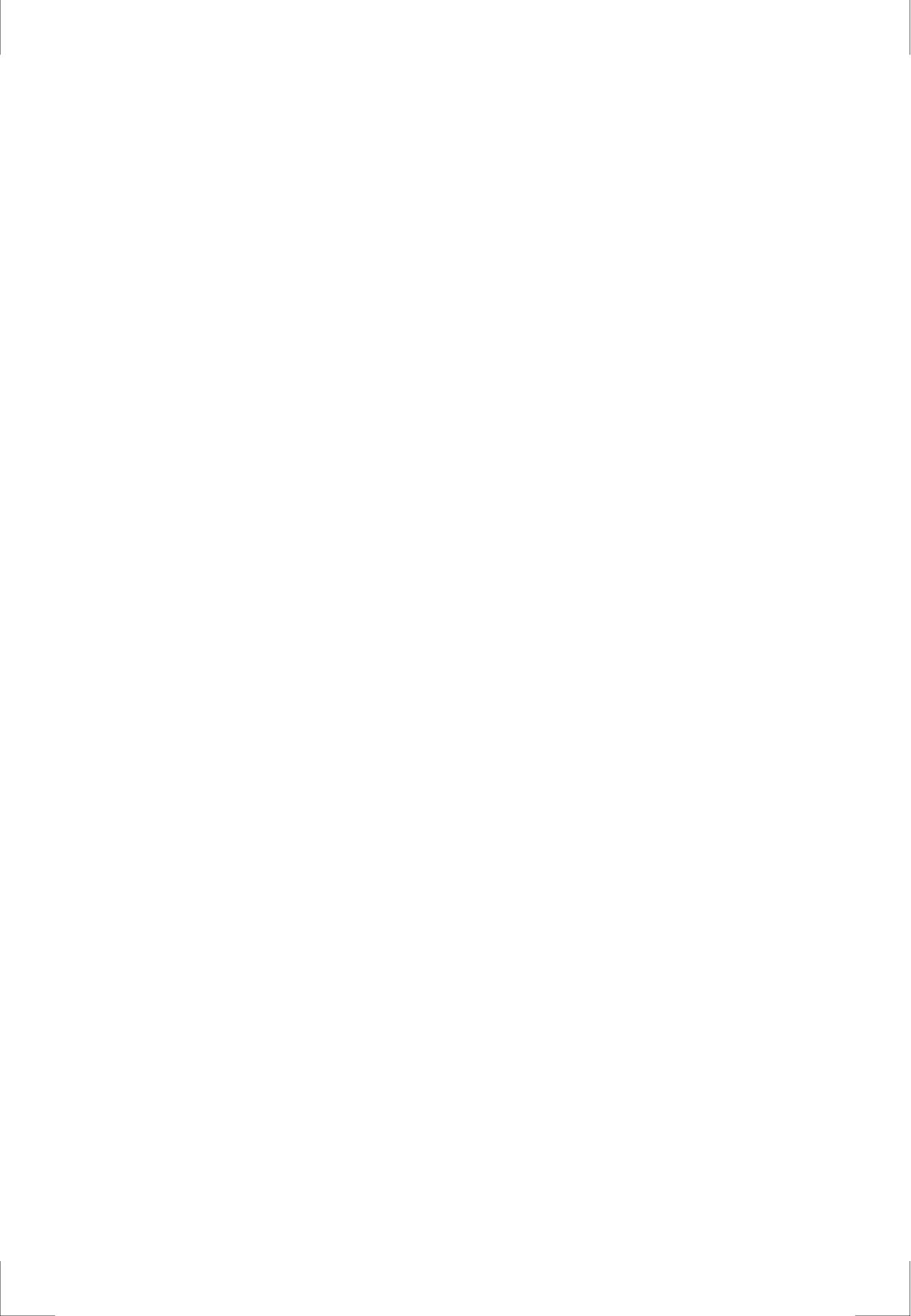
9) Bernardi (2013) "From mother to daughters: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fertility norms," Ellingsaeter.et.al. 2013)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족이 개인보다 우선시 되는 전통적인 강한 가족주의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출산율이 하락된 사회 경제학적 요인은 여성 경제 활동 참여의 급속한 증가와 이러한 변화를 지지해 주지 못하는 사회적인 체계 때문이다. 이탈리아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과도한 임금 노동과 자녀 돌봄에 대한 시간과 노력의 투여는 자녀 출산 시점을 늦추고 적은 수의 자녀를 낳게 하는 메카니즘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탈리아 사회에서도 교육 수준과 노동 시장 참여 등 공공의 영역에서는 양성의 차이가 사라졌으나 가정과 직장 환경 등 사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양성 역할의 차이가 남아 있어 이러한 격차가 자녀를 낳는데 강한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

출산율이 저하된 대부분의 국가가 공통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일 가정 생활 양립의 어려움 문제 이외에도 이탈리아 사회가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이유는 이탈리아 사회에 특유하게 존재하는 가족 내의 강한 결속력 때문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의 집에서 함께 오랜 기간 거주하고 있으며 부모가 이미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이탈리아 젊은 세대의 자녀 출생 의도를 저하시키고 있다. 이탈리아의 저명한 인구학자 Massimo Livi Bacci는 이러한 현상을 “과도한 가족”이라고 표현하면서 젊은이들에 대한 부족한 주거 지원과 열악한 고용 환경이 부모가 오랜 기간 동안 “건강치 못하게” 자녀를 지원해야 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보았다 (Livi Bacci 2001, Dalla Zuanna 2001, Ellingsaeter.et.al. 2013에서 재인용).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이미 가족 관계의 중요성과 가족 간의 이전이 이탈리아에서 역사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탈리아에서 강한 가족 관계가 중요시되는 이유는 성인 자녀들이 오랜 기간 동안 부모와 함께 거주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남부 유럽 사회에

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함으로써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세대 간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오랜 기간 동거하는 문화는 경제적인 이전과 돌봄 서비스가 부모와 자녀 간에 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 삼촌과 이모 등 다른 친인척 사이 간에도 확장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와 자녀와의 동거는 재화와 돌봄 서비스의 세대 간 이전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 직업, 배우자 선택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에서도 부모의 개입과 간섭이 이루어지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3장

자녀 양육 시간에 대한 선행 연구

제1절 이론적인 배경

제2절 외국의 선행 연구 결과

제3절 국내 선행 연구 결과



3

자녀 양육 시간에 대한 << 선행 연구

제1절 이론적인 배경

오늘날 자녀들은 1980년대와 비교하여 상당한 많은 시간을 부모들과 함께 보내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65년과 1998년 기간 동안 기혼남성 자녀를 돌보는데 보내는 시간은 0.4시간에서 1.8시간으로 증가하였으며, 기혼여성이 자녀 돌보는 시간은 1.7시간에서 1.8시간으로 증가하였다 (Bianchi, 2000).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1961~1999년 사이 동안 유자녀 여성이 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0.7 시간에서 1.7 시간으로 증가하였으며, 유자녀 남성의 경우 0.2 시간에서 0.8 시간으로 증가하였다(Fisher, McCulloch, and Gershuny, 1999). 여전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자녀를 돌보는데 보내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격차가 점차로 줄어들고 있어 이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임금 노동, 가사 노동, 자녀 양육에서 유사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Hallberg and Klevmarken, 2003).

1960년대 이후 가족과 가구의 생활과 관련하여 산업화 국가에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은 가족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생애 주기에 있어 주요한 변화의 시점들이 늦추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산업화 국가 전체에서 서로 다른 정도와 속도를 가지고 일어나고 있다.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산업화 국가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변화로 여성 노동 시장 참여의 증가, 전체 인구의 교육 수준 향상, 보다 양성 평등한 사회로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동 시기에 이루어진 인구학적 변화는 “제2차

인구학적 변화”라고 불리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아동이 자라고 있는 인구사회학적 그리고 경제적인 배경을 변화시켰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하는 양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van de Kaa, 1987; Billari and Wilson, 2001).

“자녀의 양(quantity)과 질(quality)의 교환”에 대한 신가정경제이론은 제2차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투자를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Becker and Lewis 1973; Becker and Tomes 1976, Willis 1987). 동 이론에 따르면 한정된 자원(resources)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적은 수의 자녀에게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자함으로써 질적으로 우수한 자녀를 갖는 것을 선호한다. 자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모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다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내거나 과외 공부를 시키고 유학을 보내기 위해 돈을 지출한다.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자녀와 함께 보다 많은 유용한 시간을 보냄으로써 자녀의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질적인 측면에서 자녀에 대한 보다 많은 투자는 적은 수의 자녀를 선호하게 되는 메카니즘으로 연결되었다.

앞서 산업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60년대 이후 부모들이 자녀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전반적으로 늘어났다.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하는 시간의 증가는 인구특성 변화와 같은 “구조적인 요인”과 부모 역할과 자녀와 보내는 시간 유형 변화 등과 같은 “행동적인 요인”의 두 가지 원인으로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Gauthier, Smeeding, and Furstenberg, 2004). 구조적인 요인 측면에서는 사회경제학적 그리고 인구학적 측면에서의 변화가 부모 돌봄 시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서구 사회의 출산율 감소는 더 적은 수의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부모가 자녀 각각에게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출산율의 감소는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증가와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취업 여성의 시장 노동에 따른 시간 압박을 고려해 볼 때 여성들이 자녀에게 쏟는 시간의 감소를 가져왔을 수 있다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이다. 유배우 남성들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및 자녀 돌봄 시간에 대한 압박에 대응하여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증가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남성들의 자녀 돌봄 시간의 증가는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임금 수준이 더 높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비용이 많이 드는 행동이라 볼 수 있다.

이 밖의 구조적인 요인으로서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는 자녀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은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양질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이는 훗날 건전한 성인으로 성숙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교육 수준이 향상함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하는 평균적인 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설명해 준다. 부모의 연령은 자녀 돌봄 시간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년의 남성들이 그 보다 낮은 연령대의 남성들보다 가사 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South and Spitze, 1994). 같은 패턴이 자녀 돌봄 시간에서도 나타나는 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아직 없지만 1960년대 이후 급속하게 증가한 초혼 연령은 자녀 돌봄 시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증가하는 가족의 해체 역시 자녀 돌봄 시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McLanaha 과 Sandefur (1994)는 재혼한 아버지는 비생물학적 자녀에게는 본인의 생물학적인 자녀에게 쏟는 만큼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재혼한 아버지의 낮은 관심 정도가 자녀에게 더 적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밝힌 연구는 아

직 없지만, 서구 사회에서 재구성된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다양한 유형의 가족의 증가는 부모들의 자녀 돌봄 시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구조적 요인의 전반적인 영향력이 자녀 돌봄 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족 규모의 감소, 부모의 교육 수준 증가, 초혼 연령의 증가는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성 경제 활동 참여의 증가, 가족 해체 및 미혼 인구의 증가는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구조적인 요인이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하여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한 반면에, 행동적인 요인이 자녀 돌봄 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바가 없다. “자녀의 양과 질의 교환”에 대한 전통적인 가정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인 규범”의 변화 그리고 자녀에게 보다 많은 투자를 하려는 부모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부모가 자녀와 책을 읽고 놀아주는 시간이 증가하고 아버지들이 자녀에 생활에 보다 많이 개입하는 경향이 증가 했을 수 있다. 서구 선진국의 최근의 경향만 보아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열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Galinsky, 2000)

제2절 외국의 선행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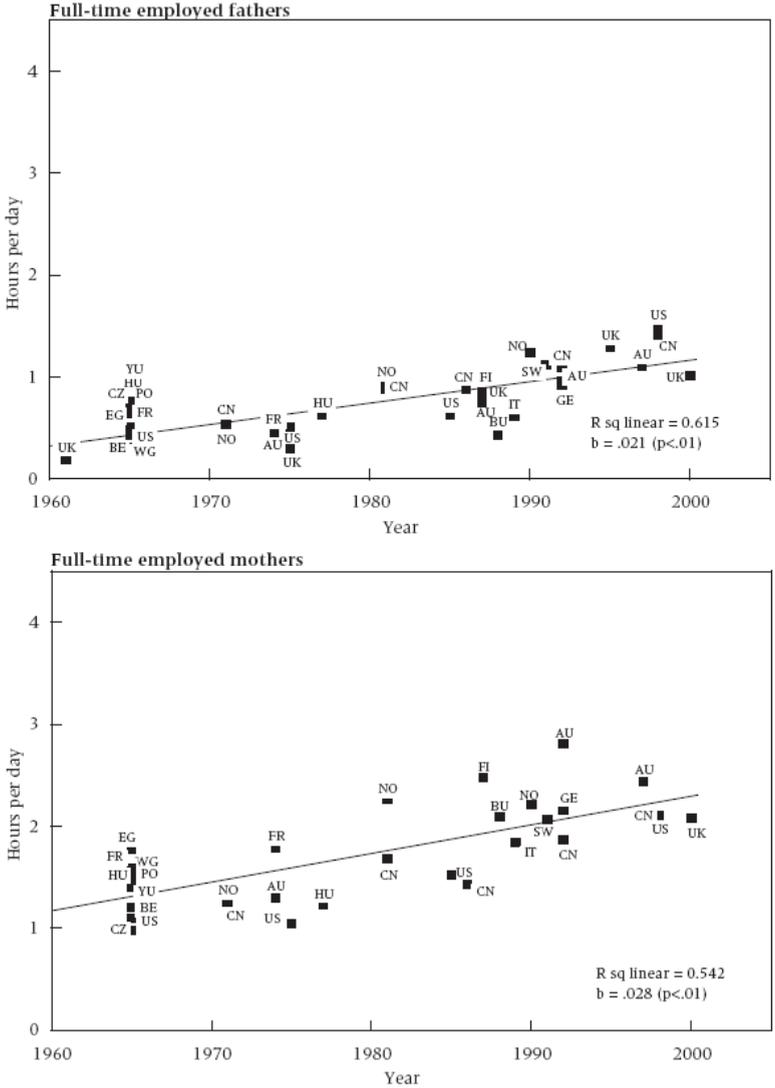
1. OECD 국가의 연구 결과

Gauthier, Smeeding, Furstenberg (2004) 는 16개국의 시간활용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1960년대 이후에 나타난 부모들의 자녀 돌봄 행태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16개국에는 호주,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첸,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노르웨이, 폴란드, 스웨덴, 영국, 미국, 유고슬로바키아가 포함되어 있다. 분석 대상 국가로서 다른 복지 체계 뿐 만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다양한 국가가 포함되어 있어 유럽 국가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 경향을 파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동 연구에서는 5세 미만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20~49세 전일제 근로 남성과 여성, 그리고 여성의 경우 다시 전체 여성과 비취업 여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960년대 이후 부모들의 자녀 돌봄 시간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제 근로 남성의 경우 자녀 돌봄 시간은 16개국 평균적으로 1960년대 하루당 0.4시간이었으나 2000년대 1.2시간으로 증가하였다. 여성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전일제 근로 여성의 경우 하루당 1.1시간이 증가하였으며, 비취업여성의 경우 하루당 1.3시간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여성 경제 활동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자녀 돌봄 시간이 감소했을 것이라는 종래의 기대와는 달리 전일제 근로 여성의 자녀 돌봄 시간도 비취업 여성과 마찬가지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즉,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의 증가가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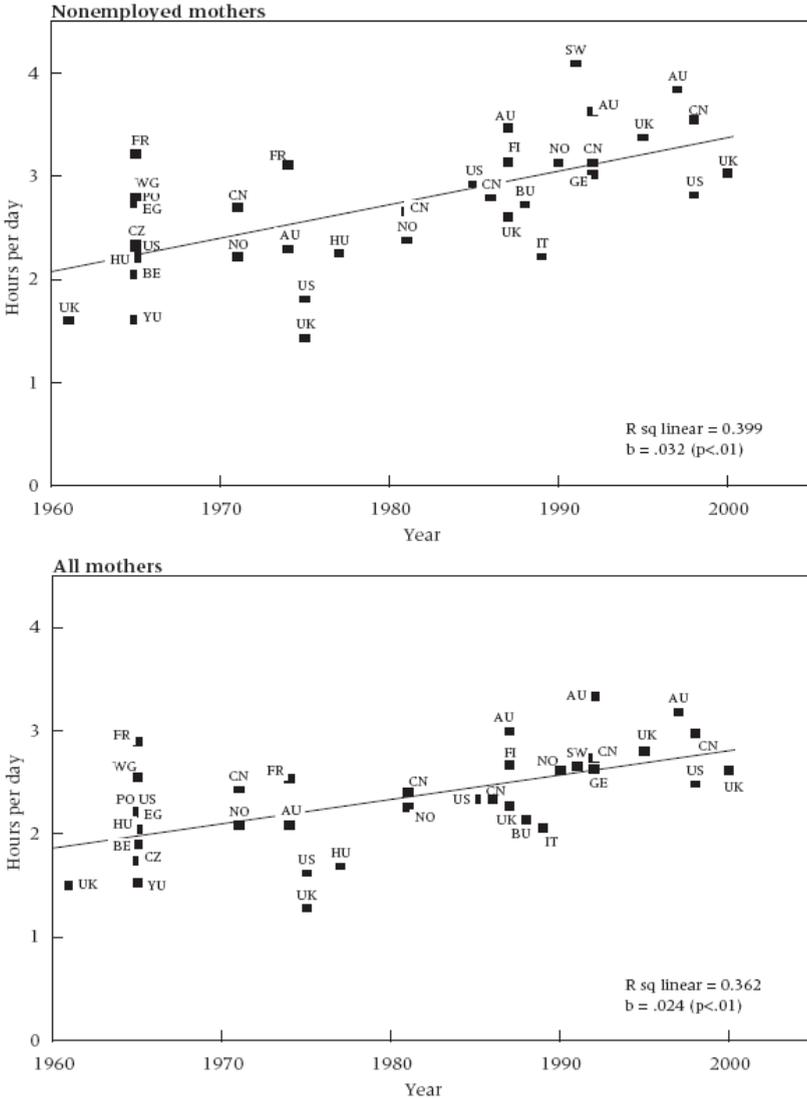
64 저출산 정책 확대에 따른 자녀 양육 행태 변화 분석

[그림 3-1] 유럽 16개 국가의 자녀 돌봄 시간의 변화 (1960~2000): 전일제 근로 남성과 여성



주: 5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20~49세 전일제 근로 남성과 전일제 근로 여성의 자녀 돌봄 시간
 자료: Gauthier, Smeeding, and Furstenberg (2004)

[그림 3-2] 유럽 16개 국가의 자녀 돌봄 시간의 변화 (1960~2000): 비취업여성과 전체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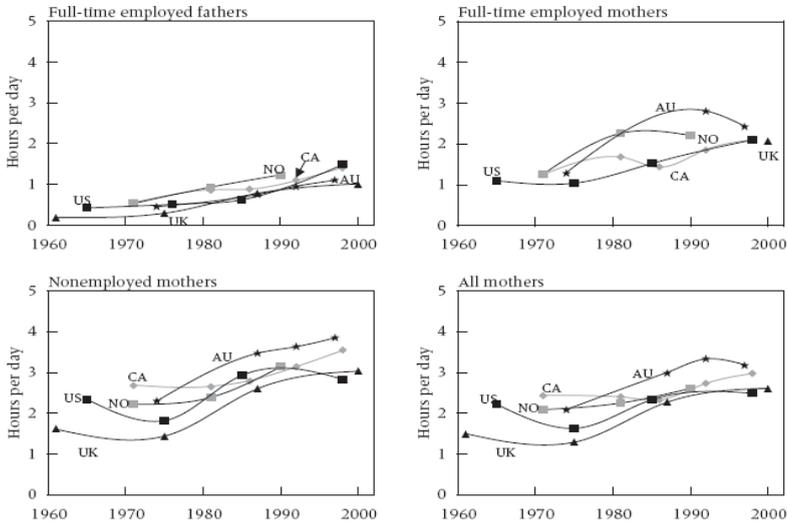


주: 5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20~49세 비취업 및 전체 여성의 자녀 돌봄 시간
 자료: Gauthier, Smeeding, and Furstenberg (2004)

자녀 돌봄 시간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비율로 증가를 하였지만 전일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볼 때 여성 대비 남성의 자녀 돌봄 시간 비중은 1960년대 0.36에서 1999년대 0.53으로 증가하여 돌봄에 있어서의 양성 격차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하지만 전일제 근로 남성이 아닌 전체 남성으로 보았을 때 양성 격차 완화 정도는 국가마다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16개 국가의 평균으로 볼 때 1960년대 이후 자녀 돌봄 시간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국가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돌봄 시간 변화에 있어 국가마다 상이한 양상이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국가별 차이는 각 국가마다 서로 다른 노동 시간 및 육아 휴직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고, 부모 교육 수준과 연령 등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 서로 다르며, 시간 활용 조사 방법론에서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3-3] 유럽 16개 각 국가의 자녀 돌봄 시간의 변화 (1960~2000)



주: 5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20~49세 남성과 여성의 자녀 돌봄 시간
 자료: Gauthier, Smeeding, and Furstenberg (2004)

Gauthier, Smeeding, Furstenberg (2004)는 자녀 돌봄 시간 뿐만 아니라 임금 노동 및 교육, 가사노동, 여가, 개인 유지에 대해 보낸 시간도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5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들은 자녀 돌봄 시간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가사 활동에 보내는 시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남성들의 자녀 돌봄 시간과 가사 활동 시간 증가는 임금 노동 시간과 개인 유지 시간(주로 취침 시간)의 감소와 함께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16개 국가의 전일제 근로 남성들은 자녀를 돌보고 가사 활동을 보다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자신의 노동 시간과 개인적인 휴식 시간을 감소시켰다는 것을 말해 준다. 전일제 근로 여성들 역시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임금 노동에 투입하는 시간과 개인적인 활동 시간을 줄임으로써 자녀 돌봄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성들과 반대로 여성들은 가사 활동 시간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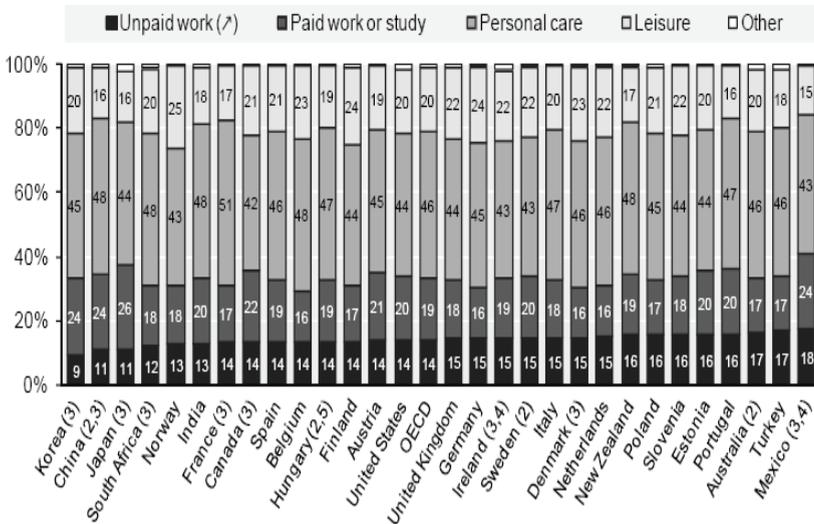
자녀 돌봄 시간 증가는 자녀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중 증가와 자녀 돌봄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돌봄 시간 증가의 두 가지 효과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 16개 국가 전반에 걸쳐 자녀 돌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중과 돌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돌봄 시간량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돌봄에 참여하는 남성들의 비중이 여성들의 비중보다는 낮기는 하지만 참여율은 동 기간 동안 현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전일제 근로 남성의 51%만이 자녀 돌봄에 참여했던 반면에 1990년대에 와서는 72%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자녀 돌봄 참여 정도는 전체 기간 동안에 90%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간 활용에 대한 국제적인 또 다른 비교 연구로서 Miranda(2011)는 OECD 국가 간의 임금 노동과 비임금 노동 시간을 각 국가의 시간 활용 조사 결과(1998~2009년)를 가지고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는 비교

대상 국가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우리나라의 자녀 돌봄 시간과 가사 노동 시간을 OECD 국가 현황과 비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의 시간 활동 조사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특히 시간에 대한 관념이 국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OECD, 2014b). 주요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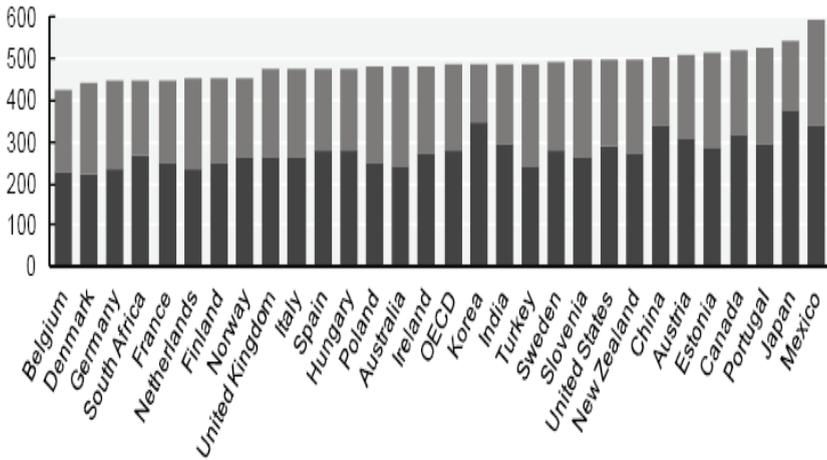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전체 시간 분포 중 비임금 노동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임금 노동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금 노동의 양성 격차는 OECD 평균 보다 높아서 OECD 평균과 비교하여 여성이 상대적으로 비임금 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OECD 국가의 주요 행동별 시간 활용 현황 (1998-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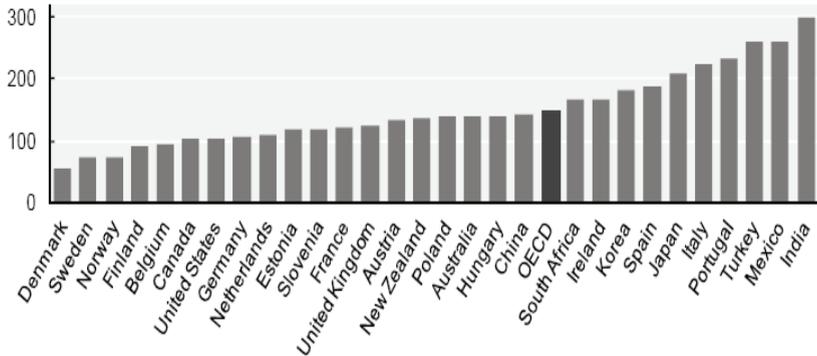
주: 15~64세 인구의 전체 시간 중에서 주요 행동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Miranda (2011)

[그림 3-5] OECD 국가의 임금 노동 시간과 비임금 노동 시간 (1998~2009)



주: 15~64세 인구의 하루 평균 임금 노동 시간과 비임금 노동 시간 (분)
 자료: Miranda (2011)

[그림 3-6] OECD 국가의 비임금 노동 시간의 양성 격차 (1998~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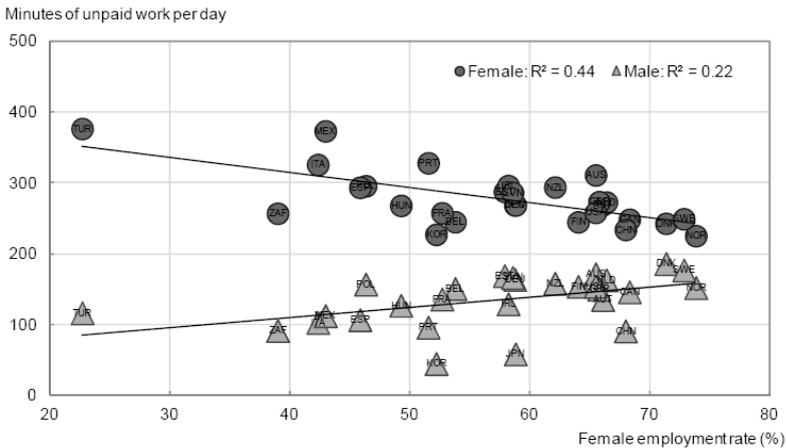
주: 15~64세 여성의 하루 평균 비임금 노동 시간에서 남성의 비임금 노동 시간을 뺀 값 (분)
 자료: Miranda (2011)

OECD 국가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여성의 취업률이 높을수록 남성의 비임금 노동 시간은 증가하고 여성의 비임금 노동 시간은 감소하는 것으

70 저출산 정책 확대에 따른 자녀 양육 행태 변화 분석

로 나타난다. 하지만 한국은 특히 남성의 경우 OECD 국가의 경향에서 벗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OECD 평균 추이와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수준에 비해 남성의 비임금 노동 시간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7] OECD 국가의 여성 취업률과 남녀별 비임금 노동시간의 상관관계(1998~2009)



주: 비임금 노동 시간은 각 국가의 15~64세 성인에 대한 생활시간조사를 분석한 결과이며, 15~64세 여성 취업률은 해당 국가의 생활 시간 조사 자료가 수집된 연도의 현황임
 자료: Miranda (2011)

비임금 노동 시간 중 특히 한국은 자녀 돌봄 시간이 남성과 여성 모두 OECD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OECD 평균 하루당 자녀 돌봄 시간은 근로 남성 40분, 비근로 남성 51분으로 나타난 반면에, 한국 근로 남성은 12분, 비근로 남성은 13분으로 OECD 평균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을 뿐만 아니라 근로 남성과 비근로 남성 간의 격차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OECD 평균적으로 볼 때 하루당 자녀 돌봄 시간은 근로 여성 74분, 비근로 여성 144분인데, 한국 근로 여성은 31분, 비근로 여성

은 89분으로 OECD 평균 보다 훨씬 낮다. 하지만 근로 여성과 비근로 여성 간의 자녀 양육 시간 격차는 한국이 OECD 평균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OECD 국가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비근로 여성은 근로 여성에 비해 약 2배 가량 높게 자녀 양육에 시간을 할애하는 반면, 한국의 비근로 여성은 근로 여성에 비해 약 3배 가량의 높은 시간을 자녀 양육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OECD 국가의 하루당 평균 자녀 돌봄 시간 현황¹ (1998~2009)

(단위: 분)

	남성		여성	
	경제활동 ²	비경제활동	경제활동 ²	비경제활동
호주	69	105	137	236
벨기에	28	31	58	99
캐나다	59	94	97	188
덴마크	48	46	81	120
에스토니아	27	35	47	168
핀란드	42	43	52	166
프랑스	26	48	62	114
독일	37	48	66	182
헝가리	32	40	39	134
이탈리아	40	49	85	124
아일랜드 ³	69	-	150	171
일본 ³	20	-	53	154
한국	12	13	31	89
노르웨이 ³	46	-	67	179
폴란드	40	56	67	151
슬로베니아	32	27	77	80
남아프리카	8	7	45	79
스페인	43	60	85	135
스웨덴	55	56	82	144
영국	43	63	81	155
미국	62	95	94	155
OECD 평균	40	51	74	144

주: 1) 1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돌봄 시간이며, 호주와 캐나다는 15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돌봄 시간임.

2) 경제활동에는 전일제와 시간제 근로가 모두 포함되며, 비경제활동에는 휴가, 실업, 비활동, 은퇴한 사람이 포함됨

3) 아일랜드, 일본, 노르웨이의 경우 비경제활동 남성 샘플수가 적어서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자료: Miranda (2011)

한편, OECD Family database는 회원국들의 주당 평균 자녀 돌봄 시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OECD, 2014b). 남성과 여성의 주당 평균 자녀 돌봄 시간과 각 국가의 출산율 현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는 [그림 3-8]과 [그림 3-9]이다. 남성들의 자녀 돌봄 시간이 높은 북구 유럽 국가에서는 출산율 또한 높은 것이 관찰되고 있다. 반면에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이 남성 자녀 돌봄 시간이 적은 국가에서는 출산율 또한 낮다. 남성의 자녀 돌봄 시간과 출산율이 긍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것과 달리 통상적으로 여성의 자녀 돌봄 시간이 높으면 출산율이 낮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OECD 국가 현황을 볼 때 가족 정책이 발달한 북구유럽 국가인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에서 여성들의 자녀 돌봄 시간이 높고 출산율 또한 높은 것이 발견되고 있다. 국가의 가족 정책이 크게 발달하지 않고 보수적인 가족 문화가 존재하고 있는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부 유럽 국가에서는 여성의 자녀 돌봄 시간이 적고 출산율 역시 낮은 것이 관찰되고 있다.

〈표 3-2〉 OECD 국가의 주당 평균 자녀 돌봄 시간과 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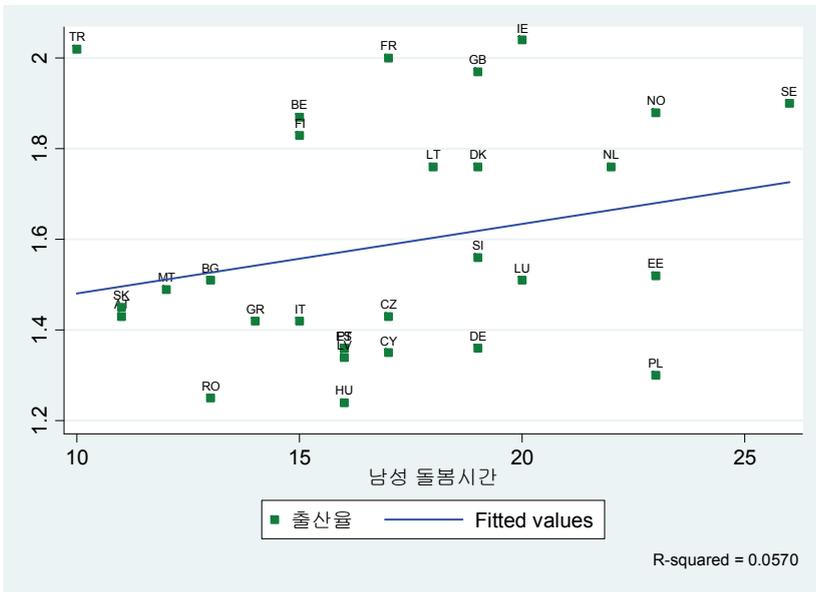
(단위: 시간)

	합계출산율(2011)	여성	남성	양성격차
에스토니아	1.52	44	23	21
네덜란드	1.76	48	22	26
독일	1.36	35	19	16
폴란드	1.3	37	23	14
영국	1.97	35	19	16
아일랜드	2.04	32	20	12
스페인	1.36	28	16	12
노르웨이	1.88	40	23	17
체첸	1.43	35	17	18
그리스	1.42	25	14	11
룩셈부르크	1.51	32	20	12
스웨덴	1.9	33	26	7
오스트리아	1.43	29	11	18
사이프러스	1.35	27	17	10

	합계출산율(2011)	여성	남성	양성격차
말타	1.49	23	12	11
슬로베니아	1.56	26	19	7
프랑스	2	29	17	12
리투아니아	1.76	29	18	11
포르투갈	1.36	23	16	7
슬로바티아	1.45	22	11	11
불가리아	1.51	20	13	7
루마니아	1.25	19	13	6
라트비아	1.34	22	16	6
헝가리	1.24	22	16	6
벨기에	1.87	23	15	8
이탈리아	1.42	20	15	5
덴마크	1.76	23	19	4
터키	2.02	21	10	11
핀란드	1.83	17	15	2

주: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가 자녀를 돌보거나 교육하는데 소요하는 주당 평균 시간
 자료: OECD(2014b), Family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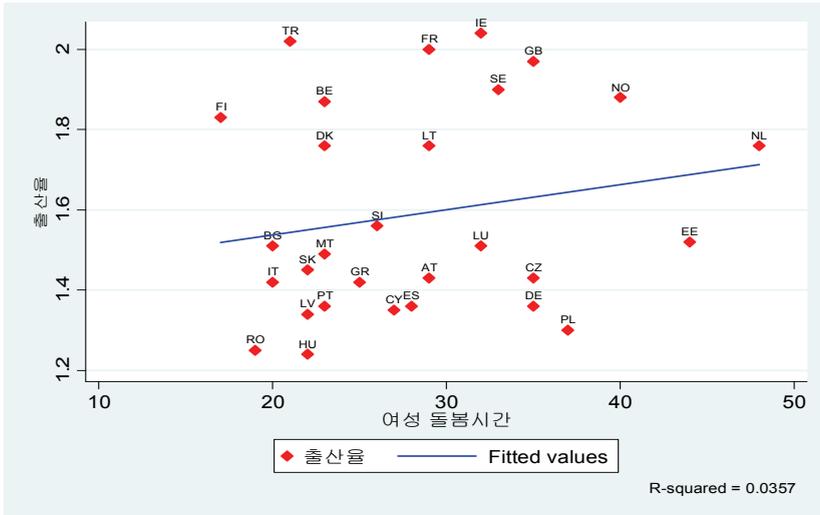
[그림 3-8] OECD 국가의 남성 자녀 돌봄 시간과 출산율



주: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가 자녀를 돌보거나 교육하는데 소요하는 주당 평균 시간
 자료: OECD(2014b), Family database

74 저출산 정책 확대에 따른 자녀 양육 행태 변화 분석

[그림 3-9] OECD 국가의 여성 자녀 돌봄 시간과 출산율



주: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가 자녀를 돌보거나 교육하는데 소요하는 주당 평균 시간
 자료: OECD(2014b), Family database

2. INED의 시계열 분석 방법론과 주요 결과

프랑스 국립인구연구소(INED)는 1980~2010년의 30년 기간 동안 가사 노동 시간과 자녀 돌봄 시간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를 가져 온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같은 “구조적인 요인”과 개인의 행동 특성 혹은 관념 등과 같은 “비구조적인 요인”으로 분해하였다 (Champagne, Pailhé, and Solaz, 2014)¹⁰. 분석 방법으로 노동 경제학에서 임금의 양성 격차를 구조적인 요인과 비구조적인 요인으로 분해하는 Oaxaca-Blinder 모형을 적용하였다(Oaxaca, R 1973; Blinder A.

10) Champagne, Pailhé, and Solaz (2014) “25 ans de participation des hommes et des femmes au travail domestique: quel facteurs d’évolution?” Documents de Travail 203, Institute national d’études démographiques

S. 1973). 자녀 돌봄 시간과 가사 노동 시간의 시계열적 변화에 있어 구조적인 요인과 비구조적인 요인의 영향력은 가사 혹은 돌봄 노동에 적게 참여하는 사람과 많이 참여하는 사람 사이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났을 수 있다. 가사 노동 시간량 및 돌봄 노동 시간량의 분위별 분포도에 따라 구조적인 요인과 비구조적인 요인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Firpo, Fortin, et Lemieux (2009)의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s” 모형을 활용하였다

구조적인 요인의 변수로서 개인의 특성, 가구의 특성, 가전제품 사용 여부, 가사 활동에 대한 외부 도움 활용 여부 등을 포함하였다. 개인 특성 변수로는 경제활동여부, 직업 종류, 근로시간, 교육수준, 연령을 포함하였다. 가구 특성 변수로 혼인 관계, 자녀 수, 3세 미만 자녀 유무를 포함하였다. 가전 제품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식기 세척기,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가 가구 내에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변수를 활용하였다. 가사 활동에 대한 외부 도움 활용 여부는 가사 도우미, 쇼핑 배달, 음식 배달 이용 여부를 활용하였다. 주거 특성 변수로 방 개수, 정원 여부, 단독 주택 거주 여부, 거주지역 변수를 활용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한 날을 고려하고자 주중에 응답한 시간인지 혹은 주말에 응답한 시간인지에 대한 변수를 포함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구조적 요인과 비구조적 요인 분해 결과

프랑스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은 1985~1999년 기간 동안 35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9~2010년 기간 동안에도 같은 크기 만큼의 가사 노동 시간의 하락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여성들의 가사 노동 시간의 하락은 주로 관습(“compotements”)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Oaxaca-Blinder 분해 방법론을 적용하여 1985~1999년 그리고 1999~2010년 기간 동안 이루어진 가사 노동 시간 변화를 구조적인 요인과 비구조적인 요인으로 분해한 결과, 인구 특성 변화와 같은 구조적인 요인의 변화는 가사 노동 시간을 감소시키는데 7~8분 정도 밖에 기여하지 못한 반면, 관습과 태도의 변화와 같은 비구조적인 요인의 변화는 가사 노동 시간을 줄이는데 약 27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가사 노동 시간의 감소는 전체 가사 노동 시간 감소의 약 1/4 정도만을 설명하고 있을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프랑스 가사 활동 시간과 자녀 돌봄 시간 요인별 분해 결과

	가사 노동 시간				자녀 돌봄 시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985-1999	1999-2010	1985-1999	1999-2010	1985-1999	1999-2010	1985-1999	1999-2010
차이	-3.73 (2.76)	-4.52 (3.33)	-34.69** (3.20)	-34.92*** (3.71)	6.59*** (1.36)	13.12*** (2.35)	-0.64 (2.59)	12.52*** (3.56)
구조적 요인	8.77*** (2.53)	-2.70 (2.29)	-7.23** (3.09)	-8.47*** (2.95)	0.73 (1.03)	5.08*** (1.40)	-10.13*** (2.44)	2.09 (2.79)
비구조적 요인	-12.50***	-1.82 (3.57)	-27.46*** (3.61)	-26.45*** (3.63)	5.86*** (1.58)	8.04*** (2.51)	9.49*** (2.66)	10.43*** (3.38)
표본수	10,426	9,909	11,652	11,086	5,195	4,527	5,956	5,255

주: 1) 프랑스 생활시간조사 자료, Insee 1985~86, 1998~99, 2010~11

2) 분석 대상은 18~60세 성인 남녀로 자녀 돌봄 시간은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성인

3) *** p<0.01, ** p<0.05, * p<0.1

자료: Champagne, Paihé, and Solaz (2014)

프랑스 남성의 경우 가사 노동 시간은 1985~1999년, 1999~2010년 두 기간 동안 모두 유의하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1985~1999년 기간 동안 이루어진 남성의 가사 노동 시간 변화에는 구조적인 요인과 비구조적인 요

인이 유의하게 상반되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인 요인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화는 남성으로 하여금 더욱 더 많이 가사 노동에 참여하도록 영향을 미친 반면에, 비구조적인 요인인 관념과 태도 등은 남성을 가사 활동에 덜 참여시키도록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사실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화에 따라 증가된 남성의 가사 노동 참여를 관습적인 경향이 상쇄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남성의 가사 노동 시간 변화에 구조적인 요인과 비구조적인 요인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요인 중에서는 경제 활동 상태(status professionnel)가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는 특히 1985~1999년 기간 동안의 가사 노동 시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하루 중의 가사 노동 시간을 약 10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2010년 기간 동안에도 여성 경제활동 참여가 가사 노동 시간에 유효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중 가사 노동 시간을 약 4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동 기간 동안 프랑스에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8~60세 여성 중에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가정주부의 비중은 1985년 26%에서 15년 후인 2000년에 15%로 줄어들었다.

여성 간부 비중의 증가 역시 여성들의 가사 활동 시간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간제 근로와 실업 상태는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가 시간제 근로 등 경제 활동 특성별로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에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프랑스 여성의 취업이 가사 노동 시간을 감소시키는데 유효한 영향을 가졌

던 것을 INED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하였다. 첫째, 프랑스 여성의 취업은 여성들로 하여금 물리적으로 가사 노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감소시켰다. 둘째, 취업하게 된 여성들은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전 보다 더 큰 자주성을 갖게 되어 부부 간에 가사 노동을 분담함에 있어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취업은 여성으로 하여금 "가정주부"가 아닌 사회적으로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경제 활동 관련 변수 다음으로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 구조의 변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족 구조의 변화가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활동변수가 미치는 영향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신(personne seule)과 동거(union libre)의 증가는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자의 감소는 평균적으로 여성들의 가사 노동 시간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혼 상태가 여성들로 하여금 가사 노동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한부모들은 커플 부부로 사는 여성들 보다 가사 일에 더 적게 시간을 쏟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규모의 감소도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을 줄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영향력의 크기는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녀수는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자녀가 없는 가정의 증가는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유아 자녀 유무는 1985~1999년 기간에는 가사 노동 시간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1999~2010년 기간에는 가사 노동 시간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자녀 유무라는 동일한 변수가 두 기간에 서로 다른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하였다. 프랑스에서는 1985~1999년 기간 동안 영유아 자녀를 가진 여성의 수가 감소하였고, 1999~2010년에 와서는 영유아 자녀를 가진 여성

의 수가 증가하였다. 가사 활동과 돌봄 활동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반면에, 서로 대체적인 관계에 있어 돌봄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사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1985~1999년 기간의 영유아 자녀를 가진 여성의 감소로 인해 평균적으로 돌봄 시간은 감소하게 되었고, 줄어든 자녀 돌봄 시간으로 인해 가사 노동 시간은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보았다. 반대로 1999~2010년 기간 동안에는 영유아 자녀를 가진 여성의 수가 증가하여 평균적으로 여성의 돌봄 시간이 증가하였고 시간 압박에 직면하게 된 여성들이 가사 활동 시간이 감소하게 된 것으로 보았다.

가사 도우미 등 외부 인력의 활용과 가전제품의 보급은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 변화에 아주 미약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5년 현재 가전제품이 이미 널리 보급된 상태였으며, 이 후 가전제품에서 현격한 기술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세탁기가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80년대에 이미 10명 중 9명의 여성이 세탁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보았다. 한편 식기 세척기와 냉장고의 보급은 여성 가사 노동 시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0~2010년 기간 동안 식기 세척기를 가지고 있는 여성의 비중이 31%에서 58%로 증가하였으며, 냉장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중은 44%에서 91%로 증가하는 등 대중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식기 세척기와 냉장고의 보급은 오히려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5~1999년 기간 동안은 냉장고의 소유가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을 증가시켰으며, 식기 세척기의 소유는 1985~1999년에는 가사 노동을 감소시켰으나, 1999~2010년 기간에는 오히려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가사 장비의 발전이 오히려 여성의 가사 노동을 "전문화" 시켜 가사 장

비를 다루는 것이 여전히 여성의 임무로 남겨지게 되어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 감소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Subrémon, 2012).

한편, 동 기간 동안 프랑스에서 최고 학위를 받은 여성의 비중이 12%에서 30%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교육 수준의 증가는 가사 노동 시간 변화에 아주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교육 수준의 증가는 1999~2010년 기간 동안에만 하루 평균 약 1분 정도로 가사 노동 시간을 감소시켰을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 교육 수준의 증가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가사 노동 시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를 들면 여성 관리자의 증가가 가사 노동 시간의 감소로 이어진 것은 여성 교육 수준의 향상 결과 여성 관리자의 수가 증가하였다는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전반적으로 볼 때 가사 시간 변화의 대부분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구조적인 요인 보다 규범과 행태 등 비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가 가지고 있는 함의점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985~1999년 기간 동안에는 동거 관계에 있는 여성이 결혼 상태에 있는 여성에 비해 가사 노동 시간이 적었으나, 1999~2010년에 와서는 오히려 동거 하는 여성이 결혼 상태에 있는 여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사 노동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에는 동거하는 여성이 결혼한 여성에 비해 더 현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으나, 현대적인 행동 양식이 널리 퍼지게 됨에 따라 동거하는 여성의 특징이 덜 "선택적"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관념의 변화는 특정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만 나타난 변화가 아니라 전체 여성들 사이에서 나타난 변화라고 보았다. 즉, "어떠한 것이 적절한 것인가" 혹은 "어떠한 것을 타인에게 내 보일 수 있을만한가" 라는

것에 대한 관념이 1980~2010년 기간 동안 프랑스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청결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약간 구겨진 옷을 입는 것, 이미 조리된 음식을 다시 데워 먹는 것, 집안을 잘 정돈하지 않는 것 등이 과거 보다 오늘날 좀 더 받아들여 질만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최근 프랑스 상류 사회에서는 일상적인 가사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을 가치가 있는 생활로서 여기는 풍조가 퍼지고 있다.

남성들에게서는 집안 보수 작업과 관련한 규범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80~1990년대와 비교하여 2000년대에 남성은 전반적으로 집안 보수에 대한 시간 투자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혼 남성, 홀아비, 다자녀 가족의 아버지들은 1985년보다 1999년도에 가사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특성 면에서 본다면 실업의 증가, 농업인 및 자영업자의 감소는 남성들의 가사 노동 시간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간부들이 가사 노동 시간을 감소한 것과 반대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도시화의 가속화와 같은 경향은 남성들이 집 보수와 같은 일에 더욱 몰입하게 하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의 발달, 세탁기의 보급과 같은 주거 환경의 개선은 남성으로 하여금 1990년대에 집수리와 세탁 일에 시간을 더 소요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2000년대에 와서 멈추게 되었다.

자녀 돌봄 시간은 가사 노동 시간과는 반대의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돌봄 시간은 남성의 경우 과거 25년 기간 내내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지난 10년 기간 동안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여성의 노동 시간 참여율 증가로 인해 노동 시간이 자녀 돌봄 시간에 매우 제약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자녀 돌봄 시간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자녀 돌봄 시간은

1985~1999년 기간 동안에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는데 이는 구조적인 요인과 비구조적인 요인 사이에서 보완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비구조적인 요인은 돌봄 시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 반면 구조적인 요인은 돌봄 시간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직장 생활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녀 돌봄 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들의 자녀 돌봄에 대한 관념도 상당 수준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비중이 각 조사 연도마다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수는 자녀 돌봄 시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돌봐야 하는 자녀를 가지고 있는 별거 혹은 이혼한 아버지들의 비중이 지난 10년 동안 두 배로 증가하였는데 프랑스 아버지들의 자녀 돌봄 시간 증가가 된 것에 대한 의미 있는 설명을 해주고 있다.

교육 수준의 증가는 여성과 남성 모두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해당 교육 과정을 졸업하는 것이 자녀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게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높은 학위를 가진 여성들은 학위가 없는 여성들과 비교하여 자녀 돌봄에 3분 이상을 더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의 증가가 돌봄 시간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여성들과 비교하여 남성들 사이에서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은 1985~1999, 1999~2010년 동안 자녀 돌봄 시간이 약 1분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활동의 변화는 가사 노동 시간과 마찬가지로 자녀 돌봄 시간도 감소시켰는데 가사 노동 시간에 미치는 영향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경제활동참여 증가는 자녀 돌봄 시간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과 남성의 실업 증가는 자녀 돌봄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전제품의 발달은 남성들의 자녀 돌봄 시간에 긍정적인 영

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전제품의 발달이 남성들을 가사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었으며 남성들은 보다 많은 시간을 자녀들에게 쏟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사 노동 시간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동안의 자녀 돌봄 시간 변화를 설명하는 것은 비구조적인 요인인 관념의 변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돌봄에 대한 관념의 변화는 남성들에게서도 나타났는데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투자하는 시간으로 여기게 되었다. 남성과 여성들이 자녀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된 것은 현대의 부부들이 자녀들과 감정적인 관계에 더 많이 투자하려는 의지를 갖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돌봄 시간의 증가는 부모들의 의무 및 자녀 교육에 대한 열망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모유 수유, 영아의 발달, 체육 활동, 예술 활동에 대해 부모들이 새로운 관념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시간제로 일하는 여성들은 다른 특성들을 모두 통제시켰을 때 전 일제로 일하는 여성들 보다 자녀 돌봄에 시간을 더 많이 쏟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5년도에 시간제로 일하는 여성들은 종일제로 일하는 여성과 똑 같은 시간을 자녀에게 쏟은 반면, 1999년에는 10분 더 많은 시간을, 2010년에는 15분 더 많은 시간을 자녀 돌봄에 쏟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휴직 수당을 지급하고 특히 1994년부터 두 번째 자녀, 2004년부터 첫 번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 휴직을 확대한 것이 시간제 근로 여성이 자녀 돌봄 시간을 확대하게 된 것을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혼한 아버지들은 1985년과 비교하여 1999년에 자녀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 분위별 요인 분해 분석 결과

1985~2010년 기간 동안 여성의 가사 활동 시간은 전체적인 시간량 분포에서 감소하였는데 가사 일을 상당히 많이 했던 여성들에게서 특히 가사 노동 시간의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가사 노동 시간량 분포의 낮은 분위에서는 가사 노동 시간이 40% 감소된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전체 분포에서 높은 분위기를 차지하고 있는 그룹에서는 2배 이상의 시간 감소가 나타났다. 관념의 변화가 전체적인 분포에서 발견되는 가사 노동 시간 감소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사 노동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계층에서 관념의 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적인 가치의 확산이 전체 모든 여성들로 하여금 가사 활동에 시간을 덜 사용하게 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그 영향력은 가사 노동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크게 미쳤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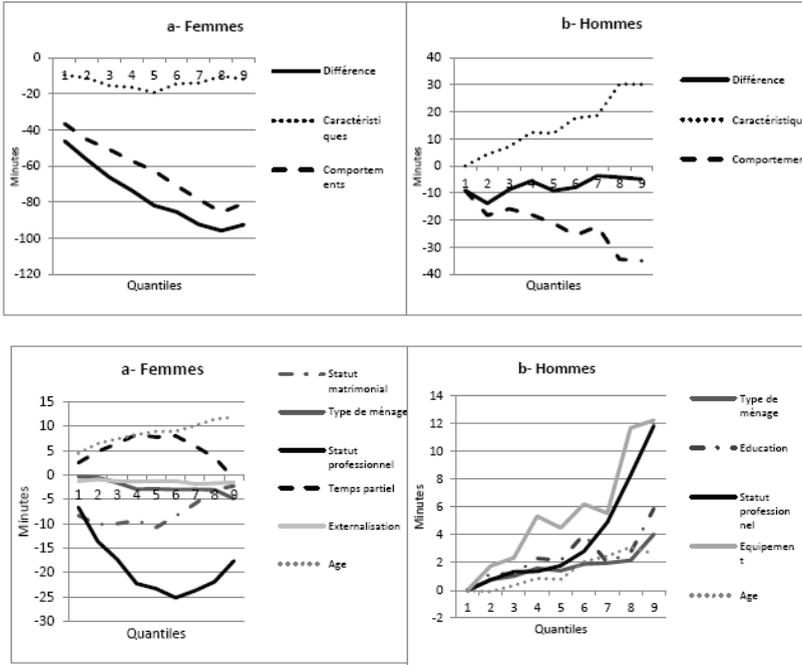
구조적인 요인들은 관념적인 요인보다 더 적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분포에서 동일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가사 노동 시간량 분포도의 중간 분위에서 구조적인 요인이 가사 노동 시간을 줄이는데 상대적으로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 노동 시간량 분포도의 하위 20%와 상위 20%에서 구조적인 요인 변화에 따른 가사 노동의 감소는 약 10% 정도의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중위에서는 19%의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노동 시장 참여의 증가는 분포도의 중간 부분에서 가사 노동 시간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포도의 높은 분위에서는 중간 부분에서 갖는 효과보다 적은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근로는 분포도의 중위에 있는 여성들에게 가사 노동 시

간 감소를 막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상태 특히 동거의 확산은 분포도의 중위 이하에 있는 여성들이 가사 노동 시간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5~2010년 기간 동안 남성의 가사 활동 시간은 전체 시간량 분포도에서 일정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안정적인 모습은 가사 노동 시간량의 분포 별로 구조적인 요인과 비구조적인 요인이 서로 상반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남성들의 특성 변화는 가사 활동에 남성들이 더 참여하도록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데 특히 이러한 경향은 가사 활동 시간이 높은 남성들에게서 더욱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의 경우 취업 상태(statut professionnel)의 변화가 남성의 가사 활동 시간 변화에 가장 큰 요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의 증가, 노동자 및 농민의 감소는 가사 일에 남성이 더욱 참여하도록 기여하였는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경향은 가사일에 많이 참여하는 남성들에게서 더욱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의 증가와 가전제품의 발달은 남녀 간의 가사 활동 분담이 더 잘 이루어지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영향력은 역시 가사 노동에 많은 시간을 투여하는 남성들이 가사 노동 시간을 증가시키도록 하는데 더 큰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구조적인 요인의 변화가 남성들의 가사 노동 시간 변화에 영향을 주는 효과는 남성들의 관념적인 변화가 미치는 영향력에 의해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관습의 변화는 가사 노동 시간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쳤는데 무엇보다도 가사 일에 많이 참여하는 남성일수록 관념적인 요인이 가사 시간 감소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가사 일에 평균 남성들보다 많이 참여하는 "선구자"처럼 보이는 남성들은 관습과 태도가 그 시대 분위기에 맞게 잘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그림 3-10] 프랑스 가사 활동 시간의 요인별 분해 분위별 분포도 분석 (1985-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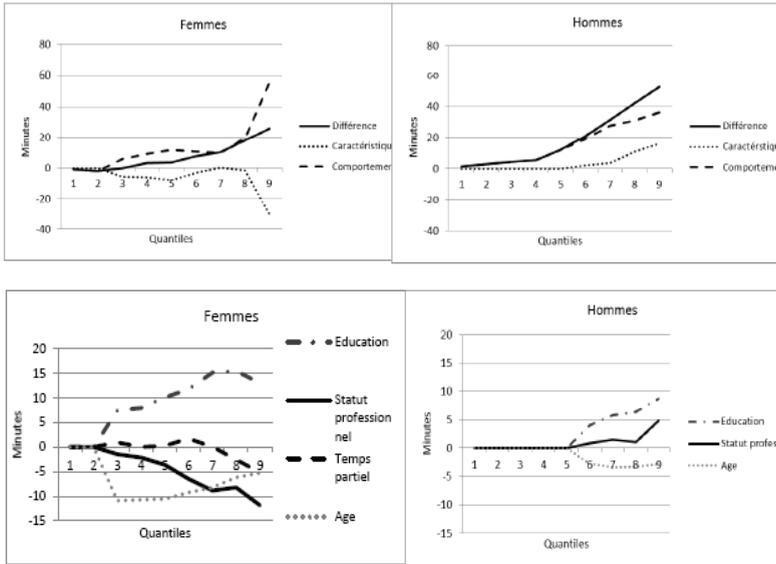


주: 1) 프랑스 생활시간조사 자료, Insee 1985~86, 1998~99, 2010~11
 2) 분석 대상은 18~60세 성인 남녀로 자녀 돌봄 시간은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성인
 3) *** p<0.01, ** p<0.05, * p<0.1
 자료: Champagne, Paihé, and Solaz (2014)

돌봄 시간의 증가는 분포도의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여성들에게서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구조적인 특성의 변화 - 특히 경제 활동 참여의 증가 -가 여성들로 하여금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줄이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들의 관습의 변화는 이러한 구조적인 특성 변화에 따라 감소된 자녀 돌봄 시간을 상쇄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관습의 변화가 가사 노동과 자녀 돌봄 시간의 변화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즉, 관습의 변화로 인해 여성들은 가사 노동 시간이 감소한 반면, 자녀 돌

봄 시간은 더욱 증가시킨 것이다.

[그림 3-11] 프랑스 자녀 돌봄 시간의 요인별 분해 분위별 분포도 분석 (1985~2010)



주: 1) 프랑스 생활시간조사 자료, Insee 1985~86, 1998~99, 2010~11
 2) 분석 대상은 18~60세 성인 남녀로 자녀 돌봄 시간은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성인
 3) *** p<0.01, ** p<0.05, * p<0.1

자료: Champagne, Paihé, and Solaz (2014)

구조적인 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여성 경제 활동의 증가는 전반적으로 자녀 돌봄 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자녀 돌봄 시간이 높은 여성에게서 부정적인 효과는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의 변화는 전반적으로 자녀 돌봄 시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자녀 돌봄 시간이 높은 여성에게서 더 긍정적인 효과가 발견되었다.

남성의 경우 자녀 돌봄 시간은 1985~1999년, 1999~2010년 두 기간 동안 평균적인 크기로 늘어났지만 분포도의 높은 분위를 차지하고 있는

집단 - 자녀 돌봄 시간이 높은 집단- 에서 자녀 돌봄 시간 증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의 특성 변화, 특히 교육 수준의 증가는 분포도의 높은 분위에 있는 남성들에게서 더 많은 시간을 자녀와 함께 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습의 변화까지 고려되는 경우 자녀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 남성들일수록 관습의 변화에 따라 자녀 돌봄 시간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희소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자녀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 남성들이 가사 시간을 줄이고 자녀 돌봄 시간을 더 늘린 대체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보여진다.

제3절 국내 선행 연구 결과

본 절에서는 국내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자녀 돌봄 시간과 가사 노동 시간을 분석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고찰한다. 문헌 검토 결과 국내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단년도 자료를 활용한 연구 결과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국내 연구들은 자녀 돌봄 노동 시간, 가사 노동시간, 그리고 두 활동을 모두 포함한 무급노동 시간을 종속변수로 하여 시간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성역할 의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과 시간 사용을 어떻게 정의 하느냐에 따라 차별적인 연구 결과를 보이기는 하지만 연구 결과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사실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인 성 분업적인 인식과 행태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대부분의 돌봄 노동과 가사 노동의 역할을 여성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경제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돌봄과 가사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여성들이 맡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역할 태도와 같은 인식 변수 보다는 사회경제적인 변수 또는 인구학적인 변수에 의해 주로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미와 이현아(2011)는 200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60세 미만의 맞벌이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남녀의 생활 시간 사용 구조와 이러한 생활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맞벌이 부부의 생활시간배분에는 성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남성은 일과 여가 중심의 시간 배분, 여성은 일과 가정 중심의 시간 배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노동 시간과 비임금노동시간을 합한 총 노동 시간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아서 여성의 역할 과중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임금근로자의 생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 역할태도와 같은 인식변수보다는 연령과 미취학자녀 유무와 같은 생애 주기 변수, 교육이나 소득과 같은 인적자원 변수, 근무형태와 같은 직업 조건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김정석, 은기수, 차승은 외(2010)은 2009년 생활시간조사의 이틀간 일지자료 중에서 둘째날 자료를 이용하여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 시간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자녀 돌보기에 대한 주행동 뿐만 아니라 동시 행동도 함께 포함함으로써 자녀 돌보기의 정의를 확대하여 분석하였다. 미취학아동돌보기 행위 참여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로짓회귀 분석 결과 여자가 남자에 비해 미취학 아동 돌보기를 할 확률이 높으며, 연령별로 볼 때 20대 후반보다 높은 연령층에서 미취학아동돌보기를 할 확률이 낮으며, 교육수준, 취업상태, 가구 내 다른 연령층의 아동 존재 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취학아동돌보기 행위를 한 남자와 여자들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여 행위자 시간량을 종속 변수로 한 회귀 분석 결과 역시 행위자 참여 여부를 종속 변수로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성, 연령, 학력, 취업

상태, 연령대별 아동 가구원의 존재 유무가 행위자 시간량에 유의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문금(2005a)은 199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무급 노동의 성별 분업 실태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무급 노동시간량에서 맞벌이 부부 여성은 남편보다 무급 노동 시간이 196분 더 많았다. 맞벌이 부부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이 전통적 부부 남성의 무급 노동 시간 보다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맞벌이 부부 여성은 전업 주부가 수행하는 무급 노동의 57%만을 수행하고 있었다. 맞벌이 여성이 무급 노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사 노동 시간 보다는 가족 보살피기 시간을 더 많이 줄이는 전략을 통하여 직면하고 있는 시간 압박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 분석 결과 여성과 남성의 무급 노동 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미취학 자녀의 존재 및 막내 자녀 연령 등 생애 과정 변수와 유급노동 시간과 요일 등 시간 자원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구학적 변수와 인적 자원 변수가 무급 노동 시간에 주는 영향력은 성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연령, 종사상의 지위, 직업이 유효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의 경우 인구학적 변수와 인적 자원 변수는 별다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말에 나타나는 남녀 간의 시간 활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말에도 여전히 여성의 돌봄 노동과 가사 노동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승미와 이현아(2011)는 주말에도 남성은 여가 시간을 늘리는 반면에 여성은 가사 노동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시간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정석, 은기수, 차승은 외(2010)은 평일에는 남자와 여자의 총노동시간은 비슷한 가운데 남자는 유급 노동을 하는 비율이 높고 반면에 여자는 무급 가사노동을 하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일요일에 남자가 유급 노동을 하는 비율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무

급 가사 노동에 거의 참여 하지 않고 있으며 여자는 맞벌이를 하고 있음에도 무급가사노동으로 인하여 일을 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외숙 외(2010)는 전체 여성의 경우 가족 보살피기에 있어 일요일에 행위자 비율과 평균 시간이 감소함으로써 행위자 비율과 평균 시간이 증가하는 남성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맞벌이 가족은 오히려 일요일에 가사 노동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함으로써 평일에 직장 근무로 인해 소홀한 가정일을 일요일에 보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과 자녀 돌봄 시간을 여성의 노동 활동과 관련하여 분석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손문금(2005b)은 199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한다할지라도 무급노동시간의 89%를 책임지고 있으며 가족 상황이 노동 시간에 영향을 주는 “젠더화”된 생활시간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가내하청/재택근무,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와 같은 종사상의 지위와 미취학자녀의 존재는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무급노동시간만을 증가시키는 영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맞벌이 가구 여성들은 남성과 비교하여 야간유급노동이나 휴일유급노동시간을 줄이고 단시간노동을 선택하며 집안에서의 유급노동시간을 길게 하면서 가족생활시간을 확보하는 유급노동시간 조절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 노동, 휴일 노동, 장시간 노동이라는 남성적 노동 조건을 받아들이고 있는 한국의 여성들은 특히 판매/서비스직의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가내하청과 재택근무자, 기능/조립직과 단순 노무직 여성들에게서 유급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무급노동시간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윤자영(2010)은 199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의 기회 비용이 시장 노동, 가사 노동, 돌봄 노동, 여가 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母)가 직면하는 기회 비용을 보육 서비스 가격과 본인의 임금률이라고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 시간당 보육 서비스 가격이 올라가면 모의 시장 노동 시간은 감소하고, 여가, 가사 노동, 돌봄 노동 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임금률이 증가하면 시장 노동 시간은 증가하고 여가, 가사노동시간, 돌봄 노동 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母)의 임금률 상승은 저학력 여성에 비해 고학력 여성의 돌봄 노동 시간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보육 서비스 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노동시간 감소와 비시장노동 시간 증가는 저학력 여성보다 고학력 여성에게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녀 간의 돌봄 노동과 가사 노동 분담에 대한 성역할 이론을 제시하고 이러한 이론들을 검증한 연구 결과의 대부분은 여성들이 돌봄 노동과 가사 노동을 부담하고 있는 성 불평등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남성은 여전히 생계 부양자, 여성은 가정 내 돌봄 노동자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김진욱(2005)는 1999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20~60세 유배우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여성 경제 참여 증가에 따른 무급가사노동의 분담 정도에 대한 세 가지 가설 - 협조적 적응 가설, 이중노동부담 가설, 적응지체가설 - 중 어느 것이 채택되는가 검증하였다. 종속 변수는 총 노동 시간과 무급가사노동시간, 독립 변수는 성별, 연령, 맞벌이 여부로 하여 다변량분산분석(MANOVA)와 중다회귀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기혼여성은 남성 배우자에 비해 하루 평균 100분 이상 더 일하고 한국 남성들은 가사 활동에 여성의 5~10%에 불과한 23~25분 일하며 무급가사 노동의 분담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나 연령은 남성의 무급가사노동시간의 변이를 설명하는데 통계적인 유

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근로 기혼 여성의 상황은 이중노동부담가설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김수정과 김은지(2007)는 2004년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맞벌이 가구에서의 상대 소득의 변화가 가사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득과 가사 노동 관계에 대한 “교환 이론”과 “젠더보상이론”의 두 가지 경쟁 이론을 제시하고 어떠한 이론이 한국 가구의 가사 노동의 현실에 부합하는가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의 소득 기여가 증가할수록 가사노동시간이 감소되지만 여성의 소득 기여가 남성 보다 더 높은 구간에서는 가사노동 시간이 더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젠더보상이론이 채택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실은 여성들이 소득에서 역전된 성별 분업을 가사노동을 통해 보상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즉, 한국 가족의 현실에서 여성이 주생계부양자의 역할을 하더라도 여전히 여성들은 이차부양자이자 가사노동전담자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더욱이 남성보다 여성의 소득이 더 많은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성들의 가사노동시간 역전 현상은 한국사회가 여성으로 하여금 여전히 전업 주부의 역할을 강제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은기수(2009)는 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성 이데올로기론, 시간제약이론, 상대적 자원이론 가설을 검증하여 한국 기혼 부부가 가사 노동을 어떻게 분담하고 있고 가사 노동 시간 배분에 무슨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가 파악하였다. 20~55세 이하 유배우 부부를 대상으로 한 회귀 분석 결과 성역할에 관한 태도나 가치가 가사 노동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성 이데올로기론에 따른 가설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채택되지 않다고 보았다. 반면에 상대적 노동 시간이 가사노동 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특

히 여성의 경우 높게 나타나서 시간제약이론에 따른 가설은 검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소득이 증가하면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증가하는 반면에 소득이 있는 여성의 경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가사노동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 자원이론에 따른 상대적 소득의 효과는 남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돌봄 노동과 가사 노동의 연도별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국내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된 연구 결과 이기는 하지만 시계열 변화를 분석한 연구 결과들은 돌봄 노동에서 남성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일과 가정생활의 남녀 간 배분 양상이 좀 더 평등적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는 현상이 감지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송유진(2011)은 1999년과 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자녀 돌보기에 투입한 시간의 변화 추이와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도 서구 국가와 마찬가지로 부모 모두 자녀 양육에 투입하는 시간의 양은 증가하였으나 자녀 돌봄에서의 양성 격차가 감소하고 있는 서구 국가와 달리 여성의 자녀 돌봄 시간이 남성들 보다 상대적으로 커서 돌봄 노동에 있어서의 성별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였다. 돌봄 노동 유형별로 부모의 교육 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미취학 아동의 경우 신체적 돌보기와 놀아주기 시간이 교육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공부 봐주기 시간이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1999년과 비교해 볼 때 2009년에는 돌봄 노동시간, 이동 시간, 개인 유지 시간을 증가한 반면에 경제 활동과 여가 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사 노동 시간은 아버지의 경우 미미하게 늘어났으나 어머니의 경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욱과 최영준(2012)은 1999년과 2009년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남성이 주 40시간 이상의 전일제 유급 노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미취학자녀를 둔 부부 가족을 대상으로 가구 내에서 배분되는 일-가족 시간에 대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부부의 유급노동시간과 가족 시간에서 차지하는 남성의 비중을 근거로 일-가족 시간 배분을 4개의 모형 - 전통적 남성생계부양, 이중노동부담, 협조적 적응, 가족친화적 남성생계부양 - 으로 유형화하였다. 분석 방법론으로서 퍼지셋이상형 분석을 활용하여 각 유형에 해당되는 점수를 산출한 후 이러한 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이중노동부담의 비중이 감소하고 협조적 적응 유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적인 모형별 분포는 전통적인 성분업에 고착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과 2009년의 분포를 비교한 결과 이중노동부담 유형에 속한 가구의 비중이 상당히 감소한 반면 협조적 적응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일-가족 시간 배분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성분업인식은 협조적 적응모형과 이중노동부담모형에서 별다른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남성과 여성의 소득수준, 학력, 노동 시간 등의 영향력은 이 두 모형에서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 시간가용이론이나 상대적 자원이론이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 시간 배분을 설명하는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았다.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맞벌이 부부가 이중노동부담모형과 협조적 적응모형으로 나뉘는 것은 성분업 인식, 유급노동부담, 상대적 자원의 크기 등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아니라 부부가 처한 개별적인 상황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고 보았다.

국내 시간 활용 조사 결과를 주요 선진 국가와 비교한 연구는 아직 많이 수행되고 있지 않다. 손문금(2011)은 OECD에서 발간한 주요국의 생

활시간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성별 무급 노동 시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연간 근로시간, GDP 대비 가족 지원 공공지출 비중, 여성권한척도 순위, 여성추정임금과의 관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동시간 정도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정도, 국가의 가족 지원 공공지출, 사회에서 여성의 의사결정 권한 정도와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남성의 무급 노동 참여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시간제 근로자 비율의 경우 30% 수준 정도까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증가시키면서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을 감소시키고 있었지만 전체 여성 중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국가에서는 오히려 여성의 무급 노동 시간이 증가하여 남성과의 무급노동시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우리 사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일-가족 양립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발굴하고자 하는 정책이 오히려 향후 성역할을 고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지적하였다. 한편 여성과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은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 출산율과 같은 개인들의 일상생활, 사회문제 등과도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무급 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증가하고 사회구성원들이 생각하는 삶에 대한 만족도 역시 증가하는 것을 보여 주었다.



제4장

국내 가사 노동 및 자녀 돌봄 시간 변화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기술 분석

제3절 연도별 변화 요인 분해 분석

제4절 시간 사용 분포별 요인 분해 분석



4

국내 가사 노동 및 자녀 돌봄 << 시간 변화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국내 자녀 양육 및 가사 노동 시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청 시간 활용 조사 1999, 2004, 2009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분석의 대상은 20~59세 “미취학 자녀” 혹은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혼 성인 남녀이다. 분석 대상자의 자녀 여부는 통계청이 제공하는 가구원 명부를 기준으로 확인하였다. 분석 대상의 표본의 특성은 <표 3-1>과 같다.

종속 변수인 “가정 관리” 시간은 통계청 정의에 따라 “음식 준비 및 정리(S41),” “의류관리(S42),” “청소 및 정리(S43),” “집 관리(S44),” “가정 관리 관련 물품 구입(S45),” “가정 경영(S46),” “기타 가사일(S49)”을 모두 합한 하루 평균 시간(분)으로 정의하였다. “자녀보살피기” 시간은 분석 대상이 미취학 자녀뿐만 아니라 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성인까지 포함되므로 통계청 기준인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S51),”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S52)”를 모두 합한 하루 평균 시간(분)으로 정의하였다.

자녀보살피기 시간은 다시 “신체 돌보기,” “공부봐주기 혹은 놀아주기,” “기타 아동 돌보기”로 세부적으로 구분 하였다. “신체적 돌보기”에는 미취학 자녀의 경우 “신체적 돌보기(S511)”와 취학 자녀의 경우 “씻기기, 등하교 도와주기(S521)”가 포함된다. “공부봐주기 혹은 놀아주기”에는 미취학 자녀의 “책 읽어 주기, 놀아주기(S512)”와 취학자녀의 “숙제 및 공부 봐주기(S522)”와 “선생님과 상담 및 학교 방문(S523)”이 포함된다. “기타 아동 돌보기”는 “기타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S519)”와 “기타 학생 보살피기(S529)”가 포함된다.

기술 분석에서는 1999~2009년 기간 동안 이루어진 전반적인 시간 활용에서의 변화를 살펴본 후 동 기간 동안 이루어진 가정 관리 시간과 자녀 돌봄 시간의 변화를 성별, 연령별, 세부 활동 영역별, 시간량 분위별로 비교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기혼 남녀의 가정 관리 시간과 자녀 보살피기 시간의 변화를 서구 복지 국가 레짐을 대표하는 국가인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미국과 비교한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한 이후에 나타난 가정 관리 시간과 자녀 돌봄 시간의 변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메카니즘을 심층 분석하기 위하여 2004~2009년 기간 동안 일어난 시간 변화에 대하여 두 가지 심층 분석을 수행하였다¹¹⁾. 첫째, Oaxaca-Blinder 분해 방법론 적용하여 자녀 돌봄 시간과 가정 관리 시간의 연도별 변화를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변화와 비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변화로 분해함으로써 이러한 시간 변화를 가져온 주된 요인을 파악하였다. 둘째, 가정 관리 및 자녀 돌봄 시간 사용량 분포에 따라 구조적인과 비구조적인 요인들이 어떠한 차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 파악하기 위하여 Juhn-Murphy-Pierce(1993)의 방법론과 무조건분위회귀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시간 사용량 분포에 따른 분석은 Oaxaca-Blinder 분해가 시간량의 평균에서 나타난 변화만을 파악하고 전체 시간 사용량 분포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파악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 절에서 논의한다.

11) 통계청 1999년 생활시간조사에서의 사회경제적 변수는 2004년 및 2009년도와는 차이가 있어 동일한 사회경제적 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는데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심층 분석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 이후의 시점인 2004~2009년도 기간 동안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표 4-1〉 분석 대상 표본의 특성

(단위: 표본수, %)

구분		1999년	2004년	2009년
전체		29,869 (100%)	19,896 (100%)	12,354 (100%)
성별	남성	14,267 (47.8)	9,489 (47.7)	5,974 (48.4)
	여성	15,602 (52.2)	10,407 (52.3)	6,380 (51.6)
연령	20대	3,268 (10.9)	1,229 (6.2)	605 (4.9)
	30대	14,399 (48.2)	9,149 (46.0)	5,034 (40.7)
	40대	10,598 (35.5)	8,770 (44.1)	5,962 (48.3)
	50대	1,604 (5.4)	748 (3.7)	753 (6.1)
미취학자녀 유무	있음	12,258 (41.0)	7,137 (35.9)	3,991 (32.3)
	없음	17,611 (59.0)	12,759 (64.1)	8,363 (67.7)
취학자녀 유무	있음	22,481 (75.3)	15,620 (78.5)	9,898 (80.1)
	없음	7,388 (24.7)	4,276 (21.5)	2,456 (19.9)
혼인관계	유배우	29,017 (97.2)	19,268 (96.8)	11,862 (96.0)
	이혼 혹은 사별	852 (2.8)	628 (3.2)	492 (4.0)
교육수준	고졸 미만	7,568 (25.3)	2,510 (12.6)	842 (6.8)
	고졸	15,857 (53.1)	15,532 (78.1)	6,396 (51.8)
	전문대졸 이상	6,444 (21.6)	1,854 (9.3)	5,116 (41.4)
경제활동	일을 했음	21,387 (71.6)	14,704 (73.9)	9,269 (75.0)
	일을 하지 않았음	8,482 (28.4)	5,192 (26.1)	3,085 (25.0)
시간제 근로	주당 40시간 미만	11,861 (39.7)	7,566 (38.0)	4,318 (35.0)
	주당 40시간 이상	18,008 (60.3)	12,330 (62.0)	8,036 (65.0)

구분		1999년	2004년	2009년
주택종류	단독주택	13,997 (46.9)	6,360 (32.0)	2,670 (21.6)
	아파트	11,164 (37.4)	10,581 (53.2)	7,801 (63.2)
	연립주택	2,848 (9.5)	1,706 (8.6)	698 (5.7)
	다세대주택	1,044 (3.5)	755 (3.8)	1,105 (8.9)
	기타	816 (2.7)	494 (2.4)	80 (0.6)
설문지응답한 날	평일	18,246 (61.1)	11,907 (59.9)	7,333 (59.4)
	토요일	5,841 (19.6)	3,997 (20.1)	2,544 (20.6)
	일요일	5,782 (19.3)	3,992 (20.0)	2,477 (20.0)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1999, 2004, 2009

제2절 기술 분석

1. 국내 시간 활용 분석 결과 (1999~2009)

가. 전반적인 시간 활용 변화

20~59세 기혼 유자녀의 하루 동안 시간 활용 현황을 1999~2009년간 동안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2>). 20~59세 기혼 유자녀 남성의 경우 가정 관리 시간과 자녀 보살피기 시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유지 시간과 이동 및 기타 행동에 보내는 시간도 1999~2009년 기간 동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활동들에 대한 시간이 증가한 대신 일 혹은 학습에 보내는 시간과 교제 및 여가에 보내는 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유지, 가정 관리, 자녀 돌보기 등에 해당하는 시간은 사적인 시간인 반면에, 일 혹은 학습과 교제 및 여가에

보내는 시간은 공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999~2009 기간 동안 성인 유자녀 남성의 시간 활용은 보다 개인적이고 가정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하루 동안 가정 관리 시간과 자녀 보살피기에 보내는 시간은 전체 시간 중에서 약 3% 내외를 차지하는 등 아직도 한국의 성인 유자녀 기혼 남성들은 상당히 적은 시간을 가정일과 자녀 돌보기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성의 경우 가정 관리 시간, 일 혹은 학습, 교제 및 여가 시간은 감소한 대신 개인 유지, 자녀 보살피기, 이동 및 기타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관리 시간이 감소한 것은 가전제품 및 외식 산업의 발달에 따라 여성들이 가정 관리를 위해 보내는 시간이 줄어든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정 관리 일을 성 역할 고정 관념의 시각에서 볼 때 여성에게 해당하는 "공적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한 시간을 감소하고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한 시간을 증가시켰다는 측면에서는 남성의 시간 활용 변화와 유사한 면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여성들은 공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일 혹은 학습 시간, 가정 관리 시간을 줄이는 대신 개인적인 개인 유지 시간과 자녀 돌봄에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의 역할로 간주하고 있는 가정 관리 시간과 자녀 돌봄을 합한 시간에 여성들이 보내는 시간 비중은 가정 관리 시간의 감소로 인해 1999~2009 기간 동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도 전체 하루 중의 약 20%에 해당하는 시간을 가정 관리와 자녀 돌봄을 합한 시간에 보내는 등 동 활동에 대한 여성의 역할은 아직도 큰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제활동여성과 비경제활동 여성으로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 역시 모

두 가정 관리 시간이 감소하고 자녀 돌보기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관리 시간의 감소와 자녀 돌보기 시간의 증가는 경제활동여성에 비해 가정생활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여력이 있는 비경제활동여성의 경우가 훨씬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종합컨대, 1999~2009년 기간 동안 개인적이고 가족 간의 생활을 중시 경향이 커짐에 따라 남성의 가정 관리 시간과 자녀 보살피기 시간은 모두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남성의 전체 시간 중 가사 및 양육에 할애하는 부분은 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의 경우 남성과 유사하게 자녀 돌봄에 대한 시간을 증가하였지만 가사 노동 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관리 시간의 감소와 자녀 돌봄 시간의 증가는 경제활동여성보다 비 경제활동 여성에게서 더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가정 생활에 대한 여성들의 시간 활용은 감소되었지만 여전히 하루 중 상당 부분의 시간을 가사와 양육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한국 성인의 생활 시간 분석 결과 (1999~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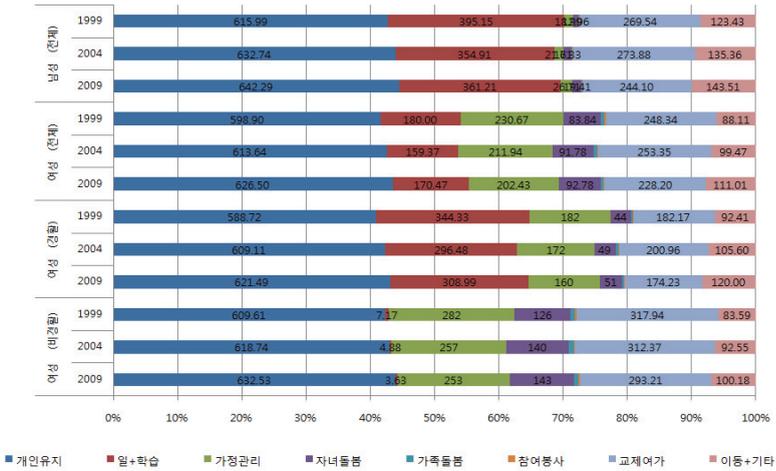
(단위: 분)

구분	연도	개인유지	일+학습	가정관리	자녀 보살피기	가족돌봄	참여봉사	교제여가	이동+기타
남성	1999	615.99	395.15	18.99	12.96	1.68	2.26	269.54	123.43
	2004	632.74	354.91	21.71	16.33	3.20	1.87	273.88	135.36
	2009	642.29	361.21	26.71	19.41	2.60	1.14	244.10	143.51
여성 (전체)	1999	598.90	180.00	230.67	83.84	7.51	2.61	248.34	88.11
	2004	613.64	159.37	211.94	91.78	7.99	2.48	253.35	99.47
	2009	626.50	170.47	202.43	92.78	7.28	1.84	228.20	111.01
여성 (경활)	1999	588.72	344.33	182.20	44.16	4.29	1.71	182.17	92.41
	2004	609.11	296.48	172.37	48.57	5.09	1.82	200.96	105.60
	2009	621.49	308.99	160.17	51.24	4.08	0.75	174.23	120.00
여성 (비경활)	1999	609.61	7.17	281.66	125.57	10.89	3.57	317.94	83.59
	2004	618.74	4.88	256.53	140.47	11.25	3.21	312.37	92.55
	2009	632.53	3.63	253.33	142.81	11.15	3.16	293.21	100.18

주: 분석 대상은 20~59세 “미취학 자녀” 혹은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혼 성인 남녀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1999, 2004,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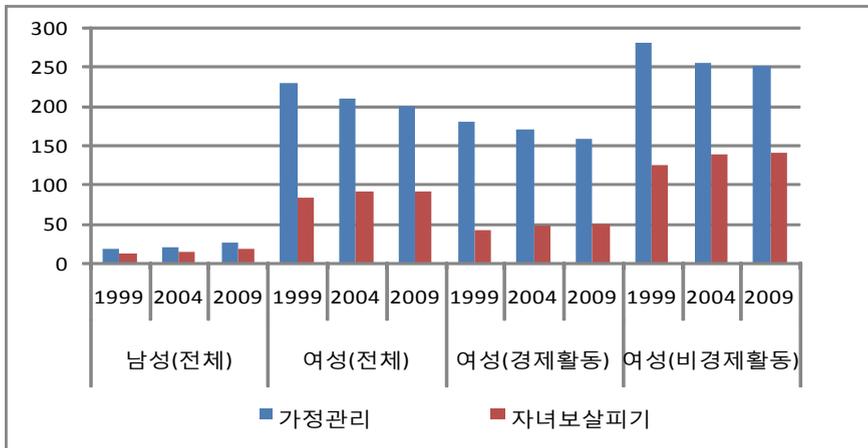
[그림 4-1] 한국 성인의 생활시간 분석 결과 (1999~2009년)

(단위: 분)



주: 분석 대상은 20~59세 “미취학 자녀” 혹은 “초·중·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기혼 성인 남녀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1999, 2004, 2009

[그림 4-2] 한국 성인의 가정 관리 및 자녀 보살피기 시간 분석 결과 (1999~2009년)



주: 분석 대상은 20~59세 “미취학 자녀” 혹은 “초·중·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기혼 성인 남녀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1999, 2004, 2009

나. 가정 관리 시간과 자녀 돌봄 시간 변화: 양성 격차

1999~2009년 기간 동안 일어난 가정 관리 시간과 자녀 돌봄 시간의 양성 격차의 변화 모습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3>). 동 기간 동안 가정 관리 시간은 남성의 경우 증가하고 여성의 경우 감소하여 시간 활용의 성별 격차가 상당 수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가정 관리 시간의 총 합에서 여성의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도 현재 88%로 1999년의 92%와 비교하여 크게 감소한 바가 없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1999~2009 기간 동안 거의 전체가 가정 관리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의 경우 1999년도 참여율 35%보다는 증가하였지만 2009년 현재 아직도 약 절반에 못 미치는 49%에 해당하는 남성들이 가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남성들의 가사 활동 행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가사 활동은 여성들의 책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다.

1999~2009년 기간 동안 자녀 돌봄 시간에 있어 남성은 가정 관리 시간의 증가량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시간의 증가를 보였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 자녀 돌봄 시간의 경우 약 9분의 증가를 보여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여성의 자녀 돌봄 시간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같은 기간 동안 가정 관리 시간이 29분 감소하여 현격한 변화를 보이는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사실은 과거 10년 기간 동안 가정 관리에 있어서는 여성의 역할에 큰 변화가 일어났으나 자녀 돌봄 역할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한다. 실제적으로 1999~2009 기간 동안 자녀 돌봄 시간에 있어 성별 차이는 71~73 분 내외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돌봄에 참여하는 남성의 비중은 21%에서 33%로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남성 자녀 돌봄 행위자 평균 시간

도 하루당 60분 내외로 10년 기간 전혀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가정 관리 보다 자녀 돌봄에 있어 보다 강한 성역할 관념이 존재하고 있고 한국 남성의 자녀 돌봄 참여율과 돌봄 시간은 약간의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그 증가 크기는 미비하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다.

〈표 4-3〉 한국 성인의 가정 관리 및 자녀 보살피기 양성 격차 분석 (1999~2009년)

(단위: 분)

	전체 평균 시간				참여율		행위자 평균 시간	
	남성	여성	성별차이	여성비중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가정 관리								
1999	19	231	212	92	35	99	56	233
2004	22	212	190	91	39	99	57	214
2009	27	202	176	88	49	99	58	205
자녀 돌봄								
1999	13	84	71	87	21	73	62	113
2004	16	92	75	85	27	77	59	118
2009	19	93	73	83	33	76	61	120

주: 분석 대상은 20~59세 “미취학 자녀” 혹은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혼 성인 남녀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1999, 2004, 2009

다. 가정 관리 시간과 자녀 돌봄 시간 변화: 연령별

한국 성인의 가정 관리 및 자녀 돌봄 시간의 변화를 연령별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4〉). 전반적으로 볼 때 연령 집단별 분석 결과는 전체 집단의 분석 결과와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연령대의 남성에게서 가정 관리 시간과 자녀 돌봄 시간이 증가하였으며, 역시 모든 연령대의 여성에게서 가정 관리 시간이 감소하고 자녀 돌봄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정 관리 시간은 경제 활동이 활발한 연령층에 해당하는 40대와 비교하여 20대와 30대가 더 큰 증가를 보였으며, 은퇴기에 있는 50대가 상대적으로 큰 증가를 보였다. 자녀 돌봄 시간

은 미취학 자녀를 양육할 가능성이 높은 20~30대에서 상대적으로 큰 증가를 보였다. 여성의 경우 가정 관리 시간은 자녀가 학령기에 해당하는 40~50대가 자녀 미취학기에 해당하는 20~30대 보다 상대적으로 큰 감소를 보였다. 자녀 돌봄 시간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미취학 자녀를 양육할 가능성이 높은 20~30대에서 높은 증가를 보였다.

하지만 이렇게 연령별로 상이한 시간량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정 관리와 자녀 보살피기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모든 20~40 연령대에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현재 가정 관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20~40대 연령대에서 89%, 자녀 돌봄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로 여전히 여성의 시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한국 성인의 가정 관리 및 자녀 보살피기 연령별 비교 분석 (1999~2009년)

(단위: 분)

	남성			여성			여성 비중		
	1999	2004	2009	1999	2004	2009	1999	2004	2009
가정관리									
20대	16	17	24	221	201	191	93	92	89
30대	17	20	25	228	207	202	93	91	89
40대	21	22	26	239	222	204	92	91	89
50대	25	30	35	246	229	209	91	88	86
자녀보살피기									
20대	38	34	52	181	203	213	83	85	80
30대	19	27	34	94	115	129	83	81	79
40대	4	7	10	23	30	41	84	81	80
50대	3	4	3	13	13	19	82	75	86

주: 분석 대상은 20~59세 “미취학 자녀” 혹은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혼 성인 남녀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1999, 2004, 2009

라. 가정 관리 시간과 자녀 돌봄 시간 변화: 세부 활동 영역별

분석 대상 성인의 가정 관리 시간과 자녀 보살피기 시간의 변화를 세부

활동 영역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5>). 남성의 경우 1999년도에 가정 관리 활동 중 전통적으로 남성의 일이라고 간주되고 있는 청소 및 정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09년에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로 간주되어 왔던 음식 준비 및 정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보살피기에 있어서도 1999년에는 남성들이 자녀 돌봄 역할에서 주로 수행해 왔던 공부 봐주기 (놀아주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9년에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로 간주되어 왔던 신체 돌보기에 대한 시간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세부 활동 영역별로 볼 때 남성들은 공부 봐주기 (놀아주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가정 관리 시간을 세부 활동별로 분석해 볼 때 과거 여성의 역할로 규정되어 왔으나 최근 외부 서비스 및 인력을 통해 대체가 용이해진 음식 준비 및 정리, 의류 관리, 청소 및 정리 순서로 큰 감소를 보였다. 자녀 보살피기 행동에 있어서 여성의 시간 증가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로 간주되는 신체적 돌보기에서 상대적으로 큰 증가가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전체 가정 관리 시간이나 자녀 보살피기 시간 증가의 크기 측면에서는 현격한 양성 격차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세부 활동 측면에서 엄격한 성역할 구분의 약화 경향이 감지되고 있음을 지적해 주고 있다. 이러한 성역할 구분의 약화 경향은 외부 서비스나 인력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여성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가정 관리 영역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부모 역할 대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자녀 돌봄에 있어서는 여전히 여성과 남성의 전통적인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10 저출산 정책 확대에 따른 자녀 양육 행태 변화 분석

〈표 4-5〉 한국 성인의 가정 관리 및 자녀 보살피기 세부 활동별 비교 분석 (1999~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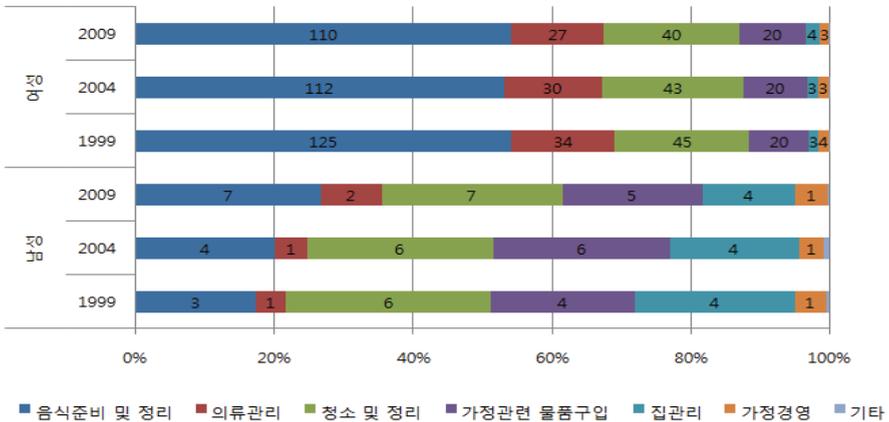
(단위: 분)

	남성			여성		
	1999	2004	2009	1999	2004	2009
가정관리	19	22	27	231	212	202
음식준비 및 정리	3	4	7	125	112	110
의류관리	1	1	2	34	30	27
청소 및 정리	6	6	7	45	43	40
가정관련 물품구입	4	6	5	20	20	20
집관리	4	4	4	3	3	4
가정경영	1	1	1	4	3	3
기타	0	0	0	0	0	0
자녀보살피기	13	16	19	84	92	93
신체돌보기	3	4	7	46	50	51
공부봐주기(놀아주기)	9	11	11	32	35	34
기타아동돌보기	1	1	2	6	7	8

주: 분석 대상은 20~59세 “미취학 자녀” 혹은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혼 성인 남녀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1999, 2004, 2009

[그림 4-3] 한국 성인의 가정 관리 시간 세부 활동별 비교 분석 (1999~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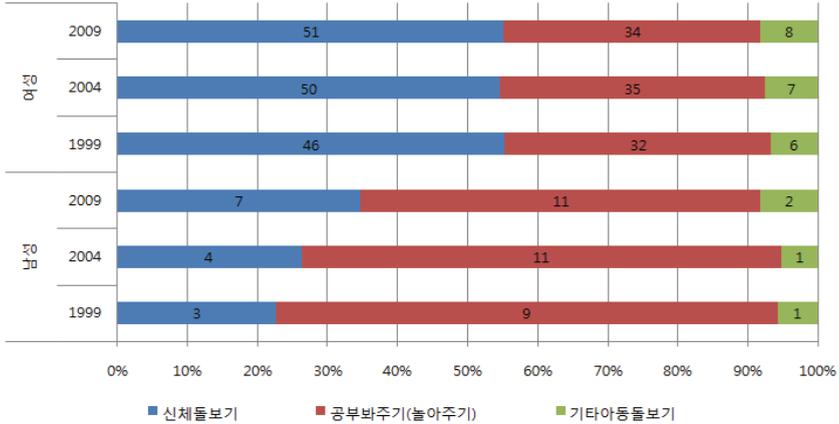
(단위: 분)



주: 분석 대상은 20~59세 “미취학 자녀” 혹은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혼 성인 남녀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1999, 2004, 2009

[그림 4-4] 한국 성인의 자녀 돌봄 시간 세부 활동별 비교 분석 (1999~2009년)

(단위: 분)



주: 분석 대상은 20~59세 “미취학 자녀” 혹은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혼 성인 남녀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1999, 2004, 2009

마. 가정 관리 시간과 자녀 돌봄 시간 변화: 시간량 분위별¹²⁾

한국 성인의 가정 관리 시간과 자녀 보살피기 시간의 연도별 변화를 시간량 분위별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6>). 대부분의 시간 변화는 시간 사용량이 적은 그룹 보다는 시간 사용량이 많은 그룹에서 현저하게 나타난 것으로 관찰되었다. 남성의 경우 시간 사용량이 적은 1분위(D1)와 1사분위(Q1)에서는 거의 아무런 변화가 없이 가정 관리 시간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포도에서 중위를 차지하는 그룹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런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 다만 시간 사용량이 높은 3사분위(Q3)에서 남성의 가정 관리 시간이 10분 증가하였으며, 이

12) 전체 시간 사용량 분포를 10분위로 구분한 경우 각 분위는 D1(1분위, 10%), D2(2분위, 20%), ..., D8(8분위, 80%), D9(9분위, 90%)로 표기하였으며, 4분위로 구분한 경우 각 분위는 Q1(1사분위, 25%), Q2(2사분위, 50%), Q3(3사분위, 75%)로 표기하였다.

보다도 시간 활용량이 많은 9분위(D9)에서는 약 30분의 시간 증가가 관찰되었다. 자녀 보살피기 시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시간량이 적은 1분위(D1)와 1사분위(Q1)에서는 아무런 변화없이 자녀 돌봄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시 시간 사용량 분포도의 중위를 차지하는 그룹에서도 아무런 변화없이 자녀 돌봄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3사분위(Q3)와 9분위(D9)에서는 모두 20분의 자녀 돌봄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남성의 경우 시간 사용량이 많은 그룹에서 가정 관리 시간과 자녀 돌봄 시간이 상대적으로 높게 증가하였으며, 시간 사용량이 많은 그룹에서의 변화 크기는 자녀 돌봄 보다는 가정 관리 시간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다.

여성들도 남성들과 유사하게 시간 사용량이 많은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큰 시간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화는 가정 관리 시간 보다는 자녀 보살피기 시간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여성들의 가정 관리 시간은 시간량이 큰 집단일수록 감소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관리 시간량의 감소는 1분위(D1)의 경우 10분, 1사분위(Q1)는 20분, 중위 집단은 30분, 3사분위(Q3)는 40분, 9분위(D9)는 50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보살피기 시간 역시 시간량이 큰 집단에게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분위별 시간 변화 크기는 가정 관리 시간 보다 크지 않았다. 1분위(D1)에서는 자녀 돌봄 시간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1사분위(Q1), 중위 집단, 3사분위(Q3)에서는 10분 증가하였고 9분위(D9)에서는 20분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시간량 분포에 따른 변화에서도 역시 여성의 가정 관리 시간이 자녀 돌봄 시간 보다는 큰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시간량 분포도에 따른 여성의 자녀 돌봄 시간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4-6) 한국 성인의 가정 관리 및 자녀 보살피기 시간 분위별 비교 분석 (1999~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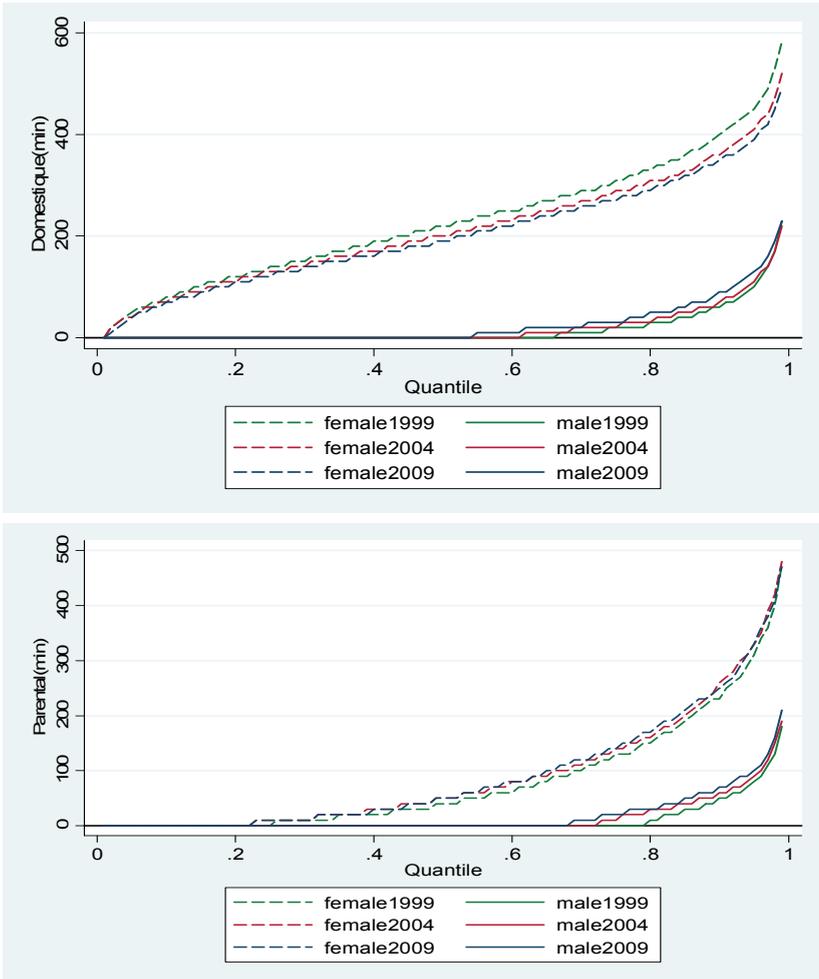
(단위: 분)

	남성			여성		
	1999	2004	2009	1999	2004	2009
가정관리						
D1	0	0	0	80	70	70
Q1	0	0	0	140	130	120
Median	0	0	0	220	200	190
Q3	20	20	30	310	290	270
D9	60	70	90	400	360	350
S.D.	45.35	46.29	49.13	124.76	112.98	108.70
자녀보살피기						
D1	0	0	0	0	0	0
Q1	0	0	0	0	10	10
Median	0	0	0	40	50	50
Q3	0	10	20	130	140	140
D9	50	60	70	230	260	250
S.D.	36.96	38.33	43.13	109.07	112.47	111.16

주: 분석 대상은 20~59세 “미취학 자녀” 혹은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혼 성인 남녀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1999, 2004, 2009

가정 관리 시간과 자녀 돌봄 시간량 분포에 따른 연도별 변화는 [그림 4-5]에서 잘 반영되어 있다. 가정 관리 시간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여성은 그래프가 우하향하였으며 그래프간의 격차는 시간량 분위가 높은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모든 분위에서 가정 관리 시간이 감소하였으며 그 감소 크기는 가정 관리에 높은 시간을 보내는 그룹에서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의 경우는 반대로 그래프가 좌상향으로 변화하고 그래프간 격차는 시간량이 높은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여성과 달리 가정 관리 시간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크기는 가정 관리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자녀 돌봄 시간 그래프는 남성과 여성 모두 별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동 기간 동안 자녀 돌봄 시간 변화가 전반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돌봄 시간량 분포별로도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5] 한국 성인의 가정 관리 및 자녀 보살피기 시간 분위별 비교 분석 (1999~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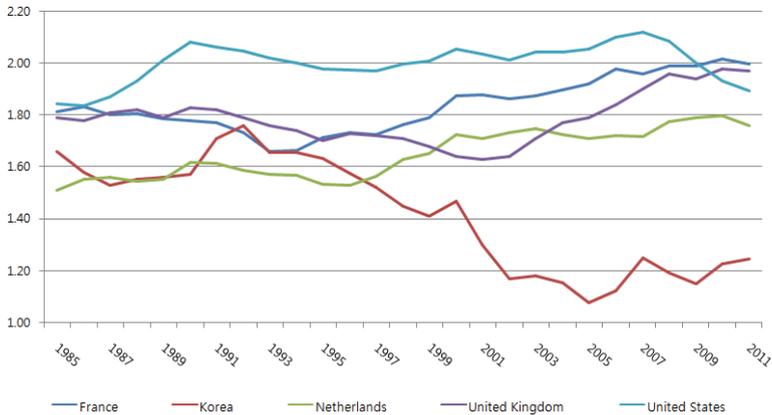


주: 분석 대상은 20~59세 “미취학 자녀” 혹은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혼 성인 남녀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1999, 2004, 2009

2. 주요 국가의 현황과 비교 분석

본 절에서는 앞서 분석한 우리나라 성인 유자녀 기혼 남녀의 가정관리 시간과 자녀 보살피기 시간의 연도별 변화를 1985년 이후 최근까지의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미국에서 나타난 변화 분석 결과와 비교한다. 네 국가의 시간 활용 변화 분석 결과는 Champagne, Pailhé와 Solaz (2014)의 분석 결과를 참고하였다.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미국은 2011년 현재 약 1.8명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이다(그림 4-6).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가 가능한 1999~2009년 기간은 합계 출산율이 1.41명에서 1.15명으로 급속하게 하락한 시점이다. 따라서 유럽 국가의 출산율 회복 기간에 이루어진 가사 노동 시간과 자녀 돌봄 시간에서의 변화를 우리나라 현황과 비교함으로써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림 4-6] 비교 대상 국가의 합계 출산율 추이(1985~2011)



자료: OECD(2014b), OECD Family database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미국 네 국가 모두 1985년 이래 출산율이 회복되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복지 국가 레짐과 노동 시장 현황 그리고 양성 평등 지수에서는 차이가 있다 (<표 4-7>). 프랑스는 대륙 유럽 국가의 복지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전통적인 가족주의에 기반하여 발달한 가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이다. 네덜란드는 사회주의 복지 레짐에 해당하는 국가로서 양성 평등성이 높은 국가이다. 영국과 미국은 자유주의 레짐에 해당하는 국가로서 국가에 의한 공공 서비스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GDP 대비 가족 정책의 공공 지출 비중은 프랑스와 영국이 약 4%로 가장 높으며 네덜란드도 약 2.5%에 달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과 우리나라는 약 1% 내외로 매우 낮은 지출 비중을 보이고 있다. 0~2세 보육시설 이용율은 사회주의 복지 레짐을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에서 60.6%로 가장 높고 가족주의가 발달한 프랑스의 경우 48%로 상대적으로 낮다. 보육 서비스가 주로 민간 시장에 의해 공급되는 영국과 미국의 경우 보육 시설 이용율은 각각 42%와 43.2%로 상대적으로 낮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육료 지원 확대로 인해 0~2세 보육 서비스 이용율은 2010년 현재 50.5%로 비교 대상 국가 중 네덜란드 다음으로 높다. 산전후 휴가 기간과 육아 휴직 기간을 합한 기간은 가족주의가 발달한 프랑스에서 159주로 가장 높다. 영국과 한국은 약 65주, 네덜란드는 42주, 국가 차원에서 육아휴직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미국의 경우 12주로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아버지 출산 휴가에 해당하는 부성 휴가 기간은 프랑스와 영국에서 각각 2주간인데 반해 한국과 네덜란드는 0.4주이다. 미국은 부성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과 연간 평균 근로 시간은 한국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미국이 높다. 근로 시간이 높은 두 국가의 특징은 모두 시간제 근로 비중이 낮다는 것이며 한국의 경우 10.2%, 미국의 경우 13.4%이다.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30.5 시간으로 가장 낮은 네덜란드에서는 시간제 근로 비중이 37.8%로 가장 높다. 주당 근로 시간이 36.4 시간인 영국에서도 시간제 근로 비중은 24.9%로 높은 수준이다. 프랑스의 경우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은 38 시간으로 전체 시간제 근로 비중은 13.8%로서 네덜란드와 영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세계 양성 격차 지수 순위는 북구 유럽 국가에 해당하는 네덜란드가 11위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영국, 미국 순서이며 프랑스는 57위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높지 않으며 한국은 108위로 가장 낮다.

〈표 4-7〉 비교 대상 국가의 주요 특징

(단위: 명, %, 주, 시간)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미국	한국
출산율 (2011)	2.00	1.76	1.97	1.89	1.24
가족 정책 현황					
0~2세 보육시설 이용률 (2010)	48.0	60.6	42.0	43.2	50.5
GDP 대비 가족 정책 공공 지출 비중 (2009)	3.98	2.48	4.22	1.22	1.01
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기간 (2011)	159	42	65	12	64.8
부성휴가기간 (2011)	2	0.4	2	0	0.4
노동 시장 현황					
주당 평균 근로시간 (2011)	38.0	30.5	36.4	-	44.6
연간 평균 근로시간 (2012)	1,479	1,381	1,654	1,790	2,090
15~64세 여성 노동 시장 참여율 (2012)	66.7	73.3	71	67.6	55.2
시간제 근로 비중 (2012)	13.8	37.8	24.9	13.4	10.2
세계 양성격차 지수 순위 (2011)	57	11	18	22	108

자료: OECD Family database(2014), OECD Employment database(2014), World Economic Forum (2012).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미국의 가정 관리 시간과 자녀 돌봄 시간의 분석 결과는 모두 우리나라의 생활시간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한 시간활용조사 자료를 분석한 내용이다. 이들 국가의 분석 대상은

18~60세 성인 남녀로서 특히 자녀 돌봄 시간은 18세 미만의 자녀 한명 이상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생활 시간조사의 분석 대상은 20~59세 “미취학 자녀” 혹은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혼 성인 남녀로서 하였으며, 기혼자를 조건으로 하였다는 면에서 외국의 분석 대상과 차이가 있다¹³⁾. OECD Family database(2014)가 지적한 바와 같이 시간에 대한 정의와 개념은 각 국가의 문화적인 차별성으로 인하여 국가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각 국가의 생활시간조사의 자녀 돌봄 활동과 가사 노동 시간에 해당하는 세부 항목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¹⁴⁾. 따라서 본 절에서 제시하는 국가 간 시간활용 분석 결과를 비교할 경우 이러한 한계점을 감안하여 볼 필요가 있다.

가정 관리 시간 분석 결과를 보면 1985년 시기부터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영국의 남성들은 이미 80% 이상에 해당하는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전체 평균 시간도 상당 수준 높아졌다. 1985~2000년대 기간 동안 여성들이 보인 가사 노동 시간의 감소 경향이 남성들에게서도 발견되고 있다. 가정 관리 시간에서의 여성 비중도 동 기간 동안에 감소하여 2000년대에 와서 전체 가사 노동 시간 중 약 65% 내외 만을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어 가사 노동에서의 양성 평등 정도 수준이 높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사 노동에서의 양성 평등 향상은 네 국가에서 1985년 이후부터 보인 가정 관리 시간에서의 성별 격차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가정 관리 시간

13)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혼의 개념이 엄격한 반면에 비교 대상 외국 국가에서는 동거혼 등이 일반화되어 있어 혼인 여부에 따른 차이는 시간량 분석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14) 예를 들면 프랑스의 시간활용조사의 자녀돌봄활동에는 “자녀와 관련된 이동”도 포함되지 만 우리나라의 생활시간조사는 “가족보살피기 관련 이동”에 자녀와 관련된 이동을 포함하여 함께 조사하고 있다. “가족보살피기 관련 이동”에서 자녀와 관련된 이동 시간을 따로 파악할 수 없어 본 연구에는 자녀 관련 이동을 자녀 보살피기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결과 국내 자녀 보살피기 시간은 프랑스와 비교하여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의 성별 격차는 프랑스가 142분에서 76분으로, 네덜란드는 131분에서 87분, 미국은 95분에서 64분, 영국은 146분에서 84분으로 감소하였다.

우리나라는 1999~2009년 10년 기간 동안 가정 관리 시간의 성별 차이가 212분에서 176분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남성의 하루 평균 가정 관리 시간이 27분으로 절대적인 시간량에서 비교 대상 유럽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여성 비중은 92~88% 수준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남성 가정 관리 활동 참여율은 35%에서 49%로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50% 미만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유럽 국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표 4-8〉 성인의 가정 관리 시간 변화 추이 국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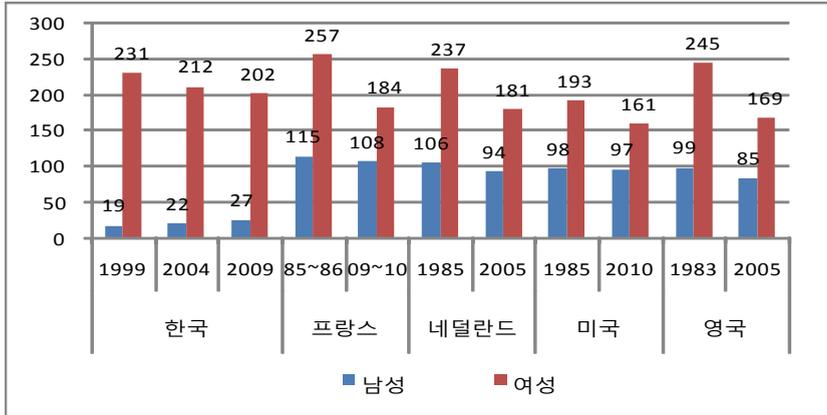
(단위: 분, %)

	전체 평균 시간				참여율		행위자 평균 시간	
	남성	여성	성별차이	여성비중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한국								
1999	19	231	212	92	35	99	56	233
2004	22	212	190	91	39	99	57	214
2009	27	202	176	88	49	99	58	205
프랑스								
85~86	115	257	142	69	88	99	130	259
09~10	108	184	76	63	75	93	145	199
네덜란드								
1985	106	237	131	69	97	100	110	238
2005	94	181	87	66	97	100	97	182
미국								
1985	98	193	95	66	79	94	125	204
2010	97	161	64	62	77	90	126	178
영국								
1983	99	245	146	71	80	96	123	256
2005	85	169	84	67	74	91	115	184

자료: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영국 자료는 Champagne, Pailhé, and Solaz (2014) 참조; 한국 자료는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1999, 2004, 2009 분석 결과

[그림 4-7] 성인의 가정 관리 시간 변화 추이 국제 비교

(단위: 분)



자료: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영국 자료는 Champagne, Pailhé, and Solaz (2014) 참조; 한국 자료는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1999, 2004, 2009 분석 결과

자녀 돌봄을 위한 절대적인 시간은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영국 모든 국가에서 남녀 모두 증가하였으며, 전체 자녀 돌봄 시간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다는 면에서 네 국가는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 네 국가는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가에 의한 보육 서비스가 발달한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자녀 돌봄 시간이 남녀 모두 미국과 영국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돌봄 참여율 증가를 볼 때 남성 참여율의 증가는 사회주의 복지레짐을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에서 17% 포인트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참여율도 10% 포인트 증가를 보였다. 프랑스와 영국에서 남성 참여율은 20년 기간 동안 각각 4% 포인트와 2% 포인트의 증가만을 보였으며, 이들 국가에서 여성의 자녀 돌봄 시간 참여율은 각각 2% 포인트와 3%포인트 감소하였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2009~10년 기간 동안 남성의 자녀 돌봄 시간이 29분으로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데도 불구하고 있어 자녀 돌봄

시간의 양성 격차가 37분으로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프랑스 남성의 자녀 돌봄 시간이 적은데도 돌봄 시간에서의 양성 격차가 적은 이유는 프랑스 여성들의 평균 자녀 돌봄 시간이 66분으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자녀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남성 비중은 2009~10년 현재 35%로서 우리나라 2009년도 남성 자녀 돌봄 참여 비중인 33%와 비교하여 크게 높지 않으며, 프랑스 여성의 자녀 돌봄 참여 비중도 55%로서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이러한 사실은 강한 가족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자녀 돌봄에 있어서 성역할 관념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 남성들의 자녀 돌봄 시간이나 참여율 정도가 낮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 시간과 참여율에 있어서 양성 격차가 낮은 이유는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는 자녀 돌봄 지원 체계가 확립되어 있어 국가 지원 정책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Letablier(2013)가 지적하였듯이, 자녀 양육에 있어 프랑스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낮은 헌신("commitment") 정도가 이러한 결과를 낳았을 가능성이 크다¹⁵⁾. 실제로 자녀 양육에 있어서 헌신의 정도가 큰 북구 유럽 국가 중의 하나인 네덜란드는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는 자녀 양육 지원 체계가 상당 수준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자녀 돌봄에 쏟는 시간과 참여율은 프랑스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영국과 유사하게 자녀 돌봄 시간이 증가하였다는 면에서는 유사하다. 하지만, 남성의 평균 자녀 돌봄 시간이 네 국가와 비교하여 볼 때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자녀 돌봄 시

15) Letablier(2013)는 북구 유럽 국가의 여성들이 자녀 양육에 대해 높은 헌신 정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프랑스 여성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헌신 정도가 낮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북구 유럽 국가에서 모유 수유율이 높은 반면에 프랑스에서의 모유 수유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

간의 성별 격차가 여전히 크고 과거 10년 동안 별달리 감소하지 않았으며, 남성의 참여율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사실에서 네 국가와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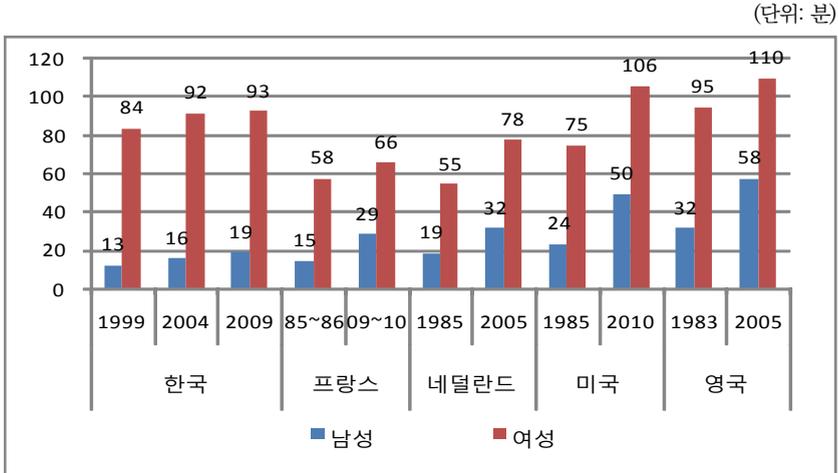
〈표 4-9〉 성인의 자녀 돌봄 시간 변화 추이 국제 비교

(단위: 분, %)

	전체 평균 시간				참여율		행위자 평균 시간	
	남성	여성	성별차이	여성비중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한국								
1999	13	84	71	87	21	73	62	113
2004	16	92	75	85	27	77	59	118
2009	19	93	73	83	33	76	61	120
프랑스								
85~86	15	58	43	79	31	57	48	103
09~10	29	66	37	69	35	55	80	121
네덜란드								
1985	19	55	36	74	57	76	33	73
2005	32	78	46	71	74	86	44	90
미국								
1985	24	75	51	76	34	66	68	113
2010	50	106	56	68	46	69	109	153
영국								
1983	32	95	63	75	43	73	76	130
2005	58	110	52	65	45	70	130	157

자료: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영국 자료는 Champagne, Pailhé, and Solaz (2014) 참조; 한국 자료는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1999, 2004, 2009 분석 결과

[그림 4-8] 성인의 자녀 돌봄 시간 변화 추이 국제 비교



자료: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영국 자료는 Champagne, Pailhé, and Solaz (2014) 참조; 한국 자료는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1999, 2004, 2009 분석 결과

제3절 연도별 변화 요인 분해 분석

1. 분석 개요

앞 절에서는 기술적인 분석을 통하여 1999~2009년 기간 동안에 나타난 20~59세 유자녀 기혼 성인 남녀의 자녀 돌봄 시간과 가사 노동 시간의 시계열 변화를 고찰하였다. 본 절에서는 자녀 돌봄 시간과 노동 시간의 시계열 변화를 가져온 요인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시간 변화에 내재되어 있는 메커니즘을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 방법으로서 노동 경제학에서 양성 간의 임금 격차를 구조적인 요인과 비구조적인 요인으로 분해하는 Oaxaca-Blinder 분해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Fortin, Lemieux, and Firpo, 2011).

자녀 돌봄 시간이나 가정 관리 시간의 연도별 차이를 가져온 요인은 교육 수준의 증가, 여성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소득 수준의 향상 등 설명될 수 있는 “구조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인식과 문화의 변화 등 설명될 수 없는 “비구조적인 요인”도 중요한 영향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녀 돌봄 시간과 가정 관리 시간의 변화에는 고정된 성역할 관념을 포함한 문화와 인식의 변화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Oaxaca-Blinder 분해 방법론을 활용하여 국내 성인 남녀의 자녀 돌봄 시간과 가정 관리 시간의 연도별 변화를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변화와 비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변화로 분해함으로써 이러한 시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Oaxaca-Blinder 모형은 전통적인 선형 회귀 모형을 기초로 하고 있다.

$$T_{2009, i} = \beta_{2009, i} X_{009, i} + U_{2009, i}$$

where $T_{2009, i}$: 개인 i 의 2009년 가정관리(자녀 돌봄) 시간

$X_{2009, i}$: 구조적인 요인의 벡터

β_i : 회귀 모형에 의해 추정된 계수의 벡터

2004년도와 2009년도 기간 사이의 가사(자녀 돌봄) 시간의 격차는 다음과 같은 모형으로 추정될 수 있다.

$$T_{2009} - T_{2004} = \beta_{2004} (\bar{X}_{2009} - \bar{X}_{2004})' + \bar{X}'_{2009} (\beta_{2009} - \beta_{2004})$$

$\beta_{2004} (\bar{X}_{2009} - \bar{X}_{2004})'$ 부분은 2004년과 2009년 사이의 시간 격차를 구조적인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며, $\bar{X}'_{2009} (\beta_{2009} - \beta_{2004})$ 는 구

조적인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 즉 관념이나 행태 등 비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구조적인 요인을 구성하는 각 변수 j 로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beta_{j, 2004}(X_{2009, j} - X_{2004, j})$ 는 구조적인 요인 변수 j 가 시간 사용 격차의 설명될 수 있는 부분에 기여한 정도를 나타낸다.

$$\beta_{j, 2004}(X_{2009} - X_{2004}) = \sum \beta_{j, 2004}(X_{2009, j} - X_{2004, j})$$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X'_{2009}(\beta_{2009} - \beta_{2004}) = (\beta_{2009, 0} - \beta_{2004, 0}) + \sum X_{2009, j}(\beta_{2009, j} - \beta_{2004, j})$$

$\sum X_{2009, j}(\beta_{2009, j} - \beta_{2004, j})$ 에서 $X'_{2009, j}\beta_{2009, j}$ 는 2009년도에 2009년도의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자녀 돌봄 시간(가정관리시간)에 보내는 시간이다. 반면에 $X'_{2009, j}\beta_{2004, j}$ 는 2004년도에 2009년도의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2004년도에 자녀 돌봄(가정관리시간)에 보내는 시간이다. 2004년도에 2009년도의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2009년도와 똑같은 돌봄 시간(가사노동시간)의 결과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만일 $X'_{2009, j}\beta_{2009, j}$ 와 $X'_{2009, j}\beta_{2004, j}$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구조적인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beta_{2009, 0} - \beta_{2004, 0}$ 는 상수로서 더미 변수의 기준 변수가 설명되지 않는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종합컨대 2004년도와 2009년도의 자녀 돌봄(가정 관리 시간)의 격차는 다음과 같은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본 절에서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동 모형을 추정하고자 한다.

$$T_{2009} - T_{2004} = (\beta_{2009,0} - \beta_{2004,0}) + \sum \beta_{j,2004} (\bar{X}_{2009,j} - \bar{X}_{2004,j}) + \sum \bar{X}_{2009,j} (\beta_{2009,j} - \beta_{2004,j})$$

2. 표본 및 변수의 정의

분석 대상은 기술 분석 대상과 동일한 20~59세 “미취학 자녀” 혹은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혼 성인 남녀로 하였다. 동 분석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 이후의 시점인 2004년~2009년 동안의 시간 사용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¹⁶⁾.

2004년~2009년 동안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2004년 자료와 2009년 자료와 병합(append) 하였다. 2004년에 63,272케이스, 2009년에 40,530 케이스 중에서 자녀가 있고 결혼한 경우인 2004년 19,896, 2009년 12,354 케이스를 동 표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종속 변수의 “가정 관리”시간과 “자녀 보살 피기”시간은 기술 분석에서와 동일하게 정의하였다. 남성의 경우 가정 관리와 자녀 보살피기에 전혀 참가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샘플의 특성으로 인해 시간 사용량이 0인 표본까지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 모형이 제대로 추정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¹⁷⁾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분석에서는 종속 변수를 다음의 세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모형의 추정하였다. 첫 번째 모형에는 종속 변수를 가정 관리 (혹은 자녀 보살피기)에 참여하는 경우 1, 참여하지 않는 경우 0으로 한 참여 여부를 분해하였다. 두 번째 모형에서는 가정 관리 (혹은 자녀 보살피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시간량에

16) 한편, 2004~2009년의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는 가정 관리 시간과 자녀 돌봄 시간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서 변화를 유도한 요인들은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17) 남성의 가정관리와 자녀돌봄 참여율은 각각 2004년 39%, 27%, 2009년 49%, 33%로 나타났다.

로그를 취하여 퍼센티지 변화를 분해하였다. 세 번째 모형에서는 가정 관리 (혹은 자녀 보살피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석 대상에 포함하여 2004년과 2009년의 시간량 차이를 분해하였다.

〈표 4-10〉 Oaxaca-Blinder 분해 분석: 표본 및 분석 대상

연도	표본수(명)	비중(%)
(원자료)		
2004	63,272	60.95
2009	40,530	39.05
총계	103,802	100
(분석대상)		
2004	19,896	61.69
2009	12,354	38.31
총계	32,250	100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4, 2009

분석 모형에 사용한 독립 변수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 (혼인관계, 자녀 유무, 연령, 교육 수준), 경제활동 특성 (경제활동여부, 직업, 근로시간), 소득 (소득 수준, 거주지역, 주택 종류), 외부 서비스 이용 여부 (의류수선 세탁서비스 받기), 60세 이상 동거 여부이다 (〈표 4-11〉).

〈표 4-11〉 Oaxaca-Blinder 분해 분석: 독립 변수

독립 변수	한국 생활시간 조사	
	2004	2009
혼인 관계	① 유배우 ② 사별 혹은 이혼	① 배우자 있음 ② 사별 혹은 이혼
미취학자녀유무	① 있음 (1) ② 없음 (0)	① 있음 (1) ② 없음 (0)
취학자녀유무	① 있음 (1) ② 없음 (0)	① 있음 (1) ② 없음 (0)
본인 연령	본인 연령 값 (연속변수)	본인 연령 값 (연속변수)
본인 연령 ²	본인 연령 값의 제곱 (연속변수)	본인 연령 값의 제곱 (연속변수)

128 저출산 정책 확대에 따른 자녀 양육 행태 변화 분석

독립 변수	한국 생활시간 조사	
	2004	2009
교육 수준	① 고졸 미만 ② 고졸 ③ 전문대졸 이상	① 고졸 미만 ② 고졸 ③ 전문대졸 이상
경제활동여부 및 직업	① 일을 하지 않았음 ② 일을 했음*전문직 ③ 일을 했음*사무직 ④ 일을 했음*판매 서비스 ⑤ 일을 했음*기타	① 일을 하지 않았음 ② 일을 했음*전문직 ③ 일을 했음*사무직 ④ 일을 했음*판매 서비스 ⑤ 일을 했음*기타
근로 시간	근로 시간 값 (연속변수)	근로 시간 값 (연속변수)
소득 수준	① 없음 ② 50만원 미만 ③ 50만원~100만원 미만 ④ 100만원~150만원 ⑤ 150만원~200만원 ⑥ 200만원~250만원 ⑦ 250만원~300만원 ⑧ 300만원~350만원 ⑨ 350만원~400만원 ⑩ 400만원~500만원 ⑪ 500만원 이상	① 없음 ② 50만원 미만 ③ 50만원~100만원 미만 ④ 100만원~150만원 ⑤ 150만원~200만원 ⑥ 200만원~250만원 ⑦ 250만원~300만원 ⑧ 300만원~350만원 ⑨ 350만원~400만원 ⑩ 400만원~500만원 ⑪ 500만원 이상
거주 지역	① 비농가 (1) ② 농가 (0)	① 비농가 (1) ② 농가 (0)
주택종류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 ④ 다세대주택 ⑤ 기타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 ④ 다세대주택 ⑤ 기타
설문지 응답한 날	① 평일 ② 토요일 ③ 일요일	① 평일 ② 토요일 ③ 일요일
의류수선세탁서비스 받기	① 서비스 받은 시간 > 0 (1) ② 서비스 받은 시간 =< 0 (0)	① 서비스 받은 시간 > 0 (1) ② 서비스 받은 시간 =< 0 (0)
60세 이상 동거 남성 수	60세 이상 동거 남성 수 (연속 변수)	60세 이상 동거 남성 수 (연속 변수)
60세 이상 동거 여성 수	60세 이상 동거 여성 수 (연속 변수)	60세 이상 동거 여성 수 (연속 변수)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4, 2009

3. 주요 결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 이후인 2004~2009년 사이에 발생한 가정관리 시간과 돌봄 시간의 변화를 구조조적 요인과 비구조적인 요인으로 분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정관리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자. 여성은 가정관리 시간의 참여율에서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단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 간에는 가정관리 시간이 약 4%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약 7.3분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조사에 참여한 여성들과 2009년 조사에 참여한 여성들간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약 4.2분 정도의 감소이다. 나머지 약 3.1분의 감소는 관측되는 특성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 예컨대 의식의 변화에 의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남성들은 2004~2009년 기간 동안 가정 관리 시간 참여율, 참여한 사람들의 시간량, 전체 남성들의 가정 관리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가정 관리 참여율은 2004년 39.2%에서 2009년 48.5%로 9.3%p 정도 증가하였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가정 관리 일에 참여한 남성들의 경우 동기간 동안 가정 관리 시간량은 약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참여율과 참여한 남성들의 시간량 변화로 인하여 전체 남성들의 가정 관리 시간은 동 기간 동안 약 7.8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의 가정 관리 시간의 변화는 인구학적 특성 등 구조적인 요인의 변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인식과 관념의 변화인 비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4~2009년 기간 동안 이루어진 남성들의 가정 관리 활동 참여율 9.3%p 증가분 중에서 남성들의 구조적인 특성변화에 따

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0과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부호는 음(-)으로서 가사 관리에 참여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하였다. 남은 부분인 9.9%p는 관측된 특성 변수로는 설명되지 않는 비구조적인 변화에 의해서 발생한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관리 활동에 참여한 남성들의 가사 노동 시간 증가분 9.4% 중에서 9.0%가 비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변화분이며, 단지 0.4%가 남성들의 구조적인 특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Oaxaca-Blinder 분해 분석 결과: 가정 관리 시간 (2004~2009)

	모형 1: 참가율		모형 2: log(시간량)		모형 3: 시간량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09년	0.989***	0.485***	5.159***	3.704***	205.3***	29.90***
	[0.00129]	[0.00647]	[0.00842]	[0.0171]	[1.373]	[0.686]
2004년	0.989***	0.392***	5.200***	3.610***	212.6***	22.07***
	[0.00100]	[0.00501]	[0.00642]	[0.0149]	[1.110]	[0.476]
차이	-8.85E-05	0.0931***	-0.0412***	0.0940***	-7.296***	7.836***
	[0.00163]	[0.00818]	[0.0106]	[0.0227]	[1.766]	[0.835]
구조적인 요인	-0.00119	-0.0057	-0.0257***	0.00398	-4.169***	-0.152
	[0.000828]	[0.00474]	[0.00655]	[0.0144]	[1.090]	[0.527]
비구조적인 요인	0.0011	0.0988***	-0.0155	0.0900***	-3.127*	7.988***
	[0.00179]	[0.00925]	[0.0102]	[0.0258]	[1.702]	[0.905]
표본수	16,787	15,463	16,609	6,618	16,787	15,463

주: 1) 각 모형의 종속 변수는 다음과 같다: 모형 1에서 참가한 사람은 1,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0, 모형 2는 참여한 사람들의 시간량, 모형 3은 전체 표본의 시간량

2) []은 표본오차, *** p<0.01, ** p<0.05, * p<0.1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4, 2009

자녀 돌봄 시간의 경우에서도 역시 남성들은 참여율, 참여한 사람들의 돌봄 시간, 전체 남성들의 돌봄 시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여성들은 참가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자녀 돌봄에 참여한 여성들의 돌봄 시간량과 전체 여성들의 돌봄

시간량은 모두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의 경우 참여율의 증가와 참여한 사람들의 시간량 증가 모두 비구조적인 요인이 변화의 대부분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도 역시 자녀 돌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시간량 증가는 비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비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변화가 유의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서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대부분의 돌봄 시간 변화는 관념이나 인식 등 비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부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성의 경우 자녀 돌봄에 참여하는 비중이 2004년도 26.8%에서 33.2%로 약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 중 약 7.4%에 해당하는 부분이 인식과 관습 등 비구조적인 영향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겨우 약 -0.9%가 남성들의 구조적인 특성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돌봄에 참여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모형 2에서 2004~2009년 기간 동안 자녀 돌봄에 참여한 남성들은 약 돌봄 시간량에서 약 7.8%의 증가를 보였다. 이러한 증가분 중 6.0%가 비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변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시간에 참여한 여성들은 동 기간 동안 약 7.4%의 돌봄 시간량 증가를 보였는데 이러한 변화량 중 13%가 인식과 관념 등 비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변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돌봄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시킨 모형 3에서 남성들은 약 6분에 해당하는 돌봄 시간 증가를 보였으며 이러한 변화량 중에서 약 5.9분이 비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변화이며, 0.1분만이 남성들의 구조적인 특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경우 약 4.2분의 돌봄 시간 증가를 보였는데 이러한 증가 시간 중 약 9.3분이 비구조적인 요인에

132 저출산 정책 확대에 따른 자녀 양육 행태 변화 분석

다른 변화이며, 약 5분만이 여성들의 특성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변화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Oaxaca-Blinder 분해 분석 결과: 자녀 돌봄 시간 (2004~2009)

	모형 1: 참가율		모형 2: log(시간량)		모형 3: 시간량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09년	0.760***	0.332***	4.273***	3.779***	90.55***	21.20***
	[0.00535]	[0.00610]	[0.0158]	[0.0199]	[1.381]	[0.592]
2004년	0.765***	0.268***	4.199***	3.701***	86.35***	15.18***
	[0.00416]	[0.00455]	[0.0124]	[0.0165]	[1.066]	[0.374]
차이	-0.00478	0.0648***	0.0736***	0.0778***	4.205**	6.025***
	[0.00677]	[0.00760]	[0.0201]	[0.0258]	[1.745]	[0.700]
구조적인 요인	-0.0117***	-0.00909*	-0.0561***	0.0182	-5.046***	0.0945
	[0.00409]	[0.00509]	[0.0152]	[0.0175]	[1.339]	[0.456]
비구조적인 요인	0.00691	0.0739***	0.130***	0.0596**	9.251***	5.930***
	[0.00656]	[0.00766]	[0.0160]	[0.0280]	[1.344]	[0.683]
표본수	16,787	15,463	12,811	4,526	16,787	15,463

주: 1) 각 모형의 종속 변수는 다음과 같다: 모형 1에서 참가한 사람은 1,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0, 모형 2는 참여한 사람들의 시간량, 모형 3은 전체 표본의 시간량

2) []은 표본오차, *** p<0.01, ** p<0.05, * p<0.1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4, 2009

제4절 시간 사용 분포별 요인 분해 분석

시간 사용 변화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집단의 평균 시간량에서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 집단 내에서의 시간 사용의 편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 절에서 수행한 Oaxaca-Blinder 분석은 중심 척도 중에 하나인 평균에 대한 분석이었다. 하지만, Oaxaca-Blinder 분해 방법은 이상치에 민감하게 변화할 뿐만 아니라 중심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정보만을 전달해준다는 단점이 있다. 가사나 돌봄의 분포 전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대부분의 기혼 남성이 가사일을 거의 늘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가사일을 많이 하던 몇 남성이 큰 폭으로 시간을 늘린 경우를 생각해보자.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으로 측정된 가사일에 쓴 시간은 증가한 것으로 추론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평균 외에도 분포의 다양한 분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앞서 기술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과 자녀 돌봄 시간의 편차는 1999-2009년 동안 모두 증가하였지만 한국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의 편차는 감소하고 자녀 돌봄 시간의 편차는 증가하였다. 남성의 가정 영역의 참여 활성화, 출산율의 저하,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심화가 가사노동과 돌봄노동 시간의 편차를 전보다 확대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집단 내부의 편차가 증가한 가운데, 자녀 돌봄 및 가사 노동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집단과 적게 소요하고 있는 집단 간에 어떤 영향 요인이 차별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방법론으로서 Juhn-Murphy-Pierce(1993, 이하 JMP)의 방법론과 Fortin 외 (2011)가 제시한 무조건분위회귀 모형을 활용하였다.

JMP의 경우 Firpo 외(2009)의 모형보다 좀 더 강한 가정에 근거하고 있지만 좀 더 쉽게 분위별로 분해할 수 있다는 장점 역시 가지고 있다.

1. Juhn-Murphy-Pierce 분해

가. 분석 모형

JMP 분해는 옥사카-블라이더 분해와 유사하게 회귀분석을 이용한 분해이다. 통상적으로 3개의 항으로 분해가 되고, 양(quantities), 가격(prices), 미관측(unobservable) 항으로 구분된다. 먼저 기본 방정식으로 아래와 같은 모형을 생각해보자.

$$y_{i,j} = x_{i,j}'\beta + \mu_{i,j}$$

여기에서 $x_{i,j}$ 는 j 년도의 i 번째 가구의 관측되는 특성이고 $\mu_{i,j}$ 는 관측되지 않는 특성이다. β 는 $x_{i,j}$ 의 $y_{i,j}$ 의 한계 기여분이다.

$F_j(\cdot)$ 를 j 년의 잔차의 누적분포함수라고 정의하자. 그러면 주어진 분위 p_i 에 대해서 다음의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p_{i,j} = F_j(\mu_{i,j}|x_{i,j})$$

$$\mu_{i,j} = F_j^{-1}(p_{i,j}|x_{i,j})$$

여기에서 $F_j^{-1}(\cdot)$ 은 $F_j(\cdot)$ 의 역함수이다.

다음으로는 $\overline{F}^{-1}(\cdot)$ 은 기준연도의 잔차의 분포함수의 역함수를 나타낸다고 해보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2가지의 반사실적(counterfactual)

분포를 구해볼 수 있다. 첫 번째 것은 양은 변할 수 있되 가격항과 잔차항은 고정시켜놓은 것이다.

$$y_{i,j}^1 = x_{i,j}\beta + \overline{F^{-1}}(p_{i,j}|x_{i,j})$$

두 번째는 양과 가격 모두 변하는 대신 잔차의 분포는 고정시킨 것이다.

$$y_{i,j}^2 = x_{i,j}\beta_j + \overline{F^{-1}}(p_{i,j}|x_{i,j})$$

마지막 방정식은 원래의 방정식이다.

$$y_{i,j}^3 = x_{i,j}\beta_j + F^{-1}(p_{i,j}|x_{i,j})$$

위의 3개의 방정식을 적절히 배열하면 3단계 분해를 얻을 수 있다. 예컨대, 1사분위(Q1)에서의 가사 시간을 분해를 해보자. 두 개 연도의 가사 시간의 격차 $Y_1 - Y_2$ 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해할 수 있다. 기준연도를 1로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Y_1 - Y_2 = (Y_1^1 - Y_2^1) + [(Y_1^2 - Y_2^2) - (Y_1^1 - Y_2^1)] \\ + [(Y_1^3 - Y_2^3) - (Y_1^2 - Y_2^2)]$$

그러면 위 식에서 첫 번째 항은 $(X_1 - X_2)\beta_1$ 이 된다. 이는 각 연도의 가구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효과, 양의 효과(quantity effect 혹은 endowment effect)이다. 두 번째 항은 $X_2(\beta_1 - \beta_2)$ 이다. 이는 가격 효과(prices effect 혹은 coefficient effect)이다. 마지막 항은

$Y_1 - (X_2\beta_1 + F_2^{-1}(\theta_2|X_2))$ 는 미관측된 양과 가격 때문에 발생하는 효과이다.

나. 분석 결과¹⁸⁾

2004~2009년 기간 동안 남성들의 가정 관리 시간과 자녀 돌봄 노동 시간 변화에서 나타난 비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변화를 Juhn-Murphy-Pierce (JMP) 분해 모형을 활용하여 시간 소요량 분위별로 분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정 관리 시간에서 평균에서 발생했던 7.8분 정도의 증가 중 1.1분은 구조적인 차이에 의해서 감소되었으며, 8.9분은 관측가능한 특성과 비구조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수 분포까지 남성들의 가사노동에 차이는 없었다. 3사분위(Q3)에서는 약 20분 정도 가사 노동 시간이 증가하였다. 관측 가능한 구조적인 특성의 변화에 의해서 4.1분 정도 가정 관리 시간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구조적인 요인과의 구조적인 요인 간의 상호작용은 가사노동을 15.9분 정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9분위(D9)에서도 가사 노동 시간은 3사분위(Q3)와 동일한 크기로 약 20분 증가하였지만 시간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은 3사분위(Q3)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사분위(Q3)에서는 관측 가능한 요인으로 인하여 남성들의 가사 노동 시간이 4.10 증가하였던 반면에, 9분위(D9)에서는 관측 가능한 요인은 오히려 남성들의 가사 노동 시간을 0.58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9분위(D9)에서 남성

18) 전체 시간 사용량 분포를 10분위로 구분한 경우 각 분위는 D1(1분위, 10%), D2(2분위, 20%), ..., D8(8분위, 80%), D9(9분위, 90%)로 표기하였으며, 4분위로 구분한 경우 각 분위는 Q1(1사분위, 25%), Q2(2사분위, 50%), Q3(3사분위, 75%)로 표기하였다.

들의 가사 노동 시간의 증가를 가져온 요인은 비구조적인 요인과 구조적인 요인의 상호 작용으로서 남성들의 가사 노동 시간을 20.59분 증가시켰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녀 돌봄 시간에서 평균에서 발생했던 6.02분 정도의 증가 중 0.70분은 구조적인 차이에 의해서 감소되었으며, 6.72분은 관측 가능한 특성과 비구조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간 사용량 분포 중에서 중위수까지 남성들의 돌봄 노동에 변화는 없었다. 3사분위(Q3)에서는 약 10분 정도 돌봄 노동 시간이 증가하였다. 관측 가능한 구조적인 특성의 변화에 의해서 3.7분 정도 가정 관리 시간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구조적인 요인과의 구조적인 요인 간의 상호작용은 돌봄 노동을 6.3분 정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9분위(D9)에서는 자녀 돌봄 시간이 20분 증가하여 3사분위(Q3)보다 10분 더 큰 증가를 보였다. 관측 가능한 구조적인 특성 변화에 의하여 약 0.85분 자녀 돌봄 시간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비구조적인 요인과 구조적인 요인 간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19.15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JMP 분해 분석 결과는 남성들의 가정 관리 시간과 자녀 돌봄 시간의 평균적인 변화가 시간 사용량이 적은 남성들이 아니라 시간 사용량이 많은 남성들 -적어도 분포도의 상위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남성들-에 의해 주도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남성들의 시간 변화는 관측 가능한 구조적인 요인 보다는 비구조적인 요인과 구조적인 요인의 상호 작용에 따른 것으로서, 이러한 비구조적인 요인과 구조적인 요인의 상호 작용 효과는 시간 사용량이 높은 집단일수록 더 현저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138 저출산 정책 확대에 따른 자녀 양육 행태 변화 분석

〈표 4-14〉 남성의 가정관리시간과 자녀돌봄시간 Juhn-Murphy-Pierce 분해 결과 (2004-2009)

	전체 차이 (2004~2009)	Q	P	U
가정관리시간				
평균	7.84	-1.10	8.99	-0.06
1분위(D1)	0.00	-4.77	8.34	-3.57
1사분위(Q1)	0.00	-1.38	7.04	-5.66
5분위(D5)	0.00	2.30	5.80	-8.10
3사분위(Q3)	20.00	4.10	10.40	5.50
9분위(D9)	20.00	-0.58	8.97	11.62
자녀돌봄시간				
평균	6.02	-0.70	6.77	-0.05
1분위(D1)	0.00	-5.11	4.21	0.90
1사분위(Q1)	0.00	-2.43	3.20	-0.77
5분위(D5)	0.00	0.77	1.40	-2.17
3사분위(Q3)	10.00	3.70	10.78	-4.48
9분위(D9)	20.00	0.85	13.89	5.26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4, 2009

여성의 경우는 가정관리 시간은 평균적으로 볼 때 7.3분 줄어 들었으며 이러한 가정 관리 시간의 감소는 구조적인 요인에 대해 약 4.12분 감소하고 관측가능한 요인과 비구조적인 요인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3.17분 감소하는 등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감소가 더 컸다. 가정 관리 시간량에 따른 차이를 보면 1분위(D1)와 중위수에서는 큰 변화가 관측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분위에서는 약 10분 정도 가정관리 시간이 감소하였다. 동일한 크기로 시간 감소는 나타났지만 각 분위별로 시간량의 변화를 가져온 내재적인 요인은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사용량이 적은 1사분위(1Q)와 3사분위(3Q)에서는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시간 감소가 컸던 반면에, 시간 사용량이 높은 9분위(D9)에서는 구조적인 요인과 비구조적인 요인의 상호 작용에 따른 효과가 월등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녀돌봄 시간은 평균적으로는 4.2분 정도 증가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간량이 적은 1분위(D1)와 1사분위(Q1)에서는 돌봄 시간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중위수 이상의 분위에서 10분 정도 동일한 크기로 증가하였다. 여성들의 자녀 돌봄 시간은 비구조적인 요인과 구조적인 요인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력은 시간 사용량이 많은 집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인 요인은 여성들의 돌봄 시간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구조적인 요인과 비구조적인 요인의 상호 작용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이러한 구조적인 요인의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고 있었다. 구조적인 요인의 부정적인 효과는 시간 사용량이 많은 집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여성의 가정관리시간과 자녀돌봄시간 Juhn-Murphy-Pierce 분해 결과 (2004~2009)

	전체 차이 (2004~2009)	Q	P	U
가정관리시간				
평균	-7.30	-4.12	-3.05	-0.12
1분위(D1)	0.00	-3.92	-0.26	4.19
1사분위(Q1)	-10.00	-6.52	-3.95	0.47
5분위(D5)	0.00	-0.86	-3.30	4.16
3사분위(Q3)	-10.00	-5.91	-2.76	-1.33
9분위(D9)	-10.00	-1.60	-6.08	-2.32
자녀돌봄시간				
평균	4.21	-5.11	9.49	-0.18
1분위(D1)	0.00	-6.90	7.46	-0.56
1사분위(Q1)	0.00	-8.07	6.99	1.09
5분위(D5)	10.00	-2.12	10.18	1.94
3사분위(Q3)	10.00	-2.14	10.89	1.25
9분위(D9)	10.00	-4.68	13.44	1.24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4, 2009

2. 무조건 분위수 회귀 모형

가. 분석 모형

본 연구는 무조건분위회귀(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모형을 추정하여 시간사용분위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요인 분해를 실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선형회귀분석이 종속변수의 조건부 평균을 기준으로 설명변수의 평균적 영향을 추정하는 방법은 종속변수의 계층별로 각기 다를 수 있는 독립변수의 영향을 파악하지 못한다. 가사노동시간과 돌봄시간의 평균값 수준에서의 변화보다는 독립변수가 각 분위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위수 회귀 분석이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선형회귀분석(OLS) 대신 분위수 회귀분석을 적용한다.

분위수 회귀 분석 가운데서도 본 연구는 무조건부 분위수 회귀 분석 방법을 적용한다. 조건부 분위 회귀에서 조건 분위는 관찰된 모든 개인들의 특성이 동일하다고 가정되는 분포에서 한 개인의 위치를 나타낸다. 이에 비해 무조건부 회귀 분석에서 무조건 분위는 관찰된 특성과 관찰되지 않은 특성 모두가 통제되지 않은 전체 분포에서 한 개인의 분위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건부 분위회귀는 같은 특성들을 가진 개인들의 시간량 분포에서 한 개인의 특성이 변화해도 그 개인의 조건 분위는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한 채 한 개인의 특성 변화가 시간량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반면 무조건부 분위회귀는 모든 개인들의 어떠한 특성 변화가 시간량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 분포의 관심 분위에서 추정한다.

Firpo 외 (2009)가 제안한 무조건부 분위 회귀방법의 핵심은 재중심 영향함수(recentered influence function: RIF)를 이용하여 새로운 중

속변수를 구성하고, 종속변수의 무조건 분위수에 대한 설명변수의 한계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 재중심 영향함수(RIF)는 종속변수 분포로부터 얻어지는 특정 통계량(예를 들면 분위수)에 대한 개별 관측치의 영향을 나타내는 영향함수(influence function: IF) 개념에 기초한다. 설명변수 X 에 대한 조건부 기댓값 $E[RIF(y; q_\tau, F)|X] = q_\tau(X)$ 를 RIF 회귀모형이라고 부르고, 관심 통계량이 분위수일 때는 무조건분위회귀라고 부른다.

무조건분위회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속변수의 각 개별 관측치에 대한 $RIF(y; q_\tau, F)$ 를 계산해야 한다. 다음 단계는 추정된 $RIF(y; q_\tau, F)$ 를 새로운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추정결과를 얻는다. RIF를 추정하려면 표본으로 분위수 \hat{q}_τ 를 계산하고 그 분위에서 밀도를 구해야 한다. q_τ 에 대한 밀도인 $f_Y(q_\tau)$ 는 비모수(nonparametric) 추정방법인 커널밀도 추정량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Firpo 외 (2009)의 제안대로 가우시안 커널(Gaussian Kernel)을 사용했다.

무조건부 분위 회귀는 전체 분포에서 개별 변수의 영향을 측정하기 때문에 OB 분해를 바로 적용할 수 있어 특성 변화로 인한 부분과 수의 변화로 인한 부분으로 분해할 수 있다. 어떤 기간의 시작 연도(0) 분포를 F_0 로, 마지막 연도(1)의 분포를 F_1 라 하고 연도 0에서의 특성을 가진 근로자가 연도 1의 분포 하에서 받을 수 있는 가설적 분포인 반사실 분포, F_c 가 있다면, 관심 통계량(ν)에서 연도 1과 연도 0간의 분포 변화는 다음처럼 나타낼 수 있다.

$$\nu(F_1) - \nu(F_0) = [\nu(F_1) - \nu(F_c)] + [\nu(F_c) - \nu(F_0)] \quad (1)$$

식 (1)에서 우변의 첫 번째 항은 연도 1의 실제 분포와 반사실 분포 간

의 차이로 근로자 특성 변화로 인한 분포의 변화이고 우변의 두 번째 항은 반사실 분포와 연도 0에서의 실제 분포 간 차이로 특성에 대한 수익 변화로 인한 분포의 변화이다.

무조건 분위에서 구성효과와 비구조효과를 개별 설명변수들의 효과로 추가 분해하기 위해서 RIF를 이용하여 무조건분위회귀를 실행한다. RIF 회귀로부터 얻은 추정치 $\hat{\beta}^\tau$ 를 이용하여 시작 연도 0에서 마지막 연도 1까지 τ 번째 분위수의 변화를 다음처럼 분해할 수 있다.

$$\hat{q}_\tau(Y_1) - \hat{q}_\tau(Y_0) = (\hat{\beta}_1^\tau \bar{X}_1 - \hat{\beta}_c^\tau \bar{X}_0) + (\hat{\beta}_c^\tau - \hat{\beta}_0^\tau) \bar{X}_0 \quad (2)$$

식 (2)에서 $(\hat{\beta}_1^\tau \bar{X}_1 - \hat{\beta}_c^\tau \bar{X}_0)$ 는 구성효과이고 $(\hat{\beta}_c^\tau - \hat{\beta}_0^\tau) \bar{X}_0$ 는 비구조효과이다. OB 분해에서 전자는 “설명되는” 부분에, 후자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에 해당된다. 식 (2)은 개별 설명변수들의 기여의 합으로 다시 쓸 수 있다.

나. 분석 개요

분석 대상은 기술 분석 대상과 동일한 20~59세 “미취학 자녀” 혹은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혼 성인 남녀로 하였다. 종속 변수의 “가정 관리” 시간과 “자녀 보살피기” 시간은 기술 분석에서와 동일하게 정의하였다.

추정하는 모형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한 이후 시점인 2004년과 2009년의 시간량 분포의 변화 결정요인을 무조건부 분위회귀 방법을 적용해 분석하는 모형이다. 종속 변수는 기술 분석에서 사용한 가정 관리 시간 및 자녀 돌봄 시간과 동일한 정의를 적용하였으며, 각각에 대해 남성과 여성 모형을 별도로 추정한다. 독립 변수는 Oaxaca-Blinder

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2004~2009년 시간 변화를 분해할 때 사용한 독립 변수와 동일한 변수들을 활용하였다 (<표 4-11>).

본 분석은 INED가 1980~2010년 기간 동안 프랑스에서 이루어진 돌봄 노동과 가사 노동 변화를 분위별로 요인 분해한 분석과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였다(Champagne, Pailhé, and Solaz, 2014). 따라서 본 분석 결과를 INED 분석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프랑스의 가사 노동 시간과 돌봄 시간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가사 노동과 돌봄 시간 변화에서의 차이를 고찰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3. 분석 결과

가. 가정 관리 시간 분석 결과

2004~2009년 기간 동안 여성의 가사 활동 시간은 전체적인 분포에서 감소한 반면 남성의 가사활동 시간은 사용한 시간량이 양수로 나타난 7분위(D7) 이상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가사노동을 상당히 많이 했던 집단에서 가사 노동 시간의 변화폭이 크게 나타났다. 프랑스의 1985~2010년에 발생한 변화와 비교해 보면, 프랑스에서는 모든 분포에서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이 감소하여 남성의 경우 프랑스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사노동시간의 증가와 감소를 설명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구조적인 요인보다는 비구조적인 요인, 즉 관념의 변화가 전체적인 분포에서 가사노동시간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는 구조적인 요인과 비구조적인 요인이 모두 2004-2009년 동안 가사노동 시간을 증가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7분위(D7)에서 구조적 요인의 영향력은 14%인데 반해 9분위(D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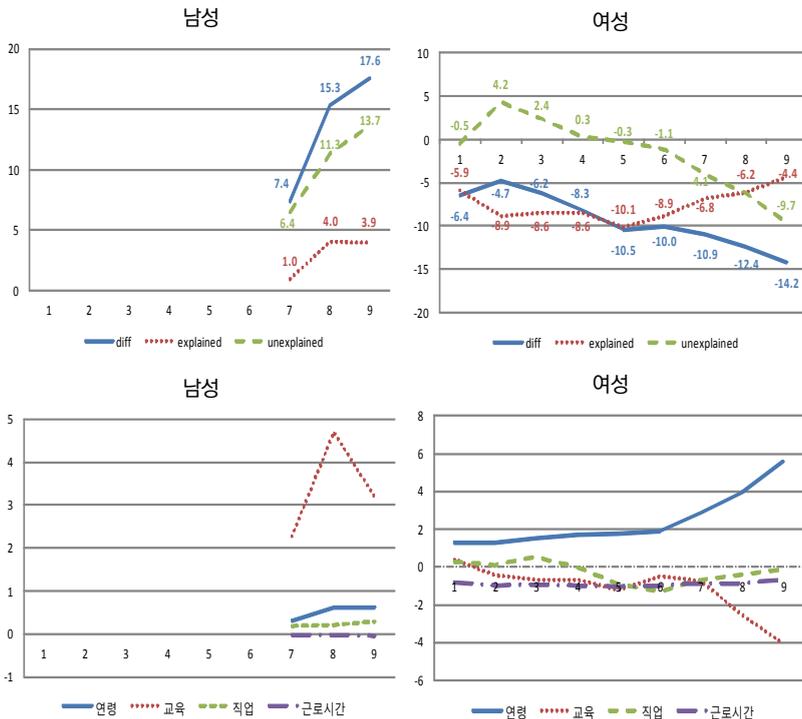
에서는 22%를 차지했다. 비구조적 요인의 영향력이 압도적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남성의 경우 구조적인 요인은 가사노동 시간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를 했으나 비구조적인 요인은 가사노동 시간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 한국과 프랑스 공통적으로 구조적인 요인은 가사노동 시간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관념과 문화의 변화는 상반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여성의 경우는 가사노동에 시간을 적게 투입하던 4분위(D4) 이하에서 비구조적인 요인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전체 분포에서 구조적 요인과 비구조적 요인이 가사노동 시간을 감소시키고 있다. 즉 가사노동에 시간 사용이 적은 집단에서 가사노동 시간이 감소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요인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비구조적인 요인은 증가시키고 있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든 분포에서 비구조적인 요인이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을 감소시키고 있었던 프랑스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 여성의 가사노동의 경우 1999년에 비해 2009년에 집단 내 편차가 감소하고 있었는데 하위 분포에서 비구조적인 요인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인한 가사노동 시간의 증가가 부분적으로 그 원인이었던 것임을 시사한다. 상위 분위에서 가사노동 감소가 가장 컸던 것은 비구조적 요인의 영향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2004-2009년 사이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의 감소를 주도했던 것은 시간을 많이 투입하던 계층에게는 관측할 수 없는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 기술 변화의 효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분포에 따라 구조적인 요인과 비구조적인 요인의 효과가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사노동에 시간을 적게 투입하던 집단에서는 비구조적인 요인의 긍정적 영향이 구조적인 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상쇄하고 있다. 그러나 가사노동에 시간을 많이 투입하던 집단에

서는 비구조적인 요인의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구조적 요인의 부정적 영향은 하위 분포 여성에서보다 감소하고 있다. 2분위(D2)에서 구조적인 요인의 영향력은 32%, 5분위(D5)에서는 거의 100%를 차지하나 9분위(D9)에서는 6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구조적인 요인 변화에 따른 가사 노동의 감소가 대략 10-19%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한국 여성의 가사노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 구조적 요인의 설명력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9] 가사 활동 시간 변화의 시간 사용 분포별 요인 분해 분석 결과(2004-2009)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4, 2009

[그림 4-9]는 구조적인 요인들 중에서도 제반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제시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교육 수준이 가사노동 증가에 가장 큰 설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에서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의 감소를 가장 주되게 설명했던 것은 취업 상태의 변화였다. 취업 상태는 가사 노동에 남성의 참여를 유도했고 상위 분포 집단에서 이런 경향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는 연령의 경우는 오히려 가사노동 시간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는 반면 교육은 가사노동 시간 감소에 가장 큰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 투입이 많은 상위 분포 집단일수록 연령 변수의 증가 효과, 교육의 감소 효과는 컸다. 근로시간은 분포에 따라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참가와 직업의 종류는 중간 분포에서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나. 자녀 보살피기 시간 분석 결과

2004-2009년 기간 동안 남성의 돌봄노동 시간은 모든 분포에서 증가했다. 돌봄노동에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드물어 8분위(D8) 이상에서 변화가 관측되고 있는데, 8분위(D8)보다는 9분위(D9)에서 돌봄노동시간의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났다. 한편 여성의 돌봄노동 시간은 7-8분위(D7, D8)에서 돌봄노동 시간이 가장 많이 증가한 가운데, 3-5분위(D3, D4, D5)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었고 9분위(D9)에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경우 남녀 모두 모든 분포에서 돌봄노동 시간이 증가했고, 상위 분포에서 증가폭이 더 컸다는 점에서 우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가사노동 시간은 감소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데 할애하는 시간은 증가했으며, 돌봄노동에 시간 할애가 컸던 상위 집단에서의 큰 증가폭이 2004-2009년 기간 동안 남성의 자녀 돌봄기 시간의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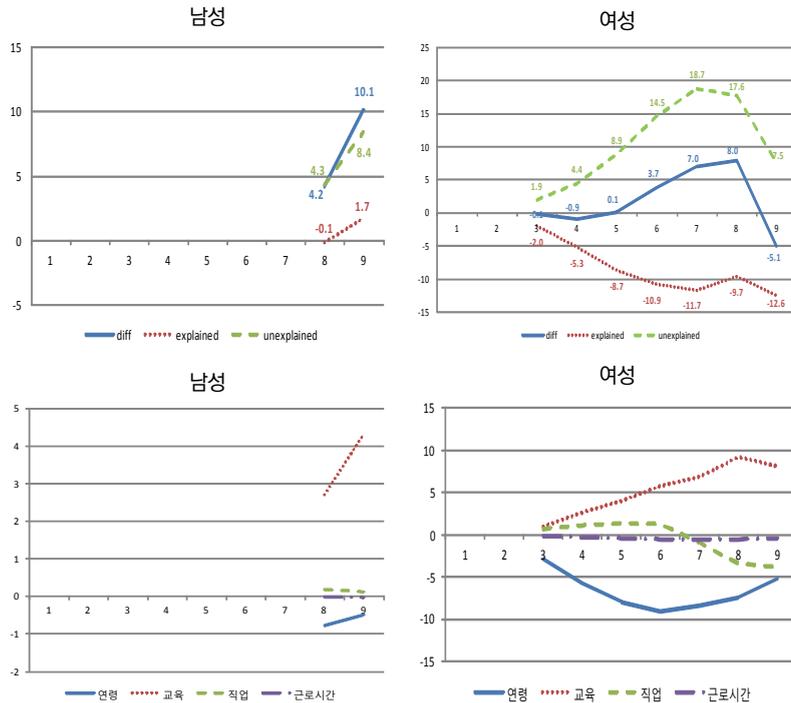
차가 커진 데 기여한 것을 의미한다. 여성의 경우 중간 분위에서 돌봄노동 시간이 가장 크게 증가했고 양 극단의 분위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거나 감소했기 때문에 동기간 동안 집단 내 돌봄노동 시간에서의 편차가 오히려 다소 감소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를 분위별 증감에 대해 구조적인 요인과 비구조적인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자. 남성의 경우 비구조적인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모두 돌봄시간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고 그 설명력에 있어서는 비구조적인 요인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9분위(D9) 보다는 8분위(8D)에서 비구조적인 요인의 영향력은 더욱 크다. 다시 말해 돌봄노동 시간량이 더 많은 9분위(9D) 집단에서 교육이나 연령 등의 구조적인 요인의 영향력이 돌봄시간에 대한 가치 부여, 인식 변화 등 관측할 수 없는 요인들의 영향력보다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프랑스에서도 분위가 높을수록 구조적인 요인의 영향력이 더 컸다는 사실은, 돌봄노동 시간의 변화가 가장 컸던 상위 분위에서의 시간 사용 행동 변화는 비구조적인 요인보다는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보편적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경우는 프랑스에서와 마찬가지로 비구조적인 요인은 돌봄노동 시간을 증가시키는 반면, 구조적인 요인은 돌봄노동 시간을 감소시키고 있다. 그러나 돌봄노동에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입하고 있던 상위 분포 집단에서 비구조적인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중위 분포 집단과 비교해 크게 감소했다. 부모시간에 대한 가치 부여, 인식, 사회문화적 환경과 기타 관측할 수 없는 요인들의 영향은 이 집단에서 부모 돌봄 시간에 대한 긍정적 영향력이 가장 작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8분위(8D) 이상 분포에서 비구조적인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이 다른 분포에서보다 더욱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와 다소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간 분포에서는 하위 분포에 비해 비구조적 요인의 긍정적 효과가 구조적 요인의 부정적 효과를 압도하고 있다. 2004-2009년 기간 동안에 기혼 여성의 돌봄노동 시간의 편차가 감소한 것은 8분위(8D) 이상의 상위 분포에서의 비구조적 영향력의 감소한 것을 반영하고 있지만, 5-8분위(D5~D8)에서의 비구조적 긍정적 영향력이 구조적인 부정적 영향력을 상쇄하여 평균치에서는 92분에서 93분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10] 자녀 돌봄 시간 변화의 시간 사용 분포별 요인 분해 분석 결과 (2004-2009)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4, 2009

구조적인 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자. 남성의 경우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교육 수준은 가사노동과 마찬가지로 돌봄노동 시간을 증가시키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분포를 따라 교육 수준의 영향은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데 돌봄에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입하던 8분위(D8) 이상 집단에서도 그 양의 효과는 그다지 감소하지 않았다. 남녀 모두 구조적 요인들 중에 부모의 연령 상승과 노동시장참여는 돌봄노동 시간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지만 교육 수준의 증가가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그나마 상쇄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의 효과를 살펴보면, 연령은 돌봄노동시간을 감소시키고 있는데, 돌봄에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입하던 집단에서 그 감소의 정도는 가장 작다. 근로시간은 남녀 모두에서 분포에 따라 영향의 정도에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경제활동참가와 직업의 영향은 돌봄노동에 시간을 많이 투입하는 집단에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여성 경제활동이 증가하면 전반적으로 자녀 돌봄 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녀 돌봄 시간이 높은 여성에게서 부정적인 효과는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 소결

본 절에서는 자녀를 둔 기혼남녀의 가사노동시간과 돌봄노동 시간의 시간 사용 변화의 요인을 분위별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 이후에 나타난 자녀 양육 행태 변화를 분석한다는 취지에 따라 생활 시간 조사 자료의 이용 가능한 연도인 2004~2009년 기간에 한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¹⁹⁾. 1985-2010년 간의 가사노동시간과

19) 1985~2010년 기간 동안 이루어진 변화를 분석한 프랑스 연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1999년부터 가장 최근에 공표된 2009년 기간까지의 10년간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1999년도 조사의 사회경제적 변수가 2004년 및 2009년도와는 차이가 있어 동일한 사회경제적 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는데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 이후의 시점인 2004~2009년도 기간 동안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돌봄노동 시간 사용의 변화를 분석한 프랑스와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감안해도 전반적인 변화에 있어서 상당히 유사한 가운데 상이한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한국에서 가사노동 시간은 여성의 경우 감소했지만 남성의 경우 증가했다. 가사노동 시간이 길었던 집단에서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프랑스에서는 모든 분포에서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이 감소하여 남성의 경우 프랑스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의 변화에서 한국과 프랑스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추측해 보자면, 우선 프랑스 남성에 비해 한국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의 절대적 수준이 더 이상 감소할 수 없을 정도로 낮기 때문일 수 있다. 나라마다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의 격차가 상당히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사노동 시간의 남녀 격차가 가장 큰 국가로서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를 사회문화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시점에 있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여 남성의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현실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프랑스에서는 비구조적인 요인이 남성의 가사노동을 감소시킨 반면 한국 남성의 가사노동은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본 연구 결과는 분석 시기에 한국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 모형에서 통제할 수 없었던 현실적 요구 등이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했음을 시사한다.

둘째, 자녀 양육과 관련한 시간 사용에서의 변화 중 가장 보편적인 현상은 가사노동 시간에 비해 돌봄노동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돌봄노동 시간의 경우는 남녀 모두 모든 분포에서 돌봄노동 시간이 증가했고, 중간 혹은 상위 분포에서 증가폭이 더 컸다는 점에서 프랑스와 유사했다. 프랑스와 한국 모두 저출산에 대한 대응으로서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녀 양육의 시간적 부담에 대한 경감이

실제적인 돌봄노동 시간 감소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 프랑스와 한국 모두에서 비구조적인 요인은 돌봄노동 시간을 증가시키는 반면, 구조적인 요인은 돌봄노동 시간을 감소시키고 있다. 여성의 교육 수준과 경제력 향상으로 인한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기대와 실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노동 시간에 부여하는 가치, 문화, 인식, 혹은 태도 등은 여전히 여성의 자녀에 대한 돌봄노동에 대한 시간 투자를 증가시켰다. 특히 중간 분포에서 돌봄 노동 시간의 증가는 이러한 비구조적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바가 컸고, 돌봄노동에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여성의 구조적 상황을 어느 정도 상쇄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자녀 출산과 양육에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함축할 수 있다. 우선 돌봄노동 시간 증가는 분석 표본의 선택 편의에 의한 것일 수 있다. 프랑스와 한국 모두 이미 자녀를 출산한 부모의 시간 사용 변화를 분석했고, 이미 자녀를 출산한 부모는 자녀가 없는 일반 남녀에 비해 시간 사용의 선호 내지는 성향이 돌봄 노동 지향적일 수 있기 때문에 돌봄 노동 시간의 증가는 이러한 소위 ‘부모’ 집단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노릇’에 대한 규범과 문화는 이미 부모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돌봄노동 시간 사용 행태에 의해 집단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간분포 이상에서의 돌봄노동 시간 사용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부모노릇’의 시간적 부담의 신호가 되며 잠재적 부모의 출산 결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남성의 돌봄노동 시간의 증가가 비구조적 요인에 전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은 남성의 의식 변화가 저출산을 타개하는 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노동시장 구조 및 관행에서는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는 점을 나타내 개선할 지점이 많음을 시사한다. 여성의 돌봄 노동 시간에서 구조적인 요인의 부정적인 영향을 비구조적인 요인의 긍정적

영향이 어느 정도 상쇄하고 있는 점은 자녀 돌봄 시간에 대한 심리적 동기가 자녀 출산과 양육 동기와 행태를 떠받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하면서도 출산력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참여가 돌봄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은 경제 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구조적 요인들 중에서 부모의 연령 상승과 노동시장참여는 돌봄노동 시간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지만 교육 수준의 증가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그나마 상쇄시키고 있었다. 또한 교육수준의 증가는 가사노동 시간을 감소시키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사노동 시간이 돌봄노동 시간으로 대체되는데 교육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부모가 모두 노동시장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의 양적·질적 구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향후 자녀돌봄 시간에 대한 가치 부여나 선호라는 비구조적인 요인이 어느 정도로 자녀돌봄시간을 일정 수준에서 떠받쳐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부모가 모두 취업함으로써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내실 있게 보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의 종합

제2절 향후 정책 방향



제1절 연구 결과의 종합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 이후 부모들의 돌봄 부담 측면에서 자녀 양육 행태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가 파악하기 위하여 가사 노동 시간과 돌봄 시간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메카니즘을 분석하였다. 실증적인 분석을 위하여 국내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1999, 2004, 2009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가사 노동 시간과 자녀 돌봄 시간의 변화 양상과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요인을 구조적인 요인과 비구조적인 요인으로 분해하였다.

기술 분석 결과, 남성의 가정 관리 시간과 자녀 보살피기 시간은 모두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자녀 돌봄 시간은 증가하였으나 가정 관리 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의 경우에서도 자녀 돌봄 시간은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서구 국가의 유형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남성들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의 참여율과 시간량이 현저히 낮고, 여성 비중과 여성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가정 관리 시간과 자녀 보살피기에 있어 강한 성역할 관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세부 활동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엄격한 성역할 구분의 약화 경향은 감지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외부 인력으로 대체가 용이한 가정 관리 시간이 자녀 돌봄 시간 보다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량 분위별로 비교한 결과 시간 사용의 시계열 변화는 시간 사용량이 많은 집단에서 더

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2004~2009년 기간 동안 남성들은 가정 관리 시간과 돌봄 시간의 참여율, 참여한 사람들의 시간량, 전체 사람들의 시간량 모두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인구학적 특성 등 구조적인 요인의 차이보다는 관습이나 인식과 같은 “비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유도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들의 경우 참여율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참여한 사람들의 시간량과 전체 여성들의 시간량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자녀 돌봄 시간과 가사 시간 모두 증가한 남성들과 달리 여성들은 가정 관리 시간에서는 감소가 나타난 반면에, 돌봄 시간에서는 증가가 나타났다. 가정 관리 시간의 감소는 비구조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자녀 돌봄 시간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비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증가된 바가 컸다.

시간 사용량의 평균적인 증가가 시간 사용량 분포에 있어 어떤 집단에 의해 주도된 것인가 그리고 시간 사용 분포별로 구조적인 요인과 비구조적인 요인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가를 파악한 결과, 남성들의 평균적인 시간 증가는 시간 사용량이 높은 3사분위(Q3) 이상을 차지하는 집단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구조적인 요인 보다는 비구조적인 요인과 구조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들의 경우 가정관리시간의 감소는 전체 분위에서 어느 정도 고르게 나타난 반면에, 자녀 돌봄 시간은 시간량 분포의 5분위(5D) 이상을 차지하는 집단에서 나타났다. 시간 사용량이 높은 집단일수록 구조적인 요인보다는 구조적인 요인과 비구조적인 요인의 상호 작용에 따라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무조건 분위 회귀를 통해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한 프랑스의 연구 결과와 비교한 결과 한국에서 가사 노동 시간은 여성의 경우 감소했지만 남성

의 경우 증가하여 모든 분포에서 남녀의 가사 노동 시간이 감소한 프랑스와 차이를 보였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비구조적인 요인이 남성의 가사 노동을 감소시킨 반면 한국 남성의 가사 노동은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는 노동 시장 참여와 임금 등 노동 시장 조건이 프랑스 남성들의 가사 활동을 증가시킨 반면에, 한국 사회에서는 가사 노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 현실적인 요구 등이 한국 남성의 가사 노동 시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돌봄 노동 시간의 경우 남녀 모두 돌봄 노동 시간이 증가했고 특히 중간 혹은 상위 분포에서 증가폭이 더 컸다는 점에서 프랑스와 유사했다. 여성의 경우 프랑스와 한국 모두에서 비구조적인 요인은 돌봄 시간을 증가시키는 반면, 구조적인 요인은 돌봄 시간을 감소시키고 있었다. 남성의 돌봄 노동 시간의 증가가 비구조적 요인에 의해 전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은 남성의 의식 변화가 저출산을 타개하는 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변해 주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적인 요인 효과는 노동 시장 구조 및 관행에서 크게 달라진 바가 없음을 시사한다. 여성의 돌봄 노동 시간에서 구조적인 요인의 부정적인 영향을 비구조적인 요인의 긍정적인 영향이 상쇄하고 있다는 점은 자녀 돌봄 시간에 대한 심리적 동기가 자녀 양육 행태를 떠받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구조적인 요인 중에서 부모 연령 상승과 노동 시장 참여는 돌봄 노동 시간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지만 교육 수준의 증가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고 있었다. 교육 수준의 증가는 가사 노동 시간을 감소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사 노동 시간이 돌봄 노동 시간으로 대체되는데 교육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2절 향후 정책 방향

종합적으로 볼 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 이후 가사 활동과 자녀 돌봄 시간에서 변화는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가사 노동 시간에서 남성들의 시간량 증가와 여성들의 시간량 감소는 가사 노동에 대한 전반적인 부담 수준이 감소하고 있으며 양성 불평등적인 특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돌봄 노동의 증가는 남성들의 측면에서는 자녀 양육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여성들의 경우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자녀에 대한 돌봄 역할이 여성에게 강조되고 있고 돌봄 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향후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언할 수 있다. 첫째, 가사 노동 및 돌봄에 있어 남성들의 참여가 과거 보다 증가하고 있고 성 역할 규범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나 여전히 절대적인 시간량에서 남성들의 참여는 부족한 상황이다. 전체 평균적인 차원에서 남성들의 가사 및 육아 참여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변화는 시간 사용량이 많은 즉 가사와 육아 활동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일부 집단에 의해서 유도 된 것이며 아직도 과반수 이상의 남성들은 가사 활동 및 육아 활동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자녀 돌봄과 가사 시간 사용량이 많은 남성 집단은 자녀에 대한 투자 욕구와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실은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남성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고 자녀에 대한 시간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반면에 소득과 교육이 낮은 집단에서는 여전히 남성들의 가사 및 육아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실제로 남성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과 자녀 양육 참여는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은 남성은 가족을 위한 생계 활동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밖에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가족과 자녀들에게 쏟을 시간을 적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생계 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는 중산층 이하 남성들이 노동 시장에서 겪고 있는 현실이다. 중산층 이하 남성들의 가사 및 자녀 양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보장해 주는 노동 시장 정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남성들의 변화가 인구사회학적 특징인 구조적인 요인 보다는 인식과 태도와 같은 비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것은 남성들의 가사 및 육아 참여에서 비구조적인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사실과 함께, 구조적인 사회 체계의 변화가 남성들의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현재 정부가 남성들의 가사 및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주로 인식 개선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남성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일과 가정 양립을 증진하려는 노력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시 퇴근 직장 문화 조성은 중산층 이상의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에게 유효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야근과 시간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중산층 이하 남성들에게는 현실성이 약한 정책일 수 있다. 육아 휴직 정책만 보더라도 남성들의 육아 휴직 참여도가 저조한 것은 일과 가정 생활 양립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이라기보다 육아 휴직 급여가 낮다는 경제적인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남성들의 자녀 양육 및 가사 활동 참여 독려를 위해서는 인식 개선 사업과 함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등 거시적인 경제 지표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무상 보육 및 초등 방과후 돌봄 등 그 동안 자녀 양육을 위한 많은 서비스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특히 여성들의 돌봄 시간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서 선행 연구 결과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북구 유럽 국가에서도 자녀 돌봄을 위한 시간은 증가하였다. 자녀 돌봄 시간의 증가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일과 가정 생활 양립이 과거 보다 더 가능하게 되어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보다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국가가 자녀 돌봄을 위하여 과거보다 서비스를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들의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은 감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고도 할 수 있다.

실제로 국가가 아동을 위한 공공 프로그램을 마련한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함께 동행해야 하는 등 과거 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부모들의 돌봄 노동 증가가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정서적인 가치의 증가로 연결되고 있는지, 아니면 비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단지 부담의 증가로 결과되고 있는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돌봄 노동 시간의 증가는 그동안 현저하게 낮았던 남성들의 시간을 고려해 볼 때 긍정적인 변화라고 수 있겠으나, 여성들의 돌봄 노동 시간 증가는 국내 낮은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과 그 동안 확대된 보육 서비스 지원을 미루어 볼 때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돌봄 노동이 그 동안 이미 여성들에게 과도하고도 불평등하게 부과되고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여성들의 돌봄 시간 증가는 최근 국가적인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여성들의 돌봄 시간 증가는 우리 사회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역

할이 아직도 여성의 몫이라는 성역할 분업적인 태도가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는 우려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넷째, 여성들의 경우 교육 수준, 경제활동 참여, 소득 수준 등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가사 노동 시간의 감소는 거시 경제적인 환경 변화가 여성들의 가사 노동 부담을 감소해 주는데 기여한 것을 보여 주는 대목으로서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돌봄 노동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여성들의 돌봄 노동이 경제활동 참여 등과 같은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감소되지 않고 설명될 수 없는 비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증가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자녀에 대해 보다 많은 투자를 요구하는 경쟁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자녀에 대해 경쟁적으로 투자하는 양상은 무상 보육 체계가 무색할 정도로 많은 보육 시설과 유치원에서 특별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을 부모들에게 부과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설명될 수 없는 비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자녀에 대한 돌봄 시간의 증가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자녀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투자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차원에서의 투자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과거 경제 개발 시대에서 자녀에 대한 투자는 우수한 인적 자본의 형성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에서 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 위주의 투자는 더 이상 인적 자본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과 시간 측면에서 부모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있을 뿐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자녀에 대한 투자는 아동이 공공재라는 개념 하에서 공적인 영역의 주도 하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사교육 등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비효율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 김수정·김은지(2007). 한국 맞벌이 가구에서 가사노동과 경제적 의존의 관계: 교환 혹은 젠더보상, 한국사회학. 41(2), pp.147-174.
- 김외숙·이기영·이연숙·조희금·한영선·김하나·김주희·김주희·윤용옥(2010). 식사, 가사노동, 여가를 중심으로 한 가족공유시간 분석-200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자료 심층분석 연구(사회분야), 통계청·한국방송통신대학교.
- 김정석·은기수·차승은·고영미(2010). 일상생활의 시간구조와 시간체험-200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활용 심층분석 연구(경제분야), 통계청·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진옥(2005). 근로기혼여성의 이중노동부담에 관한 실증연구: 가사노동부담에 관한 협조적 적응, 이중노동부담, 적응지체 가설의 검증. 한국사회복지학. 57(3), pp.51-72.
- 김진옥·최영준(2012). 일-가족 시간배분에 따른 가구유형과 변화 -퍼지셋 이상형 분석의 적용. 한국사회복지학, 64(2), 대한 실증적 연구: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pp. 239-287. pp.31-54.
- 손문금(2005a). 맞벌이 부부의 무급노동분담에 대한 실증적 연구: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pp.239-287.
- _____ (2005b). 여성의 이중부담과 유급노동시간의 주변화: 맞벌이부부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8(1). pp.277-311.
- _____ (2011). OECD 주요국 성별 무급노동 참여현황과 국가정책: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 송유진(2011). 한국인의 일상생활 시간변화: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양육 시간, 한국인구학. 34(2), pp.45-64.
- 윤자영(2010). 모(母)의 시간배분 결정요인 분석, 노동경제논집. 33(2), pp.27-52.
- 은기수(2009). 한국 기혼부부의 가사노동분업, 한국인구학. 32(3), pp.145-171.
- 이승미·이현아(2011). 맞벌이 임금근로자 남녀의 생활시간구조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9(5), pp.1-96.

통계청(1999). 1999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_____(2004). 2004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_____(2009). 2009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 Bäck-Wiklund, M. and Bergsten, B. (1997). *Det moderna föräldraskapet: en studie av*
- Beck, U. and Beck-Gernsheim, E. (2002). *Individualization: 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 and its Social and Political Consequences*, London: Sage.
- Becker, G. S. and H. G. Lewis (1973).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2), Part 2: New Economic Approaches to Fertility, pp. S279-S288.
- Becker, G. S. and N. Tomes (1976). Child Endowments and the quantity of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2), pp.S143-S162.
- Bergnéhr, D. and E. Bernhardt(2013). The non-modern child? Ambivalence about parenthood among young adults., the Meaning of Work, *The Social Meaning of children and Fertility Change in Europe*, Chap7
- Bernardi, L. (2013). From Mother to Daughters: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Fertility norms. *The Social Meaning of children and Fertility Change in Europe*. Chap10, pp.153-169.
- Bianchi, S. M.(2000). Maternal Employment and Time with Children: Dramatic Change or Surprising Continuity?, *Demography*. 37(4), pp.401-414.
- Billari, F. and C. Willis (2001). *Convergence towards diversity? Cohort dynamics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in contemporary Western Europe*, MPIDR Working Paper

- Blinder, A. (1973). Wage Discrimination: Reduced Form and Structural Estimates. *Journal of Human Resources*. 8(4), pp.436-455.
- Champagne, C., A. Paihé, and A. Solaz. (2014). *25 ans de participation des hommes et des femmes au travail domestique: quel facteurs d'évolution?* Documents de Travail 203, Institute national d'études démographiques
- Dalla Zuanna, G. (2001). The Banquet of Aeoulus. *Demographic Research*. 4(5), pp.133-162.
- Ellingsaeter, A. L., A.-M. Jensen, M. Lie. 편저 (2013). *The Social Meaning of Children and Fertility Change in Europe*, London and NewYork: Routledge.
- Ellingsaeter, A. L., and E. Pedersen (2013) Economic risk, fertility and the welfare state: understanding individual rationales, *The Social Meaning of children and Fertility Change in Europe*, Chap. 3, pp. 31-47.
- Esping-Andersen, G. (2009) *The Incomplete Revolution: Adapting to Women's New Roles*, Cambridge: Polity Press.
- Fawcett, T. J. (1988) 'The value of children and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in Palkovitz, R. and Sussman, B. M. (eds) *Transitions to Parenthood*, New York and London
- Fisher, K., A. McCulloch, and J. Gershuny (1999). British Father and Children: A Report for Channel 4'Dispatches
- Folbre, N. (1994). Children as public goods, *American Economic Review*, 4(2), pp.86-90.
- Fortin, N., T. Lemieux, and S. Firpo(2011) "Decomposition Methods in Economics," In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ume 4a, Elsevier, B.V.
- Firpo, S., Nicole M. Fortin, and T. Lemieux (2009). Unconditional

- Quantile Regressions. *Econometrica*. 77(3), pp.953-973.
- Galinsky E. (2000). *Ask the Children: The Breakthrough Study That Reveals How to Succeed at Work and Parenting*. New York: Quill.
- Gauthier, A. H., T. M. Smeeding, and F. F. Furstenberg (2004). Are Parents Investing Less Time in Children? Trends in Selected Industrialized Countri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0(4), pp.647-671.
- Hallberg D. and N. A. Klevmarken (2003). Time for Children: A Study of Parent's Time Allocation,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6, pp.205-226.
- Juhn, C., K. M. Murphy, B. Pierce (1993). Wage Inequality and the Rise in Returns to Skil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1(3), pp.410-442.
- Jurczyk, K. (2013) Flexible work: Implications for the Social Meaning of Children, *The Social Meaning of children and Fertility Change in Europe*, Chap4, pp.48-67.
- Lenoir, R. (2003). *Généalogie de la Morale Familiale*. Paris: Editions du Seuil (coll.Liber)
- Letablier, Marie-Thérèse (2013). The Politics of Parenting: The Meaning of Children, the Meaning of Work., *The Social Meaning of children and Fertility Change in Europe*, Chap2. pp. 12-30
- Livi Bacci, M. (2001). Too few children and too much family, *Daedalus* 130(3), pp.139-155.
- Mclanha, S. and G. Sandefur (1994). *Growing Up with a Single Parent: What Hurts, What Help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iranda, V. (2011). *Cooking, Caring and Volunteering: Unpaid Work*

- Around the World.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116.
- Myrskylä, M., H.-P. Kohler and F. C. Billari (2009). Advances in development of reverse fertility declines. *Nature* 460. pp.742-743.
- Oaxaca, R. (1973). Male-Female Wage Differentials in Urban Labor Market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4(3), pp.693-709.
- OECD(2014a). *OECD Employment database*.
- OECD(2014b). *OECD Family database*.
- Ravn, M. N. and M. Lie (2013) The cultural ideal of the joint decision: illuminating values of individuality and relationality of the child choice, *The Social Meaning of children and Fertility Change in Europe*, Chap6. pp. 86-101
- Segalen, M. (2010) *A qui Appartiennent les Enfants?*. Paris: Editions Taillandier.
- South, Scott J. and G. Spitze (1994). Housework in marital and nonmarital househo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 pp.327-347.
- Subrémon, H. (2012). Pour une intelligence énergétique: ou comment se libérer de l'emprise de la technique sur les usages du logement *Métropolitiques*. Novembre
- Van de Kaa, D. J. (1987). Europe's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Bulletin*. 42(1), pp.1-59.
- Willis, R. J. (1987). What Have We Learned from the Economics of the Family?, *American Economic Review*. 77(2), pp.68-81.
- World Economic Forum(2012).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